

地 域 研 究
방 글 라 데 시
- ODA 供與를 中心으로 -

崔 成 浩

1993.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머 리 말

最近의 급속한 경제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向上은 특히 우리의 對外經濟活動에 대한 후발개도국의 기대를 높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開放化 時代를 맞아 우리경제가 담당할 國際的 役割에 대해서도 새롭게 認識되고 있다. 특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면한 여러 課題중의 하나로서 對開途國 公的開發援助(ODA)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對開途國 協力を 위해서는 最貧國중에서도 전략적인 重点協力 對象國家를 선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73년 우리와 國交를 수립한 방글라데시는 종족, 언어,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여타 西南東國家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뿌리깊은 宗教紛爭이나 民族紛爭이 없어 人道的 次元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經濟的 次元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評價된다. 따라서 對開途國 無償協力を 담당하고 있는 本 協力團으로서는 방글라데시 經濟·社會開發과 관련하여 특히 人的資源의 開發에 중점을 둔 援助供與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分野別 技術協力 및 靑年海外奉仕團 派遣 등 기존의 협력사업도 더욱 強化해 나갈 필요가 있다.

本 冊子는 국내외 관련자료를 참고로 本 協力團 研究調查局의 최성호研究員이 작성하였다. 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내용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本 資料가 방글라데시와의 각 分野別 協力增進에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本 冊子の 모든 내용은 筆者의 個人意見이지 本 協力團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년 12월

研究調查局長

目 次

I. 一般概況	5
1. 地理的 特徵	5
2. 人口的 特徵	13
3. 社會・文化的 特徵	17
II. 部門別 現況分析	29
1. 農 業	29
2. 農村開發	44
3. 教 育	59
4. 保 健	67
5. 工 業	79
6. 資源・에너지	89
7. 輸 送	104
III. 開發援助 現況分析	116
1. 概 要	116
2. ODA 構成	117
3. 兩國間 援助	120
4. 國際機構의 援助	131
IV. 對방글라데시 協力方向	135
1. 우리의 開發援助 實績	135
2. 對방글라데시 協力方向	139
〈附 錄〉	147
A. 主要統計	149
B. 방글라데시 全圖	175

表 目 次

〈表 I-1〉 방글라데시 人口센서스	14
〈表 II-1〉 地域別 耕作現況	30
〈表 II-2〉 쌀・小麥 輸入推移	32
〈表 II-3〉 主要 品種別 生産推移	35
〈表 II-4〉 漁獲高 現況	38
〈表 II-5〉 地域別 새우養殖場 現況	39
〈表 II-6〉 種類別 灌溉面積	42
〈表 II-7〉 初等教育 脱落率	61
〈表 II-8〉 教育部門 豫算	67
〈表 II-9〉 主要 死亡原因	71
〈表 II-10〉 醫療施設 및 病床數	72
〈表 II-11〉 主要 保健醫療教育 現況	76
〈表 II-12〉 主要 輸出商品 構成	85
〈表 II-13〉 主要 輸入商品 構成	85
〈表 II-14〉 分野別 商業에너지 消費量	91
〈表 II-15〉 天然가스 埋藏量	92
〈表 II-16〉 天然가스 生産動向	93
〈表 II-17〉 電力生産과 消費	95
〈表 II-18〉 農村電化 實績	97
〈表 II-19〉 傳統的 에너지의 供給量	98
〈表 II-20〉 非에너지 鑛物資源 生産	99
〈表 II-21〉 輸送手段別 貨物輸送	104
〈表 II-22〉 道路鋪裝 現況	105
〈表 II-23〉 主要 品目別 鐵道輸送量	106

〈表 Ⅱ-24〉 BIWTC의 輸送現況	107
〈表 Ⅱ-25〉 Chittagong港과 Mongla港의 現況	115
〈表 Ⅲ-1〉 對방글라데시 援助現況	118
〈表 Ⅲ-2〉 DAC 會員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19
〈表 Ⅲ-3〉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20
〈表 Ⅲ-4〉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無償資金協力	123
〈表 Ⅲ-5〉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有償資金協力	124
〈表 Ⅲ-6〉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技術協力	125
〈表 Ⅲ-7〉 技術協力方式 프로젝트	126
〈表 Ⅲ-8〉 美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28
〈表 Ⅲ-9〉 캐나다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30
〈表 Ⅲ-10〉 獨逸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31
〈表 Ⅲ-11〉 國際機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34
〈表 Ⅳ-1〉 우리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136
〈表 Ⅳ-2〉 開發調查事業 內譯	136
〈表 Ⅳ-3〉 KOICA의 對방글라데시 協力現況	138

註：本文의 表중 資料源을 밝히지 않은 것은 ‘방글라데시 統計年報(1992)’
를 參考한 것임.

그림 目 次

〔그림 I -1〕 Dhaka 地域의 月別 氣候變化	8
〔그림 I -2〕 사이클론 航路 및 洪水地域	9
〔그림 I -3〕 방글라데시의 主要 江體系	12
〔그림 I -4〕 人口分布 現況	15
〔그림 II -1〕 耕作地 利用現況	31
〔그림 II -2〕 방글라데시의 敎育制度	62
〔그림 II -3〕 農村保健施設 및 組織	74
〔그림 II -4〕 主要 에너지産業 分布	103

I. 一 般 概 況

1. 地理的 特徵

가. 地 形

방글라데시의 지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특징지워 지는데 그것은 빈번한 범람으로 인해 발달한 광활한 삼각주 평원과 빠른 속도의 강들이 교차하여 이루어진 소규모 구릉지대를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총면적은 148,000km²로서 남북으로는 820km, 동서로는 600km 뻗어 있으며, 동·서·북쪽으로 인도와 2,400km의 내륙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내륙과 수면에 의해 미얀마와 193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부지역에는 벵갈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많은 강과 그 지류에 의해 갈라진 약 600km에 달하는 매우 불규칙적인 삼각주의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다. 국토의 약 80%는 벵갈平原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방글라데시平原(Bangladesh Plain)이라고 불리우는 비옥한 冲積期의 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평원의 북부 일부는 해발 105m까지의 고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해발 10m 이내이며 남부 해안지대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 거의 해수면과 일치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국토면적중 약 10,000km²가 물에 잠겨 있으며, 낮은 고도와 수많은 강으로 인해 몬순계절에는 전국의 넓은 지역에 걸쳐 홍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의 국토중 남동부에 위치한 Chittagong 丘陵地帶(Chittagong Hills), 북동부의 Sylhet 지대, 그리고 북부 및 북서부의 고지대 등이 이러한 낮은 고도지역의 예외가 되고 있다. Chittagong 지대는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북에서 남으로 뻗은 미얀마의 산악지대의 서부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다. Chittagong 지대는 대체로 해발 600~900m 높이의 가파르게 솟은 협소한 능선을 형성하고 있다. 구릉지대의 남

동부에 위치한 Keokradong이 해발 1,046m로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북에서 남으로 뻗은 능선 사이사이에 비옥한 계곡이 펼쳐져 있다. Chittagong 지대의 서부지역은 주변의 강들이 벵갈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광활한 평원이 형성되고, 이 평원은 최고 해발 350m이며, 그 밖의 대부분은 200m 이하의 연속적으로 이어진 해안의 저구릉지대와 최종적으로 이어진다. 이 구릉지대의 서부는 북쪽의 Chittagong市와 남쪽의 Cox's Bazar市 사이에 위치한 협소하고 습한 해안평원을 이루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국토의 약 67%가 경작이 가능한데 이중 2%만이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하며, 목초지가 4%, 삼림지대가 16%를 차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양질의 목재, 대나무, 사탕수수 등을 다량 생산하고 있다. 특히 대나무는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생산되고 있으며 질 좋은 목재는 고지대의 계곡등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구릉지대에서 고무나무 재배가 이루어져 고무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방글라데시平原의 冲積土는 대체로 비옥하여 경작하기에 알맞으며 雨期 동안 강물에 의해 운반된 沈泥 퇴적물로 더욱 풍부해 진다.

나. 氣 候

방글라데시는 강우량의 계절적 변화가 심하며, 비교적 온난하고 습도가 높은 아열대 몬순기후를 지니고 있다. 일년중 3월~6월은 고온다습한 여름이고, 6월~10월은 서늘하고 비가 내리는 몬순계절이며, 10월~3월은 춥고 건조한 겨울이 진행되는데 대체적으로 지역별 기후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통상 여름철은 기온이 32~38℃를 나타내며, 4월은 전국적으로 가장 온난한 달이고, 1월은 가장 추운 달로서 전국의 평균기온이 10℃ 정도이다. 겨울철에는 보통 북풍 및 북서풍이 불어 오는데 내륙지역은 시속 1~3 km, 해안지역은 3~6km의 속도로 바람이 분다. 3월~5월 사이에는 시속 60 km의 강풍을 동반한 심한 폭풍우가 발생한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과 몬순계

절이 끝날 무렵의 강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시속 160km 이상의 바람으로 인해 벵갈灣에 6m 높이의 파도가 발생, 해안지대의 극심한 범람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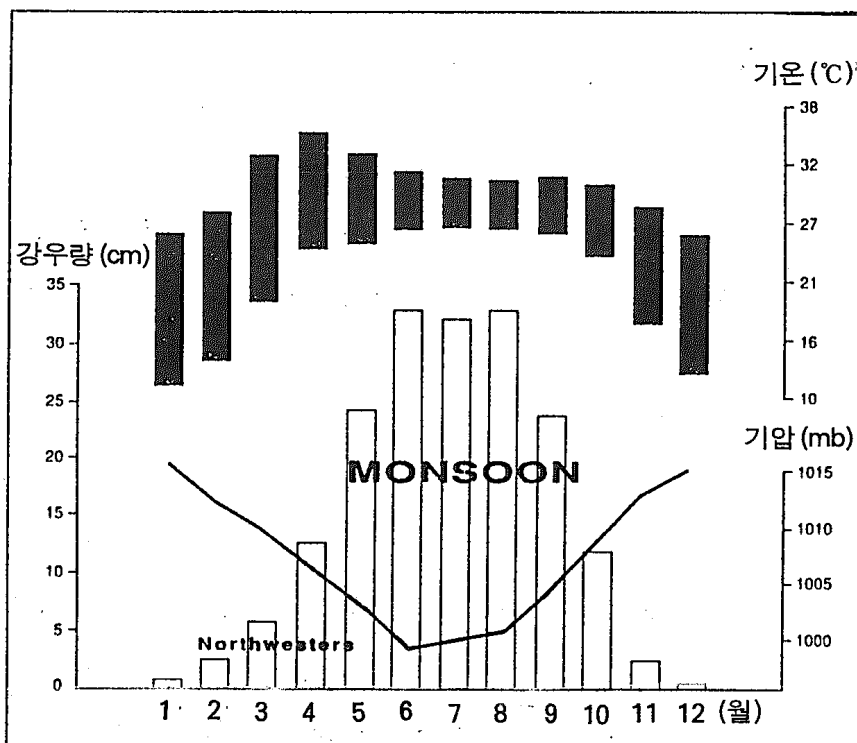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건조한 서부지역으로서 연간 강우량이 160cm 내외인 Rajshah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적어도 연간 200c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Sylhet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계절풍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평균 강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 지역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328~478cm에 달한다. 일일 평균습도는 습도가 낮은 3월에는 45~71%, 습도가 높은 7월에는 84~92%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강우량의 약 80%는 몬순계절중에 기록되는데 이 계절풍은 지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저기압과 고기압지대가 서로 만남으로써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4월과 5월에 인도대륙 상공으로 무더운 공기가 올라가 저기압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차갑고 습한 바람이 인도洋으로부터 불어 오는데 이것이 바로 남서 계절풍으로서 통상 6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된다. 계절풍은 크게 두갈래로 갈라져 한 줄기는 인도 서부지역을 강타하고, 다른 한 줄기는 벵갈灣으로 진출, 인도 동부와 방글라데시平原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진행한 후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서 서쪽 및 북서쪽으로 향한다.

인도洋에서 불어오는 사이클론, 토네이도, 해일 및 이로 인한 홍수 등 자연적 재난은 거의 매년 방글라데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조수에 의한 강어귀의 범람 등은 해안지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1947년 이래 10여차례의 사이클론이 전국을 강타, 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1985년 5월, 시속 154km의 강풍과 4m의 파고를 동반한 사이클론이 방글라데시 남부와 남동부를 휩쓸어 1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4,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135,000두 가량의 가축이 몰사당했다. 또한 제방손실은 거의 400km에 달했다. 매년 계절풍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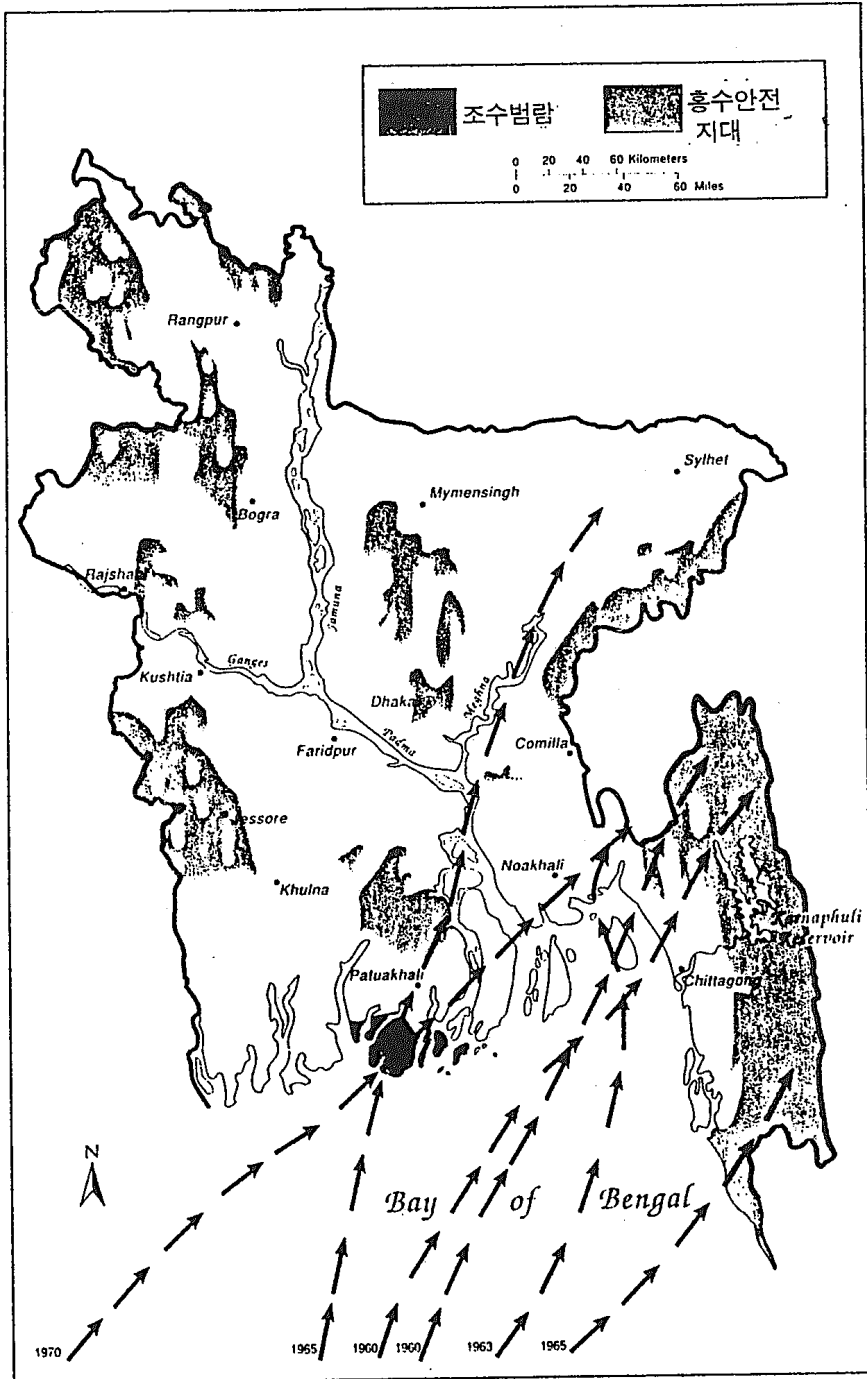
한 홍수는 인명 및 재산의 손실, 통신시설의 파괴 등을 가져오며 식수의 부족으로 전염병의 만연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1988년 방글라데시의 64개 지역중 2/3 가량이 집중호우로 수리시설이 침수, 전국에 걸친 홍수피해를 입어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식수를 구하지 못했다. 재난 구호물자의 주요 수송로인 Zia국제공항 활주로를 포함, Dhaka의 절반 가량이 침수되어 약 200만톤의 곡물이 유실되고 구호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현재로는 사이클론, 해일 등에 미리 대비하거나 보다 안전한 공공건물을 세우고 적절한 사회간접시설과 공항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를 줄이려는 시설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농업기상학, 해양기상학, 해양학, 지진학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적시적인 재해예측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림 I-1〕 Dhaka 지역의 月別 氣候變化



[그림 1-2] 사이클론 航路 및 洪水地域



다. 江體系

방글라데시에는 약 700여개의 강이 있으며 대부분은 농업용수 및 상업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어류획득 등 이 나라 국민의 단백질 공급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몬순기간중 폭우로 인한 강의 범람으로 국토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지만 풍부한 沈泥의 퇴적물을 쏟아냄으로써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의 강들은 남쪽으로 흘러 벵갈灣으로 빠진다.

풍부한 방글라데시의 강들은 크게 5개의 주요 江體系로 구분된다. Jamuna-Brahmaputra江은 292km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북부로부터 Padma江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뻗어 있다. 중국의 Xizang자치구(티벳)에서 시작되어 인도의 Arunachal Pradesh州를 관통하여 흐르면서는 Brahmaputra('Brahma의 아들'이라는 의미)江으로 불리우며 총길이 740km에 달하는 5개의 주요 지류가 합류한다. Brahmaputra江이 방글라데시의 Tista江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Jamuna江으로 알려져 있는데 Jamuna江의 흐름은 비옥한 沈泥로 이루어진 수많은 섬을 형성한다. 이 강주변으로는 정착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강체계중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Padma-Ganges江으로서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인도와의 서부 국경지대로부터 Jamuna江과 합류하는 지역인 Dhaka 서방 72km 지점까지 뻗은 총 258km의 Ganges江과 Ganges-Jamuna 합류지점으로부터 Chandpur에서 Meghna江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총 126km의 Padma江으로 구분된다. Padma-Ganges江은 통상 동쪽 및 서쪽을 통해 Padma江으로 유입되는 총길이 2,100km에 달하는 수백개의 지류를 형성하는 삼각주 강체계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세번째는 Surma-Meghna江으로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Chandpur까지 이어지며, 이곳에서 Padma江과 합류한다.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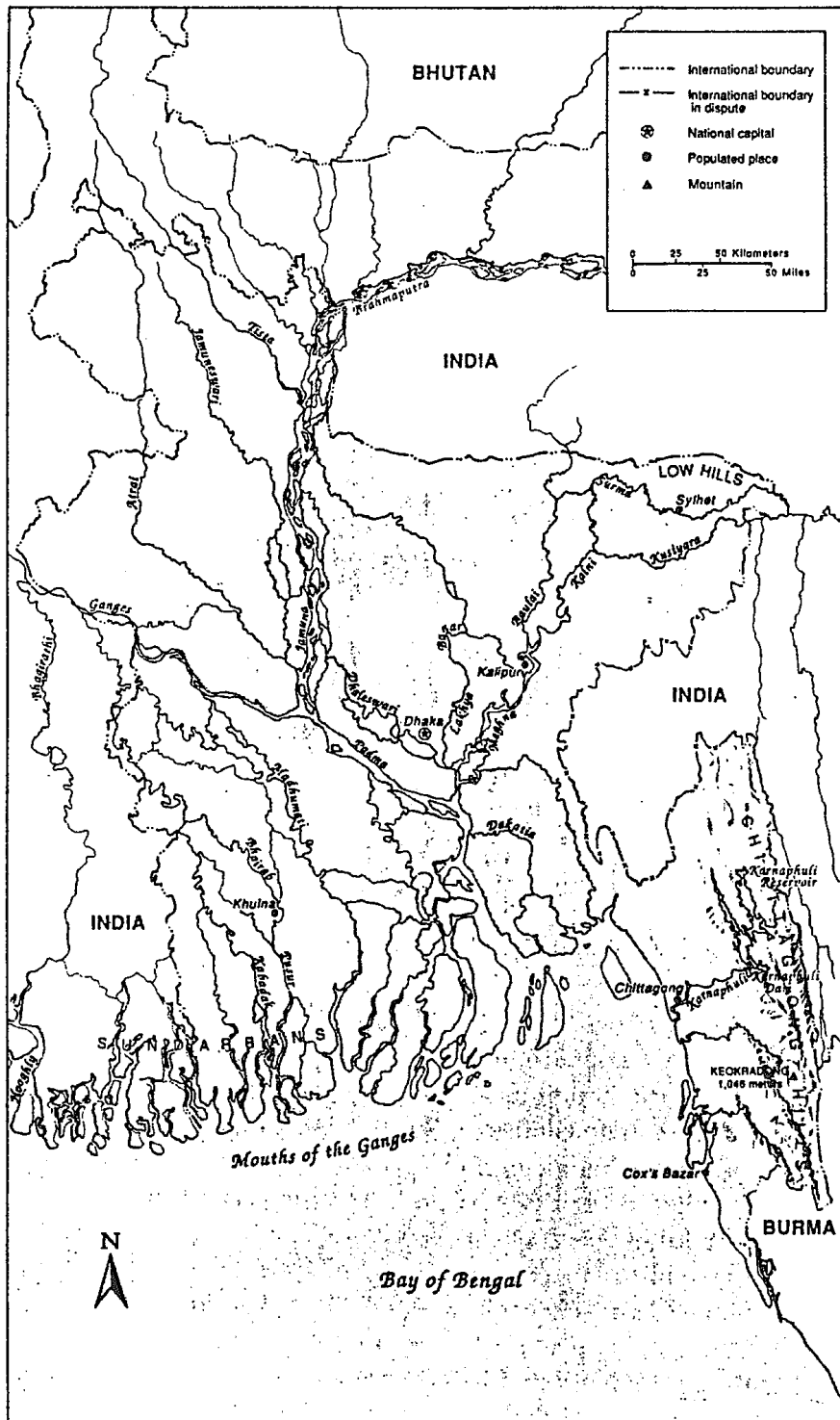
669km로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긴 Surma-Meghna江은 6개의 소규모 강에 의해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Kalipur市 이하로는 Meghna江으로 불리운다. 이 Meghna江과 Padma江이 서로 만나면서 벵갈灣까지 145km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의 네번째 주요 강체계인 Padma-Meghna江이 형성된다.

이 강력한 네번째 강체계는 방글라데시 평원을 관통하여 흐르면서 약 150만km²에 달하는 지역의 배수를 담당한다. Padma-Meghna江의 수많은 수로와 지류, 그리고 벵갈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규모 강들은 소위 갠지즈강의 어귀(Mouths of the Ganges)로 일컬어진다. Jamuna江처럼 Padma-Meghna江과 벵갈灣 유역의 수많은 어귀 또한 비옥한 침니로 이루어진 많은 섬이 형성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의 다섯번째 주요 강체계는 이미 설명한 네 곳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Karnaphuli江이다. 이 강은 Chittagong市와 구릉지대를 관통하여 서부 및 남서부 저지대로 빠르게 흘러 바다로 빠진다. Feni江, Karnaphuli江, Sangu江 및 Matamuhari江은 총길이가 420km로서 이 지역의 주요 강들이다. Chittagong港은 Karnaphuli江 연안에 위치해 있다. Karnaphuli 저수지와 댐도 이 지역에 위치해 강을 이용, 수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몬순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의 강은 초당 140,000m³의 양으로 흐르며, 반면 乾期에는 초당 7,000m³로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어든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농업용수의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순수 경작지의 60%가 넘는 약 910만ha가 극심한 홍수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雨期에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며, 약 40% 가량이 건조한 겨울기간 동안 경작이 진행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수자원개발도 강의 범람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시설 등 홍수예방과 건조한 겨울철의 경작을 위한 관개시설 설치 등 이중 수리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수자원관련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관개, 홍수통제, 배수시설, 수력발전 등에 중점지원되며 내륙수운과 도로건설에도 도움을 준다.

[그림 I-3] 방글라데시의 主要 江體系



이와 함께 각 지역별 관개를 위해 수많은 管井(tube well)과 전기동력 펌프가 활용된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토의 각 지역이 염분의 침투없이 관개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자원개발원은 관개, 홍수통제, 배수 등 모든 수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방글라데시 Krishi 은행,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원, 방글라데시 은행, 방글라데시 농업공사 등도 정부의 신용공여를 통해 민간부문의 소규모 관개사업의 개발 및 증진에 관여하고 있다.

2. 人口的 特徵

가. 人口構造 및 分布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1901년으로 기록된 인구센서스에서는 후에 東파키스탄이 된 東벙갈지역의 인구가 총 2,90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로부터 분리독립된 후 1951년까지 東파키스탄의 인구는 4,400만명으로 늘었으며, 그후 방글라데시 독립 이래 공식적으로 첫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74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 총 7,100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1981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총 8,700만명을 기록, 1974년의 인구센서스 이래 연평균 2.9%의 인구성장율을 보임으로써 1900년초부터 80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1991년 현재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1억 988만명으로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율은 2.03%에 이르고 있다. 공식적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오는 2000년까지 1억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인구밀도는 이 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901년에는 1km²당 평균 216명이 거주하였고, 1951년까지 3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821명을 기록하였다. 1991년 현재 방글라데시의 전국 인구밀도는 1km²당 740명이며, 이중에서 경작가능지역의 인구밀도는 1km²당 1,347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00년까

지 방글라데시의 인구밀도는 1km²당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1〉 방글라데시 人口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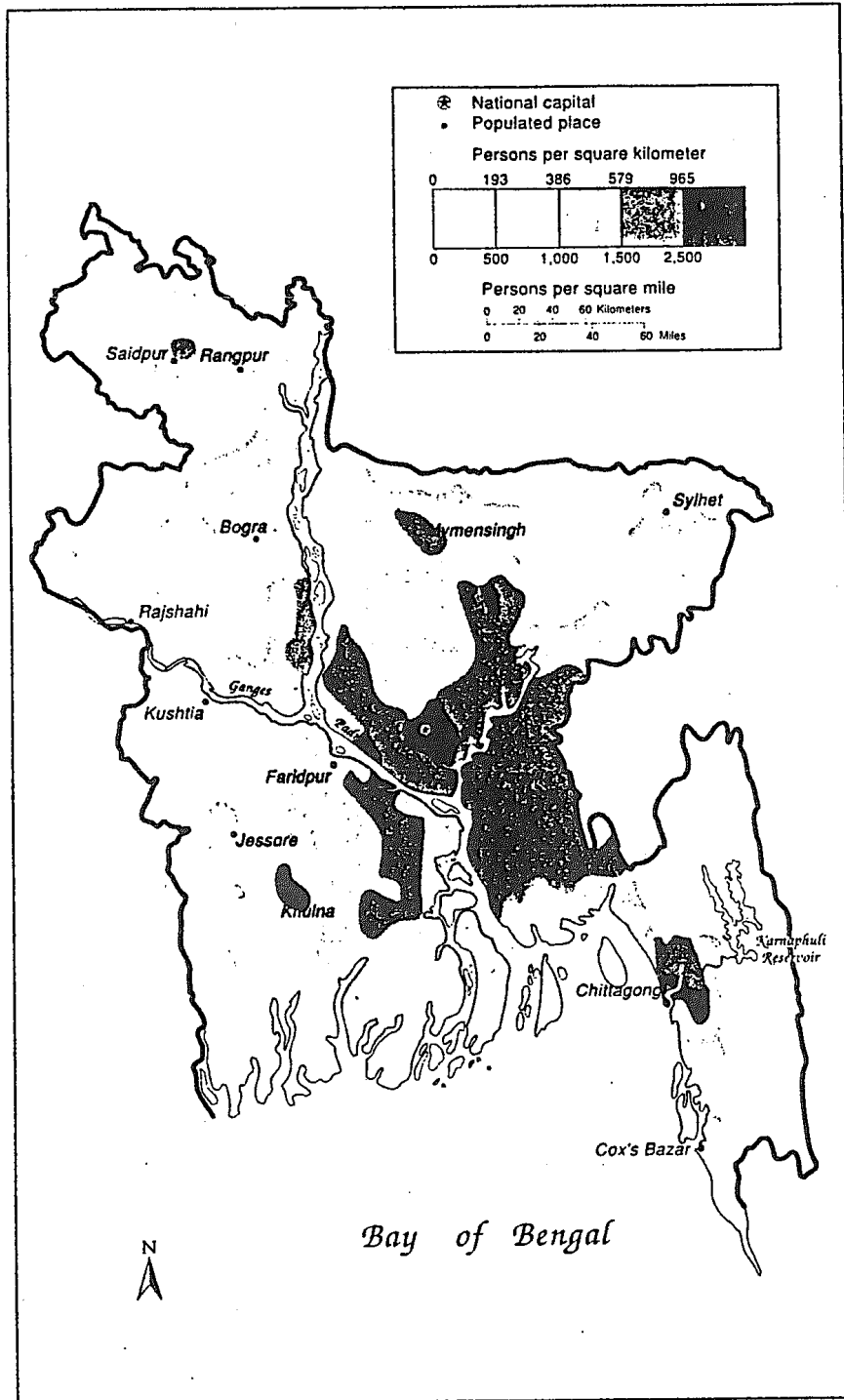
면적(km ²)	143,998
인구(센서스 결과)	
1981. 3. 6	89,912,000
1991. 3. 11	
남 자	55,579,003
여 자	52,413,137
합 계	107,992,140
인구(공식추정)	
1987	102,563,000
1988	104,532,000
1989	106,507,000
인구밀도(km ²) : 1991. 3 현재	750.0

자료 : The Europa World Year Book(1992)

1981년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출생율은 34.6명으로 47명을 기록한 1961년 이래 20년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출생율은 대체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아 1981년의 인구 1천명당 출생율은 농촌지역이 35.7명, 도시지역이 24.8명을, 1985년에는 농촌지역이 35.3명, 도시지역이 28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1991년 현재 출생율은 전국평균 31.6명중 농촌지역이 32.9명, 도시지역이 23.9명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사망율은 1951년의 40.7명에서 1985년에는 1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농촌과 도시지역의 사망율은 12.9명, 8.3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1991년 현재 사망율은 전국평균 11명으로서 농촌지역의 11.5명에 비해 도시지역은 7.3명을 나타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신생아 1천명당 유아사망율은 1981년의 111.5명에서 1991년에는 90.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출생·사망율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94.4명으로 도시지역의 69.3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 현재 방글라데시인의 평균수명은 56.1세로서 남자(56.5세)와 여자(55.6세)가 거의 비슷한

[그림 I-4] 人口分布 現況



준이며, 도시거주자(60세)가 농촌거주자(55.8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80% 이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1980년대를 통해 공업개발이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도시인구의 비율이 1974년 인구센서스의 8.8%에서 1988년 18%로 증가하였으며, 오는 2000년까지는 30%에 이를 전망이다. 1981년에는 2개 도시(Dhaka, Chittagong)에만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였으며, 기타 7개 도시(Narayanganj, Khulna, Barisal, Saidpur, Rajshahi, Mymensingh, Comilla)는 각각 10여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여러 도시중 수도인 Dhaka市가 가장 빠른 인구성장을 기록, 1951년 33만 6,000명에서 1981년 34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Chittagong市는 29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늘어났다. 기타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각각 20,000~50,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도시들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중심지나 내륙교통 및 상업적 시설을 위해 지리적으로 적합한 소재지로 성장하였다. 사실상 대도시중 서로 인접한 곳은 Dhaka市와 Narayanganj市 뿐이다.

나. 人口移動 및 抑制

비록 방글라데시는 금세기초 이래 몇몇 인구유입의 흐름을 경험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치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인구의 꾸준한 유출경향을 보였다. 1947년 인도로부터 분리되면서 300만명이 넘는 힌두인들이 東파키스탄을 떠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약 86만 4,000명의 회교난민들이 인도로 부터 東파키스탄으로 이주해 왔다. 1971년에는 東파키스탄 군부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약 800~1,000만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는 금세기 최대의 인구이동이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독립이후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되돌아왔으며, 이전의 西파키스탄으로부터 약 10만명의 방글라데시인이 유입되었다. 1971년 전쟁시 파키스탄편에 섰던 Biharis라고

알려진 약 60만명의 非뽕갈계통의 회교도들이 계속 방글라데시에 거주하였다. 1974년초에는 수천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인도의 Assam州로 이동하였으며, 1980년대를 통해 Chittagong 지역의 몇몇 종족 그룹이 정치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인도의 Tripura州로 이주, 인도와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숙련된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방글라데시인이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中東, 西유럽, 北美 등으로 이주해 감으로써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0년대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인구증가 압력으로 인해 Chittagong 지역의 산간지대나 Sundarbans의 일부지대 등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있었으며, 농촌의 빈곤은 도시지역, 특히 수도 Dhaka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켰다.

방글라데시의 노동가능인구는 1980년대를 통해 매년 150만명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성장율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외 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구억제 및 가족계획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국내민간단체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1960~81년 동안 인구성장율은 3%에서 2.3%로 떨어졌으며, 1979년의 가임부부의 12.7%에 불과한 피임시행도 1985년 중반에는 25%로 증가하였다. 1985년 조사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전국을 통해 단지 3,700여개소의 가족계획시설만이 있으며, 여기에 총 15,600명의 가족계획요원이 종사하는데 그중 1/4 가량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성적인 문제에 관해 여성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社會・文化的 特徵

가. 概 要

방글라데시는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한 지리적・민족적 실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이 지역은 계속해서 이어진 인도제국의 일부분이었으며, 영국의 식민지배기간 동안에는 벵갈의 背後地의 동부지대로서 영국의 통치자들과 힌두인의 전문 엘리트집단에 의해 지배되었다. 1947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파키스탄의 1개 州(東파키스탄)로 독립한 이후 현재의 방글라데시는 西파키스탄의 非벵갈인 계통의 이슬람 지배층의 관리하에 들어 갔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의미하였다.

1947년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 힌두인들은 東벵갈 지역의 농촌 및 도시경제, 정부관직의 약 80% 가량을 장악하였으며, 재정 및 교육부문과 전문직종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東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하면서 東벵갈지역 힌두인들의 대대적인 탈출과 함께 힌두인의 정치·경제적 지배가 무너지고, 이 지역의 캘커타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이와 함께 이슬람인들은 힌두인들의 이동에 따라 생긴 공백을 재빠르게 메꿈으로써 東벵갈 지역은 사상 최초로 경제 및 정부조직이 이슬람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곧 이와 같은 지배체제는 특히 정부공직 및 전문직종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비호를 받은 西파키스탄 집권층의 수중에 들어갔다. 1971년 방글라데시가 독립하자마자 미처 준비가 덜된 방글라데시의 엘리트 집단이 西파키스탄인들에 의해 공석이 된 자리를 메꾸어 갔으며, 방글라데시의 이슬람인들은 즉시 소규모 非벵갈인 계통의 이슬람 집단을 제외한 모든 중소 상공업계층에 대해 통제정책을 취하였다. 1972년의 非벵갈인 소유의 대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이 지역 토착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지배층의 갑작스러운 부상과 군부관료화의 확대는 도시 및 농촌의 각 분야의 균형을 깨트렸다. 정당제휴나 정치적 접촉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정치·경제계의 엘리트층이 형성됨으로써 기존의 중간계층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다. 농촌에서는 새로 형성된 지배계층이 그들의 사회·

정치적 통제권을 확립해 나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농촌의 정치지배층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 확고부동했던 수많은 富農(jotedars)들을 대체하여 새로운 농촌지배층의 성장을 가져왔다.

나. 民族構成

방글라데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중에서는 종교문제를 제외하곤 비교적 민족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국가로서 바로 이 점은 개발원조의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몽골-드라비다系의 벙갈族이며, 그밖에 Chittagong 지방과 Mymensingh, Sylhet, Rajshahi 등지에는 아라칸, 차크마, 바루아 등의 버마系 종족과 인도의 Bihar 지방에서 이주해 온 Bihar族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결혼풍습, 출생 및 장례의식, 의상, 음악 등 사회풍습과 제도가 서로 상이하다. 1980년대 중반에 조사된 종족들의 종교적 분포상황을 보면 힌두교 24%, 불교 44%, 기독교 13%, 기타 19%를 나타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종족중 규모가 큰 것으로는 Chakma, Marma(Magh라고도 함), Tippera(Tipra), Mro(Moorang)등 4개의 종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규모가 큰 Chakma族은 기타 다른 종족보다 벙갈族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Marma族과 함께 대체로 고지의 계곡부근에 거주한다. 대부분의 Chakma族은 불교도이고, 약간의 힌두교도와 원시신앙 숭배자가 있다. 버어마인의 조상인 Marma族은 버어마를 그들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여기며, 대부분의 Marma 부족원들은 약탈자라는 뜻에서 나온 Magh라는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명칭을 싫어한다. 이슬람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가 있지만 Marma族 역시 대부분은 불교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ippera族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도이고, 사실상 Chittagong 지역의 대부분의 힌두교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Chitta-

gong 북부지역으로부터 점차 이주해 왔고, 북부의 Tippera族은 Mrung族으로 일컬어지는 소수의 남부지역 종족에 비해 벵갈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Chittagong 지역의 원주민으로 간주되는 Mro族은 구릉지대의 고지에 거주하며 때때로 자신들의 부락을 외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요새화 한다. Mro族은 자신들 고유의 문자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일부는 버어마語(Bengali라고도 함)를 읽을 수 있다. 종교적으로 이들 대부분은 불교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종교적 행태는 무속신앙에 가깝다.

그 밖에 방글라데시의 기타 지역의 종족집단으로는 Rajshahi와 Dinajpur에 분포해 있는 Santal族, Mymensingh와 Sylhet 등지에 거주하는 Khasi族, Garo族, Khajon族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은 가난한 농촌 거주자들로서 인접한 인도의 종족집단에 속해 있다.

언어성으로는 인구의 약 98% 이상이 다소의 방언의 차이는 있으나, Indo-Aryan系의 Bangla語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Bangla語는 소설, 시, 음악 등 각 장르별로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힌두인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Rabindranath Tagore와 이슬람인으로서 ‘벵갈 민족주의와 독립의 목소리’로 알려진 Nazrul Islam은 서방에 잘 알려진 대표적 시인이라 할 수 있다. Bangla語의 공용어 이외에 Chittagong 지방에 많이 거주하는 Chakma, Marma 등의 종족들은 Tibet-Burma系의 언어를 사용하나,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2%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Chittagong 지방의 인구비율로 볼 때는 30~40%에 해당됨으로 종족간 민족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Chittagong 지방의 소수민족의 경우 화전경작 등 벵갈平原의 농민들과 생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에 의한 이해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방글라데시 독립이전 대영제국시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는 공용어로서 영어가 사용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영어로 진행된 까닭에 정부관계자나 도시, 농촌의 인텔리계층은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개

발원조에 있어서 원조공여측의 영어능력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독립이후 민족주의 입장에서 Bangla 語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고등교육도 Bangla 語로 진행되면서 정부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인들의 영어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대중과 긴밀한 접촉하기 위해서는 Bangla 語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이슬람敎

(1) 歴史的 變遷

방글라데시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소중의 하나는 바로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는 이 지역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몇가지 시대적 변천이 있었다.

이 나라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것은 일찌기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로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3세기에 이르러 Dhaka 등 북서부, 중부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도들의 왕권이 확립되었는데, 이슬람교가 현재의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666년의 Chittagong 정벌이후의 일이다. 초기 이슬람교는 Sufi(신비주의적 이슬람)의 성격이 강하고, 힌두교와의 혼합적 성격을 띠었다. 이슬람교의 정복이후 본래 힌두교도와 불교도가 다수였던 이 지방사람들중 최하층민들이 카스트제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이교도 인두세를 피하기 위해 이슬람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졌다. 사회의 중간계층인 기술관료적 역할을 수행한 힌두교도는 점차 국가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 정책수행에 있어서 근대교육을 잘 받은 힌두교도를 행정직에 많이 기용했다. 이에 반해 이슬람교도 상류층은 주권자 지위를 빼앗긴 반감에서 식민지 교육에 반발하였으며, 힌두교도 하류계층은 경제력의 부족으로 근대적 교육에 있어서 힌두교도의 지식인층에 뒤쳐졌다. 한편 19

세기 토지정책의 개혁에 따라 정세수취인의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힌두교도가 토지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볼 때 힌두교도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대지주, 상인, 행정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슬람교도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작농, 소작농, 농업근로자, 소상인으로 존재함으로써 종교적 차이과 경제적 격차가 복합이 된 불행한 사회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힌두교도의 중간계층에서 반식민지적 성격을 띤 힌두교 개혁 및 복고주의가 일어나고, 이에 대해 이슬람측에서도 통상 Wahabbi라고 불리우는 몇가지 改革 復古主義가 일어나, 그 결과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던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교양, 관습면에서 크게 분리되어 상호 배타적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종교의 대립은 경제적으로 지주대 소작이라는 계급적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가 1947년 東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의 일부를 형성하여 1971년 독립할 때까지 24년간 이슬람교는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변칙적으로 동서로 갈라진 국가의 절반으로 출발한 東파키스탄은 반독립국의 지위로서 여러 행정조직이 팽창되었고, 종래 켈커타 농업의 배후지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이 지역의 공업화도 1950년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농업 이외의 직종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본래 이러한 근대적 비농업계통의 직종에 종사해야 할 도시거주의 힌두교도는 분리독립시 인도로 이민한 경우가 많아, 결국 아직 경험이 충분치 못한 이슬람교도가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은 이례적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졌으며, 대지주였던 힌두교도가 이주시 소유토지를 싸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사들여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킨 이슬람교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슬람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이득이 뒷받침되어 국가창조의 이념으로서 이슬람교는 국민들간에 더

욱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농촌의 하류계층중 노인층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바탕이 되어 방글라데시의 독립이후에도 親이슬람 사상을 계속 갖게 되었다. 또한 파키스탄으로 있었던 24년간의 교육은 ‘親이슬람, 反인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 없다.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방글라데시의 독립은 언어문제, 경제문제가 얽힌 東파키스탄의 西파키스탄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저항에서 발생한 것이다. 1971년 당시에는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방글라데시는 西벵갈州와 함께 한 국가가 되거나 인도의 1개 州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지식인층은 만약 다시 인도와 통합된다면 자본규모나 기술우수성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특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대중속에 침투한 ‘親이슬람, 反인도’교육의 성과는 反파키스탄은 反이슬람이며, 동시에 親인도라는 단순한 횡적이동의 도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독립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군사개입에 의해 독립을 달성한 Mujibur Rahman 대통령은 방글라데시를 비종교국가로 선언하고 親인도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Mujibur 대통령의 정권이 붕괴되고, 뒤를 이은 Zia 대통령은 표면상으로는 비종교이념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이슬람교적 정책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對인도정책에 있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83년에 취임한 Ershad 대통령도 방글라데시 대중의 의향에 따라 전임자와 같이 비슷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親이슬람의 태도를 표방해 왔다. 방글라데시의 비종교적 이데올로기는 비록 짧았다고는 해도 독립후 수십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특히 지식인층에서는 비종교적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슬람교도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방글라데시인 東벵갈지역에서 이슬람교도의 수가 50%를

넘은 것은 17~18세기경으로 여겨지는데, 그래도 1947년의 인도-파키스탄의 분리시점까지는 도시인구중 힌두교도가 50%를 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인도-파키스탄의 분리이후 크게 달라져 이슬람교도는 총인구의 70~80%까지 증가하였고 도시인구중 비율도 50%에서 75%로 급증하였다. 실제로 힌두교도의 수는 비종교선언을 한 방글라데시의 건국 전후로부터 급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슬람교도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1960년대의 약 80%였던 이슬람교도의 비율은 90%를 상회하게 되었다. 결국 지금까지는 방글라데시 국내의 이슬람대 힌두의 대립이 불안요인이었으나, 현재는 급속히 단일종교화로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對방글라데시 개발 및 기술원조 측면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現 況

현재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이 이슬람교의 정통파로 지목되는 Sunni派 이슬람이다. 둘째,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는 크게 두종류로 구분되는데, 지방에서는 Wahabbi派 불리는 개혁복고파로서 Dhaka, Faridpur, Comilla, Noakhali, Chittagong 등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다수파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슬람의 신비주의라 일컫는 Sufi派로서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다수파라 할 수 있다. Wahabbi派는 코란등 聖典에 충실한 보수파로서 聖人崇拜를 금지하고 복장, 관습 등에서도 이슬람적인 것을 더욱 강조하는데 비해 Sufi派는 聖人崇拜를 하며, 비교적 힌두교적 관습도 지니고 있다. 셋째, 현재 방글라데시는 재차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언할 태세이며 중동취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곳에 모스크를 개축, 또는 신축을 위해 헌납을 하고 있다. 또한 중동제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수많은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다. 넷째, 이상의 열거된 사실을 보면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듯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슬람국가 선언

의 이유중에는 농촌의 보수파를 끌어 들여 정권을 안정시키고 중동으로부터의 오일달러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종교모임의 수는 증가하여도 자주 출석하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고 있고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등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중의 이슬람 과격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東파키스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슬람 보수파는 이러한 현상에 일종의 불안감과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더욱 광신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 이슬람교의 특징과 현황을 볼 때, 개발원조의 측면에서는 산아제한, 이슬람法에 저촉되는 사항(상속, 부양 등), 五行六信에 관한 사항의 변경(예를 들면, 공장의 1일 5회 예배금지 등), 여성의 지위역할에 관한 변경 등에 관해서는 중요한 종교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술원조시 원조공여국의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라. 女性의 地位와 役割

이슬람교도 중심의 사회인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의 지위 및 사회적 역할은 매우 특수한 성격을 띤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파루다라는 남녀격리제도가 있어 성숙한 이슬람교도 여성은 지나친 성적 흥분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친자가 아닌 이성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회는 성에 따른 생활영역의 분업이 이루어진다.

여성은 가사, 육아영역 등이 본연의 임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제도는 인간의 성적 욕망은 강하므로 방치해 두면 성의 문란으로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따라 성숙한 남녀는 조속히 결혼하여 욕망의 적법한 발산을 꾀하여야 한다고 하는 早婚現象이 나오게 되었다. 이 경우 남자는 처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혼

이 지연되는데 반해 여성은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서 초경이 있으면 성숙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까지 농촌여성의 초혼연령은 대략 13~14세였으며, 현재는 민법개정등으로 16~18세로 상향되었다. 결혼 그 자체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뜻에 따라 배우자가 선택된다. 방글라데시 여성은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학율이 낮아지고, 따라서 문맹율이 대단히 높다. 또한 남녀격리제도에 따라 초경이후의 여자가 남자학생과 동석을 하는데에는 사회적 저항이 일어난다. 결혼한 여성은 거의 2년 터울로 자녀를 계속 갖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저조하여 자녀를 낳고나서 체력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자녀를 낳음으로써 체력의 저하가 가속화되어 20대에 사망하는 여성도 많다. 현재는 가임여성의 사망율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 여성의 보건상태가 나쁜 이유는 이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식사를 하는 풍습으로 인해 영양분이 있는 것을 남성이 먹게 되어 여성의 영양상태가 악화된다.

이슬람敎法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인격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부모가 없는 처의 경우,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남편 유산의 1/8을 받고, 나머지는 아들과 딸이 2:1의 비율로 분할하게 된다. 이슬람의 입장으로는 여성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금기시되어 있지 않으나, 파루다라는 남녀격리제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있는 곳에 나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직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 전통적 사회안에서 허용되는 직종으로는 예컨대 주식투자와 같이 표면상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든지 가사고용인처럼 많은 남성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 또는 벼의 탈곡과 같이 농사일중 집주변 및 취락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등 매우 한정된 영역뿐이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여성의 노동력 개발문제는 이슬람교리의 근본적 사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칫 이러한 문제를 급속히 추진하다가는 신앙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농촌인의 감정적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틀 안에서 실현가능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養鷄, 養魚 등 현행관습에 어긋나지 않고 집안에서 실행가능한 생산활동이라든지 취락내의 과수작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와 별도로 선별적으로 여성참여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지도자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농촌에서는 농촌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있다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고 별개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편이 원조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층을 무시한 직업교육이나 생산활동에서의 남녀평등 주장 등은 현 단계에서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직업수가 적고 남성들의 실직율도 높은 상황인데 많은 여성기술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남성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차별없이 여성에게 직업교육이 진행된다면 사회의 상류층 및 중간계층으로부터 많은 여성들이 직정에 들어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계층은 맞벌이로 더욱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하류층 남성들은 만약 그와 같은 여성이 없다면 얻을 수 있었을 직업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 즉, 하류층의 경제적 지위는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일반교육 및 취업교육은 하류층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취업교육을 포함한 여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직업훈련원 등을 세워 여성의 입학을 기대하는 수동적 태도로는 성공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요원이 직접 촌락안으로 들어가 여성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여가를 이용,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교육내용은 제1단계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교육과 養鷄 등 실습교육, 그리고 위생, 영양지도 등에 그치고 산아제도, 여성 민법교육 등은 많은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공하고 현지인들과의 신뢰가 쌓인 후 착수해야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것중의 하나는 빈번한 이혼문제이다. 이슬람교도간에는 결혼은 개인간의 사회적 계약이므로 자유의지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도 결코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혼에 의한 손실은 여성쪽이 크다. 또한 여성에게 통상 일어나는 문제는 이슬람교도간에는 결혼시 신랑이 신부에게 Mahr라는 돈을 내게 되는데 그 액수가 커서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 경우 이 미지급금을 아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산의 상속에 앞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관습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남편측으로부터의 이혼요구가 용이해져 결과적으로 이혼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이혼이나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직업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 원조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部門別 現況分析

1. 農 業

가. 概 要

방글라데시의 농업은 자국경제의 산업, 무역, 고용구조 등 어느 분야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교역면에서도 농산물 및 농업관련 제품이 수출을 통한 방글라데시 외화수입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외화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 총고용의 75% 가량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기회 제공의 관점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농업부문은 경제개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경작지 면적당 농업인구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현재 경작지에 대한 인구밀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토의 90% 이상이 이미 경지화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농업의 기술수준은 낮고 강우에 의해 빈발하는 홍수나 대하천 하류의 범람 등 자연적인 제약요인에 따라 농업생산은 불안정하며, 이러한 결과는 방글라데시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업부문에의 현대적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을 통해 생산기술 향상을 촉진시키고 있으나 농업생산 현대화 과정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관개시설을 갖춘 재배지는 전체 경작지의 1/4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의 약화와 기술의 낙후성에 의해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도 그 경제적 기능면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 전국토의 약 60%인 2,190만에이커가 경작지로서 Ganges江과 Brahmaputra江 등의

델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기후는 3모작까지 가능한 열대 몬순기후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주기적으로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농업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表 II-1〉 地域別 耕作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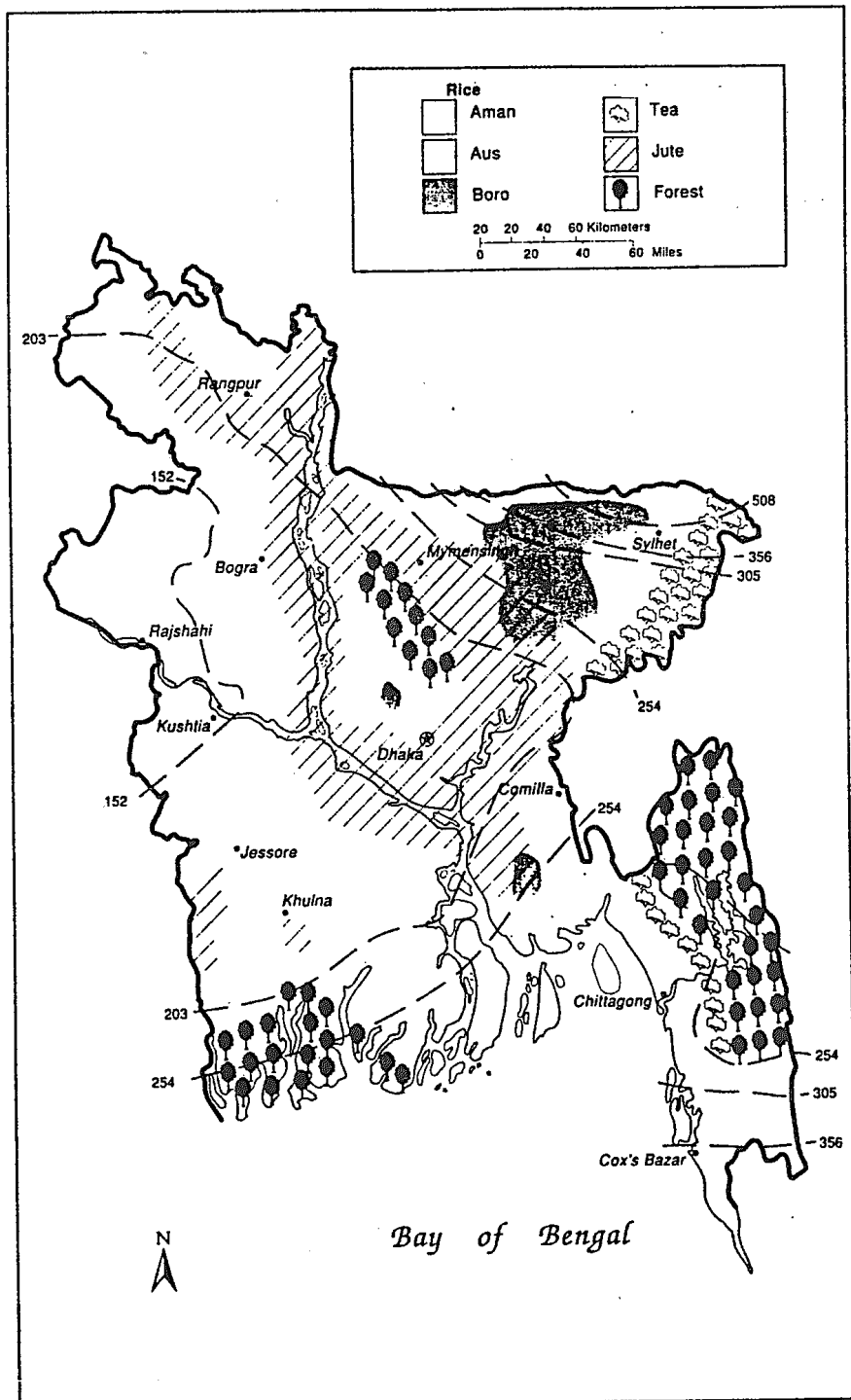
(단위 : 천에이커, %)

	총면적	1모작	2모작	3모작	총경작면적		경작연면적	
						%		%
Chittagong 지역	11804	2593	2013	409	5015	22.9	7846	22.5
Dhaka 지역	7650	1917	2942	682	5541	25.3	9847	28.5
Khulna 지역	8582	3040	1636	277	4953	22.6	7143	20.5
Rajshahi 지역	8535	3231	2590	540	6369	29.1	10147	29.1
합 계	36562	10781	9189	1908	21878	100.0	34883	100.0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최대 정책목표를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생산의 증대에 두고 있으나, 쌀, 밀 등 식량생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량자급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곡물량은 연간 150~250만톤으로 추계되며, 이것은 인구 1인당 15~25kg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수준에 달한다.

한편 인구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일일 약 1,900kcal에 지나지 않아 저개발국중에서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인구의 약 1/3 가량이 영양불량 상태에 있고 칼로리의 약 85%는 곡물에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의 부족 등 심각한 영양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림 II-1] 耕作地 利用現況



주) 수치는 연평균 강우량(cm)

나. 農業 生産構造

(1) 生産動向

방글라데시의 국내 농업생산력 규모는 곡물로 약 1,700만톤 정도인데, 이 중 대부분이 쌀생산으로서 1,550만톤 정도이며, 소맥의 생산규모는 120만톤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은 주로 농가의 자가소비로 충당되며 이를 제외한 시장유통량은 700만톤 정도인데, 그중 대부분은 쌀로서 600만톤을 차지하고 소맥은 70만톤에 불과하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국내곡물 총수요는 1,860만톤 정도로서 국내 생산고로는 매년 200여만톤이 부족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World Food Programme, 기타 식량원조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식량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表 II-2〉 쌀·小麥 輸入推移

(단위 : 천톤)

연 도	쌀 수입량	소맥 수입량
1980	548	1,954
1981	84	994
1982	264	1,582
1983	316	1,527
1984	165	1,970
1985	689	1,905
1986	53	1,163
1987	274	1,506
1988	674	2,331
1989	62	2,147
1990	324	1,328

자료 : FAO, Trade Yearbook, 각년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글라데시의 농업부문의 성장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의 평균성장율 3.5%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

한 것으로서 自國의 인구성장을 겨우 상회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의 국내경제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율의 저하는 농업부문 및 비농업부문의 유효수요 감소 등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중에서도 작물분야의 성장율은 1970년대의 4.0%에서 1980년대에는 2.4%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同部門의 성장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농업부문의 노동흡수력은 1961년부터 1974년에 걸쳐 연평균 1.3%로 확대되었으나, 1974년 이후 10년간은 오히려 마이너스 0.2%를 기록, 농업부문의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난 1970년대를 통해 이미 경작지에 대한 인구밀도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 관개기술의 도입과 다수확품종의 도입에 기본을 둔 농업발전정책으로 농업부문의 취업인구가 확대되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쌀

쌀은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식량곡물로서 재배면적이 전체 농업경작지의 75%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2모작 및 3모작의 보급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 쌀의 재배면적은 방글라데시의 경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쌀생산은 세계 제4위의 위치에 있으나, 생산성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제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실정이며, 식량자급 달성을 목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증가세가 매우 완만하여 인구성장에 따른 수요를 가깝스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다수확품종의 도입이나 비료의 사용, 관개시설 등은 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원료나 시설비용이 생산비 증대로 이어져 결국 부농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쌀경작은 농업용수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다. 즉 방글라데시의 국토는 대부분 沖積土 델타지대로서 크고 작은 수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전기와 우기에 따라 수위차가 커 국토의 해발고도의 차이

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벼재배가 이루어진다. 하천수위의 최저시기는 2월이고 최고시기는 6월이지만, Aus種과 Aman種(直播 Aman種)은 3월이나 4월에 播種法에 의해 심은후 여름 몬순기간 동안 성장하여 11월 중순경부터 수위가 저하되면서 Aus種의 수확이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Aman種(移植 Aman種)을 위해 쟁기질과 정지작업이 진행된다. 관개시설이 발달함에 벼재배가 10월부터 3월까지의 건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直播 Aman種과 移植 Aman種은 11월 하순부터 1월 중순에 걸쳐서 수확된다. 가장 낮은 경작지에서 재배되는 Boro種은 12월이나 1월경에 田植法에 의해 심어지며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수확된다. Boro種이 재배되는 저지대 경작지는 하천의 상류로부터 유기질이 운반되어 가장 비옥하며, 따라서 토지생산성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세가지 품종의 벼재배는 무비료, 무농약 재배로서 자연의 혜택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수로나 양수펌프, 지하수 이용 등의 관개시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차츰 용수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IR系의 다수확품종이 도입되고 있다. 전통적인 Boro種의 경우 건기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관개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冠水期間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중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화학비료, 농약 등의 근대적 농업투입재를 사용, 다수확품종에 따른 보다 안정된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다수확품종은 쌀 재배면적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1980년대를 통해 Boro種은 급속히 확산되어 방글라데시의 쌀 생산력을 현저히 높이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쌀생산의 품종별 추이를 보면 1990~91년 동안 Aman種이 917만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으나, 1에이커당 생산량은 Boro種이 766kg으로서 가장 높은 다수확품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II-3〉 主要 品種別 生産推移

연 도	품 종	재배면적 (10만에이커)	생산량 (10만톤)	1에이커당 생산 (kg)
1988/89	Aus	66.3	28.6	431
	Aman	126.1	68.6	544
	Boro	60.3	58.3	967
	Wheat	13.8	10.2	739
	합 계	266.5	165.7	622
1989/90	Aus	55.7	24.8	445
	Aman	140.9	92.0	653
	Boro	60.6	60.3	995
	Wheat	14.6	8.9	610
	합 계	271.8	186.0	684
1989/91	Aus	52.1	23.2	445
	Aman	142.7	91.7	643
	Boro	70.0	53.6	766
	Wheat	14.8	10.0	676
	합 계	279.6	178.5	638

2) 밀

밀은 방글라데시의 전통적인 곡물이 아니며, 1980년대 후반까지도 농촌지역에서는 쌀에 비해 거의 소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밀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초 선진제국의 해외식량원조로 대부분 공급되면서 소비가 증가된 유일한 작물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밀생산은 연간 100만톤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총곡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였다. 밀의 약 절반 가량은 관개가 이루어진 경작지에서 재배되며, 밀재배는 총국내경작지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밀은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수입곡물로서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200

만톤에 가까운 규모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국, EC, World Food Programme 등 원조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었다. 1990~91년의 밀생산량은 100만톤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생산동향을 보이고 있다.

3) 黃麻(Jute)

황마는 방글라데시 농업의 가장 중요한 환금성 작물로서 굵은 삼베, 마대, 매트, 로프 생산 등 섬유산업에 원료로 제공되고, 국제시장에 천연원료나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등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다. 황마는 벼재배가 가능한 경작지에서 재배되므로 농민들은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벼와 황마중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세계적인 황마생산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세계 황마섬유 수출의 80%, 황마제품 수출의 45~50%를 점유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 기간 동안 東벵갈지역을 제품생산을 위한 1차상품 산지로 활용하였으며, 황마는 주요 천연원료로서 제품가공의 중심지인 캘커타로 보내어져 그곳에서 실, 로프, 마대, 카펫용 바닥재 등으로 가공, 생산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석유화학에 기초를 둔 화학섬유가 섬유시장에 들어오면서 황마섬유와 경쟁하게 되었고, 방글라데시 독립을 위한 정치적 갈등까지 겹쳐 많은 전통적인 황마 구매자들이 화학섬유로 옮겨가, 황마 및 황마제품의 국제교역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가격도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황마생산은 매년 생산량과 가격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황마생산이 급감하는 해는 황마의 수출가격이 거의 두 배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민의 황마재배가 급증, 이듬해에는 수출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황마재배업자와 제품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고, 방글라데시 黃麻公社(Bangladesh Jute Corporation)등을 통해 수확량을 사들이는 등 필요시 시장개입

을 통한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마는 쌀보다 훨씬 노동집약적인 작물이며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일반적으로 쌀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황마생산이 쌀 생산보다 유리한 경우, 쌀경작을 포기하고 황마를 재배하기도 한다. 1980년대를 통해 인공관개시설이 늘어남에 쌀경작을 고수하려는 경제적 요인은 증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일한 생산기간 동안 관개시설이 안된 경작지에서 재배되는 저수확품종인 Aus種을 황마재배로 대체하여 황마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황마생산이 노동집약적이라는 사실은 농촌의 불완전 고용이 많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는 농촌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비록 황마의 국제가격이나 수요전망이 불투명하더라도 여타 황마생산국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황마생산의 최적조건들을 갖춘 방글라데시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천연황마의 생산은 530만 bale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황마가 국제적 상품으로 확고히 성장할 수 있는 요체는 적정가격유지와 공급안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마생산국들은 Dhaka에 본부를 둔 國際黃麻機構(International Jute Organization)을 통해 정보교환, 생산 및 마케팅 조정 등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은 대체로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태국 등 황마생산국들과 미국을 비롯한 20여개 황마소비국들로 이루어져 있다.

4) 기타 작물

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작물은 쌀, 밀 등의 곡물과 황마와 같은 산업용 작물 이외에 사탕수수, 차, 담배, 면화, 유자종자, 콩, 감자 등이 있다. 이중 황마 이외의 환금성 작물로는 5대 수출품중의 하나인 차가 있으며, 면화는 현재 그 생산량이 얼마되지 않지만 섬유 및 의류산업에 소요되는 수입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점차 생산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의 농작물은 주로 국내자급을 위해 생산된다. 사탕수수는 연간 700만톤 이상이 생산되며, 대부분 gur라고 하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설탕으로 가공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된다.

(2) 農業 下部部門

1) 漁業部門

어업부문은 GDP의 3.5%에 불과하지만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고용 및 단백질 공급의 원천으로서 방글라데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약 120만명의 인구가 어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70만명 정도가 내륙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총인구의 약 10%가 어업자원의 수출, 가공, 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인의 국내 동물단백질 공급의 약 80%는 어류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00만ha의 내륙수로와 300만ha의 범람원을 갖고 있어 내륙어업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400만ha에 달하는 벵갈灣 연안도 어업활동을 위한 터전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91년도 어획고는 89만톤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내륙어획이 65만톤으로 약 73%를 차지, 연안어업활동이 그 잠재력에 비해 매우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류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새우와 식용개구리이다.

〈表 II-4〉 漁獲高 現況

(단위 : 천톤)

연 도	내륙어획	연안어획	합 계
1987	597	218	815
1988	599	228	827
1989	608	233	841
1990	613	235	848
1991	654	239	893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4차 5개년 개발계획(1990~1995)의 어업부문의 목표를 ①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획고의 증대, ②어업종사자의 사회·경제적 향상과 고용증대, ③새우를 포함한 어류생산을 통한 외화획득 증대, ④양어정책의 강화, ⑤어종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에 두고 어획고 목표를 120만톤(내륙어획 : 93만8,000톤, 연안어획 : 26만2,000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새우 45,000톤, 냉동 및 건조어류 17,000톤, 식용개구리 2,000톤의 수출 목표를 세웠다.

1980년대를 통해 세계은행과 ADB 등은 새우양식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현대적 부화기술 축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적 기술을 도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증대하였다. 한편 어업부문의 개발을 위해 어로행위법, 내수면 개발법 등 양어 및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어로작업을 위한 내수면을 직접 분배함으로써 실질적인 어업종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새로운 어로관리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어업부문의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어업연구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된 기술의 현장 프로그램이 이미 Cox's Bazar, Chandpur, Mymensingh, Paikgacha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表 II-5〉 地域別 새우養殖場 現況

	면적(헥타)	생산(톤)
Khulna	68,363	13,493
Jessore	690	118
Patuakhali	64	11
Chittagong	24,755	4,244
Noakhali/Barisal	138	23
합 계	94,010	17,889

2) 林業部門

임업부문은 GDP의 3%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약 30만명이 고용되어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국토의 12.4%인 18,410km²가 삼림지대인데, 이중 69% 정도가 留保森林(reserved forest)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통제되고 있으나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델타평원의 경작이 심화됨에 따라 삼림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림지대는 남동부의 Chittagong구릉지대와 벵갈灣 연안의 Sundarban 지대를 들 수 있다. Chittagong 지대는 4,600km²의 면적이 상록수와 낙엽송의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과 보트 제작 등에 사용되는 티크재가 생산된다. Sundarban 지대는 벵갈灣을 따라 약 6,000km²의 면적이 열대의 해변에 형성되는 紅樹林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국내의 제지산업용 펄프, 전신주, 주거용 지붕재료 등 다목적용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전히 목재가 취사연료나 땃감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Dhaka, Mymensingh, Tangail 및 북부지역의 땃감연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림지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1989년 및 1990년 각각 1,360에이커, 5,000에이커에 이어 1991년에는 8,000에이커의 땃감연료용 조림지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도로나 철도주변, 하천둑 등지에 대한 조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 959마일에 이어 1991년에는 1,900마일에 달하는 조림실적을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삼림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Chittagong, Sylhet, Rajshahi 소재의 임업학교에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3) 畜産部門

축산부문은 방글라데시 농업의 하부구조로서 가장 낙후된 부문의 하나이지만 방글라데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GDP의 6.5%를 차지하며, 농업자원의 약 10%는 同部門에서 생산된다. 전인구

의 약 2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축산부문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고 외화 획득의 13%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의 하나인 가죽은 피혁산업에 대한 원료공급과 수출에 매우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되어지는 가축의 배설물은 화학비료 사용의 약 10%에 해당되며,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양은 재래식 연료에 의해 공급되는 총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한다. 한편 전국 경작지의 약 98%에 해당되는 면적은 축산부문을 통해 사육된 소나 말 등의 견인용 동물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축산자원의 개발을 위해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중에 세운 주요 목표로는 ①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물 생산·공급의 증대, ②빈곤구제를 위한 同部門의 고용기회 확대, ③작물 생산활동을 지원키 위한 가축노동력의 공급증대 등을 들 수 있다.

(3) 灌溉現況

방글라데시의 농업부문 개발에 있어서 灌溉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방글라데시의 근대적 관개기술과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 農業開發公社가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주로 low-lift pump와 tube well(管井)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用水路에 의한 관개지대는 소수에 불과하다. low-lift pump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건기에도 매우 풍부한 地上水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남부 Dhaka 늪지대의 못과 하천, 그리고 염분이 없는 델타지대의 하천 등이 그와 같은 주요 水源이 되고 있다. 물론 이와 비슷한 水源은 거의 방글라데시 국내 전역에 걸쳐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tube well 관개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하수층이 필요한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보통 砂質의 沖積層이 이에 해당되며, 미립의 粘土質로 된 沖積層에서는 tube well 관개가 적합하지 않다.

tube well 관개가 방글라데시 농업에서 처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北甕갈평원에서의 일이다. 이 관개계획은 지하수를 빨아 올려 건기에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물의 계절적 재배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통상 管井은 1km 간격으로 건설되며, 電動펌프로 퍼올리는 규모가 작은 얕은 管井도 사용된다. 이러한 管井은 low-lift pump에 비해 급수단위면적당 투자액이 8배나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건기의 말기에도 확실히 급수가 되는 우수성을 갖고 있다. 한편 low-lift pump는 건기를 통해 풍부한 지하수층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확실한 관개급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조속히 식량을 증산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 하에서는 매력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表 II-6〉 種類別 灌溉面積

(단위 : 천에이커)

	1988	1989	1990	1991
Power Pump	1,303	1,625	1,624	1,667
Tube Well	3,625	3,734	4,141	4,404
Canal	285	419	436	427
Doon/Swing Basket 기타	589	985	1,055	980
합 계	5,802	6,763	7,256	7,778

(4) 農村社會의 經濟構造

방글라데시 농업의 특징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우 적은 토지와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밀한 노동력의 존재하고 할 수 있다. 즉 경지면적당 농업인구의 과밀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 델타지대의 경작지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인구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인구 비율의 감소는 이슬람 관습법에 의한 토지의 균등상속을 통해 농가 1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의 축소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농촌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농가 1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의 영세성이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토지보유의 불평등성이다. 방글라데시의 토지보유 형태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농가수가 전체 농가의 32.8%를 차지하며,

그 밖에 농지소유가 겨우 0.2ha에 불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계층까지 간주하면 그 비율은 48.1%에 이른다. 즉 농가 2가구당 1가구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농가비중은 증대하고 있으며, 결국 그 영세한 토지마저 잃고 토지 무소유 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지주·소작관계의 변화를 조사해 보면, 소작농가수가 전체 농가에서 점하는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의 그 어느 분류에서도 1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작농의 경지면적 감소율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작농의 영세화 및 소작농가수의 증대는 그들의 지주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작 계약기간의 단축화와 농업투입재에 대한 소작농 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다. 食糧増大 政策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중 농작물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관개시설을 개선하며,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①다수확품종 도입 및 작물재배 다양화 프로그램을 통한 11%의 곡물생산 증대, ②낙후된 분야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 실시, ③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규모 관개시설의 개발, ④종합적인 농작물 전염병관리 프로그램 실시, ⑤농업부문에 대한 조사연구기능 강화, ⑥농업관련 산업 및 수출부문의 개선, ⑦농업부문의 훈련 프로그램 실시, ⑧농업위원회의 설치 등 농업부문의 근대화를 통해 식량자급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량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저장·관리체계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절한 식량관리 체계를 위한 정책목표로는 ①식량곡물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증대를 통한 식량자급도 달성, ②적정한 정부 구매가를 통한 농민들의 식량증대 장려, ③국내 생산식량과 수입곡물의 적절한 공급 및 배분, ④다양한 생산장려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공급 확보, ⑤농민의 생산가와 일반인의 구매력에 상응하는 곡물의 시장가격 유지, ⑥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적정한 식량의 확보, ⑦비상시를 대비한 식량비축과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곡물저장 시설의 확보, ⑧효율적인 식량관리체계를 통한 곡물 보조금제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 食糧省(Ministry of Food)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급정책이나 구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식량을 분배하며, 농촌지역에 식량비축소를 개설하고, 국내곡물의 시장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식량공급, 비축 등 정부의 식량정책에 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식량의 자유로운 수급원칙에 따른 판매 등 곡물의 자유로운 국내이동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곡물의 구매가격과 배급제도를 통한 분배가격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량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계층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의 부담을 안으면서 배급제도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

2. 農村開發

가. 農村現況

(1) 概 要

방글라데시는 총인구중 약 8,500만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업국임과 동시에 농촌국가이기도 하다. 농촌 거주인구의 약 85%는 농업경영 및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농업취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양상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방글라데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개발은 주로 농촌부문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현실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대처할 만한 다양한 고용源의 부족, 경작지의 과밀화 및 영세화, 농촌 가내수공업의 점차적인 감소, 수송·통신체계의 낙후, 저렴한 농산물 가격과 유통시설의 부족, 반복되는 홍수 등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농촌사회의 노동인구분포(10세이상 고용인구비율)를 보면, 약 66%가 농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으로 상업, 식당 등 서비스업, 제조업(기계직조, 제련, 식용유제조 등), 유통·교통업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가내공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으로 농촌사회의 고용흡수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농가 1가구당 평균소유 경작지 면적은 0.9ha이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약 1/4 가량의 농가는 소유경작지 면적이 1가구당 0.2ha 미만으로서 영세한 농가가 점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소유경작지 면적의 영세화를 가져오는 이슬람의 균등상속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보다는 경작지의 자산가치 측면을 중요시하여 다음 세대에게 토지가 균등세분화됨으로써 이미 가족을 부양하는 생산기반이 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소유경작지 면적이 1ha 미만의 농가는 스스로의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농업경영규모가 영세적인 농가의 대부분과 농촌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포함, 농촌인구의 70~80%가 貧困라인(poverty line)¹⁾이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 poverty line : WHO/FAO의 정의에 의하면 貧困라인은 일일 2,122cal와 48g의 단백질 보급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준의 85%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절대적 빈곤층이라 한다.

방글라데시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작지와 고용기회의 부족이며, 이로 인한 농촌의 빈곤화가 일반적 추세이지만 경작지의 세분화 비율과 빈곤층의 규모는 각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국토를 종단하는 Brahmaputra江을 경계로 동부와 서부는 토지의 集積度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북서부는 인구 밀도가 낮고 지주층과 토지없는 층의 階層分化가 잘 진행되어 있으며, 自然水利가 잘 되어 있지 않아 한발의 피해를 입기 쉽다.

한편 남서부는 홍수의 피해를 입기 쉽고 북서부에 비해 토지의 集積度가 낮으며 빈곤층도 많다. 동부의 Dhaka로부터 Chittagong에 이르는 幹線道路 주변지역은 토지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도시화의 비율이 높다. 이 지역에서는 가족 가운데 일부가 지방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임금수입으로 불안정한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에 복합적으로 거주하는 가족 주거형태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2) 耕作地 投機와 patron-client 關係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화되어 가는 방글라데시의 농촌에서는 대다수의 농가가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규모의 경작지를 소유하지 못한채 한정된 농업노동과 소작 등의 기회를 통해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경작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반으로서의 의미보다도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농가에서는 새로운 경작지의 매입이 생산확대 이상의 매력적인 것으로서 확실히 손쉬운 투자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물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가일수록 생산확대를 위한 의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가일수록 신기술의 도입과 자본재의 투입에 의한 생산확대의 시도가 자칫 더욱 영세한 농가로 전락하는 리스

크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빈번한 홍수와 사이클론이 내습하는 방글라데시의 자연적 악조건하에서는 농업생산이 항상 투입된 농업투자를 회수하고, 더욱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의 기술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혁신의 명목하에 의도된 여러가지 기술이 농민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자연적 악조건하에서의 농업생산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귀결된다.

경작지의 소유는 비록 그것이 충분한 경제적 생활에 직결되지 않는 정도의 규모라 할지라도 생활보장의 원천이 된다. 농촌에 있어서 경작지와 고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하에서는 남아도는 노동력의 유리한 고용을 가능케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토지매입시장의 고용과 소작관계에 있어서 지주로서의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사회에서 patron으로서의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인데, 예컨대 이슬람 사원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는 물론, 은행융자 확보 및 중개의 권리, 나아가 村議會의 운영을 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현저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patron-client 관계는 농촌의 사회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것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자원의 궁핍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불평등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사회패턴이라 할 수 있다.

(3) 農村行政

Union이라 불리우는 行政村은 10~20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지며 인구는 평균 2만명 정도이다. 村議會 의장(行政村長, Union Chairman)과 9명의 의원(Union Member)은 Union을 세구역으로 나눈 선거구(Ward)를 단위로, 성인남녀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村議會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적인 최소단위이며, 그 역사적 유래는 비교적 오래되어 19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재는 각 부락이 각각의 대표를 의회

에 보내고 있지는 않으며, 의회 의장은 대다수 부락주민들에게 알리는 저 있지만,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지방의 명사내지 지도자격인 인물에 불과하다. 村議會는 부락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초월한 상위기구로서 존재하게 되어 자치조직으로서의 지나치게 비대해 지고 말았다. 예를 들면, Rural Works Programme(RWP) 및 Food for Works Programme(FFW), 또는 학교나 집회소 등의 건물수리, 진료소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농촌개발에 관련된 정부 사업이 거의 村議會를 통해 실시되는 것이지만, 부락주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얼굴도 모르는 의원들의 업무로 국한시켜 버린다. 村議會의 상위 지방행정기관은 Thana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방말단기관이었다. 농촌 부락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인 종합병원, 가축병원 및 獸醫, 경찰서, 토지등기소, 농업보급소 등 농업관련 관청, 전문교육기관 등은 모두 Thana 단계에서 갖추어 졌다.

郡議會는 지방분권화 및 자치화 정책에 맞추어 1983년 발족되었으며 행정구역으로서 Thana를 계승하였다. 郡議會 의장(Upazila Chairman)은 보통 선거에 의해 선임되고 의원은 관내의 村議會 의장 전원이 임명된다. 郡議會 의장은 이전의 Thana의 長을 통해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며, 이 밖에 농촌개발과 관련된 제반사업을 입안하고 각 지방을 통해 중앙에 제안하는 새로운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에 따라 민주주의가 지방에도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전의 관료적인 상의하달식 행정형태가 더욱 교묘하게 정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村議會가 농촌단위의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위해서는 주민의 폭넓은 참여에 의한 자치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 郡과 村落을 연결하는 2단계의 農業協同組合體制(KSS-UCCA)는 농촌개발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지닌 것이긴 하지만, 종래의 상의하달식 농촌 행정에 일대 개혁을 이루려는 획기적인 시험인 것이다.

(4) 農村教育

1981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15세 이상 성인의 전국평균 문자해득율은 29.2%이며, 이중 농촌지역은 25.4%에 머물렀으나 사실상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인 센서스이후 10년이 지난 1991년 현재 성인의 문자해득율은 36%로 증가하였으나, 농촌사회는 여전히 도시사회에 비해 저조한 취학율과 높은 문맹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농촌을 구성하는 세대의 대다수는 빈곤가정으로서 취학연령에 도달한 자녀들을 가족노동에서 벗어나 취학시킬 여유가 없으며, 둘째, 부모가 모두 문맹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빈곤층일수록 생활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태도가 몸에 익어 생활의 체념이 교육에 대한 의식을 낮게 하며, 세째, 농촌사회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취학에 따른 혜택을 이해시키는 사회적 동기유발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국을 통해 약 44,000개의 국민학교와 약 9,000개의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주변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은 빈약하고 낙후되어 있다. 많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지역의 유지들에 의한 한정된 기부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운영상의 과제로서 ①교사의 질적향상, ②교육행정의 합리화 및 적정화, ③시설·설비의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 농촌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교육이 아니라, 읽기, 쓰기, 산수 등 생활에 보다 밀착된 기초능력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방글라데시 농촌교육은 농촌실정에 따른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5) 農村金融

1985년 최초로 농촌금융이 소개된 이래 방글라데시의 농촌에서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IRDP 농촌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된 KSS-UCCA의 협동조합을 기초로 한 제도금융과 BKB(Bangladesh Krishi Bank)외에 일반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다. 방글라데시의 농촌금융은 크게 2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농촌금융이 소위 patron-client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농촌의 지주와 유력인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가난한 농민, 소작농, 토지없는 계층 등 농촌사회의 대다수는 구조적으로 금융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융변제비율이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난한 농민층이 대다수인 방글라데시 농촌사회에서는 생활자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은행, 조합 등 제도금융은 전체의 10~15%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의 85~90%의 농민들은 고리대금업자, 친구, 친척 등 소위 전통적 금융창구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통적 금융의 이자율은 연 100~400%에 이르고 있다. 제도금융의 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기존의 제도금융이 patron-client 관계의 도구로 변하게 됨으로써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력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금의 대부분은 유력인사 자신과 친척에 의해 이용되는 반면, 농촌의 빈곤층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유력인사의 연락을 통한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수수료 등을 징수하기 때문에 신청한 액수 그대로의 저리용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에 따른 리스크와 저당잡힌 자산의 몰수 등을 두려워해 빈곤층은 제도금융의 이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금융의 또 다른 큰 문제점으로는 대부금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상 용자에 대한 징수를 정치적으로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유력인사 계층의 대량의 용자금에 대한 미상환이다. 이와 같은 미변제는 제도금융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제도금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합활동의 발전과 함

게 농촌개발의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농촌의 빈곤층을 위한 제도금융으로는

지난 1983년부터 제도화된 Grameen Bank가 유일한 것으로서 농촌 빈곤층의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農村開發

(1) 農村開發의 歷史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의 역사는 3가지 요소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①농촌의 행정조직 정비, ②농촌의 제도금융 설치 및 농민조합의 발전, ③원조활동을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행정조직 역사는 1885년에 제정된 벵갈 地方自治法(Bengal Local Self-Government Act)으로 소급되는데, 이는 영국 식민지 정부가 농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1960년대 파키스탄 정부의 아유브 칸 政權은 전국에 걸쳐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1970년대는 村議會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1980년 Ziaur Rahman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部落自治會議(Swanirvar Gram Sarkar)를 行政村(Union)하의 각 部落(Gram)에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는 이후 同政權이 전복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그후 1983~85년에 걸쳐 郡議會의 설치를 주축으로 한 행정개혁이 실시되어 그 당시까지 농촌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던 村議會의 기능이 郡議會로 많이 흡수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의 행정기능의 중심이 郡議會로 옮겨갔다. 이전의 선거를 통한 의회구성은 국회와 村議會 뿐이며, 그 밖의 행정단위인 Division, District(Zilla); Sub-Division, Thana(Upazila)는 중앙의 직할형태로서 매우 중앙집권적인 체제였다.

농촌개발의 역사에 있어서 제도금융의 도입과 농민조합은 때때로 상호연계하면서 발전해 왔다. 1885년에는 영국 식민지정부에 의해 Taccavi 金融

이라 알려진 최초의 제도금융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同年 제정된 농업금융법에 따른 것이었다. 1904년에는 최초로 部落(Gram) 단위의 금융조합이 종래의 비제도금융(지주, 유력인사에 의한 고리대업, 친구 및 친척을 통한 대차 등)을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1947년까지 26,600여개의 이러한 금융조합이 조직되었고, 1950년대 후반까지 농촌사회에서의 유일한 제도금융이었다. 그 이후 농촌에서의 제도금융은 EPPB(East Pakistan Provincial Bank), ADFC(Agricultur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ADB(Agricultural Development Bank)등에 의해 확대되어 갔다. 이와 동시에 村(Union) 단위의 협동조합으로서 UCMPS(Union Cooperative Multi-Purpose Societies)와 농어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KSS(Krishi Samabaya Samity)가 조직되었다. 1960년대 및 1970년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협동조합제도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는데, 그 주된 것으로는 1972년 농촌개발의 기본전략으로서 전국에 확대된 IRDP(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를 들 수 있다.

1) IRDP

종래의 조합의 기능은 농촌사회의 제도금융의 운영에 있었지만, IRDP에서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주요 요소로 하여 각각의 목적이 설정되었다.

① KSS-UCCA 體制

部落단위의 농민조합인 KSS(Krishi Samabaya Samity)와 郡단위의 協同組合協會(UCCA : Upazila Central Cooperative Association)를 결합시켜 단일조직체제로 함.

② TTDC 研修所

郡研修開發센터(TTDC : Thana Training & Development Center)의 여러 정부기관 담당자가 각 KSS 대표자에 대해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함.

③ TIP 灌溉計劃

엔진을 사용한 揚水施設, 샘을 활용한 郡灌溉計劃(TIP : Thana Irrigation Programme)을 추진함.

④ RWP의 實施

농한기의 실업대책으로서 농촌의 인프라스트럭처(주로 도로, 교량)건설 및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RWP(Rural Works Programme)를 실시함.

1981~82년, 세계은행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IRDP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 이 프로그램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KSS-UCCA 體制에 관해서는 독립직후 너무 급격한 조직확대를 꾀함으로써 내용의 충실과 발전이 수반되지 못했고 규율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주관리, 자체재원 등을 기본으로 해야 할 組合活動이 그 이념과 거리가 먼 실태에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KSS-UCCA 體制가 IRDP를 구성하는 다른 3개 요소와 함께 조합활동을 실시하는 역량을 지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TTDC, TIP, RWP 등의 제반활동은 관계 정부기관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를 포함한 IRDP 農村綜合開發戰略은 신설된 방글라데시 農村開發廳(BRDB : Bangladesh Rural Development Board)에 통합, 강화되었다.

2) RD-1과 IRDP

독립이후 경제적 부흥의 기간도 없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대홍수는 바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세계은행을 주축으로 원조국 및 원조기관의 참여하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이 실시되게 되었는데, RD-1(Rural Development-1)은 그중의 하나이다. RD-1은 당시 이미 실시되고 있던 IRDP 체제를 본떠 기획되었는데, 農民組合(KSS)의 조직화, 관계 계획의 실시, 농촌 제도금융의 도입, 연수·훈련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수입의 증대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종합적인 농촌개발계획의 실시에 필

요한 운영·조정능력의 결여와 상의하달식 관료적 운영으로 예상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 밖에 RD-1과 유사한 개발계획으로는 Sirajgonj IRDP, Noahali IRDP 등이 실시되어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발을 위한 자금 및 자재조달의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3) Swanirvar Movement

방글라데시 농촌에서는 1975년 이래 Swanirvar Movement(自立運動)라는 이름하에 전국의 村단위로 Swanirvar 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이 운동은 사상적 운동으로 제창되어 농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부터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주요골자는 지역의 제반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동시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각 부락에 조직된 위원회는 표면상 이 운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실시주체였으나 실제로는 郡단위 이상의 경우는 여러 정부기관, 관료 등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郡단위 이하의 경우에도 종래의 농촌엘리트에 의해 이끌려 갔다. 그들의 주장의 일부는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수준의 발전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민족자립이라는 정치적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自立運動은 新生 방글라데시의 국가체제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軍 내부에서도 중국혁명의 영향을 받은 지하군사조직인 人民軍이 활동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독립 초창기에 기도된, 정치적 의미가 강한 대중운동의 특색을 띠었다. 결과적으로, 농촌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였고, 다만 부분적으로 다수확품종의 도입에 의해 乾期の 농한기 고용의 확대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다.

(2) Grameen Bank의 設立

Grameen Bank는 농촌의 제도금융의 정착을 위하여 1976년 Chittagong 大學 부근의 몇몇 마을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금융의 도입은 필요한 자금이 제공될 경우, 빈곤층에 속하는 부락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없이도 생산적인 고용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

다는 가정하게 시도되었다. 이 계획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독특한 농업 및 농업개발 이념을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치적 지원과 IFAD의 재정적 지원하에 1983년에는 金融組織으로 설립되게 되었다.

Grameen Bank의 융자대상기준은 0.5에이커 미만의 경작지 소유계층이나 1에이커 미만의 경작지 상당의 자산밖에 소유하지 못한 빈곤계층이다. Grameen Bank의 융자는 별도로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로 곡물생산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대출되는데, 예를 들면 가축사육 및 양계, 식품가공업 및 제조업, 상품판매 및 잡화점 경영 등이며, 그 밖에 곡물거래나 가축거래 등도 융자대상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농촌사회에서 가장 사회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들 여성에 대한 융자가 전체 건수 및 융자액 규모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제도금융을 통한 융자를 얻음으로써 불가피하게 유력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담보를 제출해야 되는 등 이제까지 부락의 빈곤계층이 쉽게 제도금융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Grameen Bank는 사실상 종래의 제도금융의 대부분이 농촌의 빈곤계층에 대한 융자의 길을 닫아 버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융자가 용이하도록 한 최초의 케이스가 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 빈곤층, 특히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보에 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3) NGO 活動

방글라데시의 NGO 활동의 역사는 독립직후인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수는 국내외를 포함, 약 1,000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유럽의 NGO(영국의 OXFAM, 아일랜드의 CONCERN, 프랑스·벨기에系의 BAM 등)가 일찌기 활동을 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이후, 1975~76년에 걸쳐 각국의 NGO간에는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難民救援이나, 農村開發이나 하는 논란

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난민문제가 일단락되고 NGO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단원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난민의 발생근원지인 지방 농촌사회의 빈곤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NGO 활동은 점차 농촌사회로 확대되어 갔다. 현재는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활동지역은 거의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NGO 수는 약 250여개로서 이중 약 절반은 외국국적의 NGO이다. 이 숫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직접 도입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NGO만을 지칭한 것이며, 社會福祉省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개발·복지단체는 약 6,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救援에서 開發로 중점적인 활동방향이 바뀌어 감에 따라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NGO로 이행되고 있다.

NGO 활동은 보건의료, 교육, 농업, 어업, 재해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그 특징은 對象受益者の 意識化(Awareness Building)와 受益者에 의한 組織形成(Institution Building)에 활동의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신설된 組織力량의 向上(Capacitation)과 지역사회에서의 交渉力 擴大(Empowerment)가 NGO 활동의 주요 골자이다. 예를 들면, PROSHIKA는 농촌 빈곤층의 그룹활동의 組織化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전국에 조직된 8,000여그룹에 대하여 정보와 자금의 제공, 연수훈련의 기회제공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GO 활동은 대상자를 선택해서 지역사정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을 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대상자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국제기관 등과의 공동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1985년의 사이클론에 의한 자연재해와 1988년의 대홍수의 경우에 크게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NGO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새로

운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NGO의 자금원은 ①프로젝트 실시지역으로부터의 지원, ②해외 NGO, 민간후원단체로부터의 지원, ③정부로부터의 지원, ④외국정부로부터의 지원, ⑤UN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최근의 경향은 해외 NGO나 민간후원단체로부터의 지원을 주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Matching Grant와 Co-financing System이라고 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開發援助委員會(DAC) 국가들에서 이용되고 있다.

(4) 農村開發 戰略

현재의 농촌개발 시책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핵심적인 농촌 거주자들이 농촌개발과 관련된 제반사업을 자신들의 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임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개발시책의 주체인 行政府(Union)이 실제로 농촌사회의 일상생활 중심지가 되지 못하는데 연유한다. 사실상 농촌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부락위에는 郡(Upazila), 村(Union)등 이중의 상위조직이 존재하며, 농촌사회의 계급간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정부의 개발정책 실시에 있어서 여러가지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농촌개발에 관한 계획·조정의 권한은 1983년 이래 Upazila에 있지만, Upazila단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입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획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것이 촌락내의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계급간 이해조정 작업에 불과하다. 농촌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농촌사회의 下意上達의 형식으로 밑으로부터의 개발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부락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리더쉽을 이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리더쉽이 廣義의 patron-client 관계와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부락의 가까운 리더쉽이 없다면 개발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찌기 Ziaur Rahman 대통령이 시행했던 部落自治

會議(Swanirvar Gram Sarkar)제도는 잘 운영되었다면 농촌개발정책의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인구의 8할 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부문을 더욱 집중화시키더라도 농촌사회의 노동력 흡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증가될 농촌의 구직자는 도시의 비영농부문, 농촌에 입지한 공업부문, 기타 서비스부문 등으로 흡수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농촌개발정책을 농촌사회 내부에 한정시킬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광범위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도시와의 연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농촌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Dhaka-Chittagong 벨트와 같이 도시화·정보화가 진행된 지방에서는 대도시까지도 농촌의 거주자들이 생활범위내에 들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지만 농촌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방글라데시에는 인텔리게층과 농민계층간에 생활양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 의식 등에 상당히 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하므로 농촌조사라고 해도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고, 인텔리게층이 수립한 농촌개발정책이 언제나 농촌사회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거시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가경제, 농촌경제, 個人단위의 농업기술, 村落단위의 적용가능기술, 농촌사회, 농촌정치구조, 농민심리 등 농촌에 밀착된 조사에 의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활용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Comilla와 Bogra에 각각 農村開發院을 두고 각종 개발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 및 관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촌개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Action Research Project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강

화시키는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공한다.

3. 教 育

가. 概 要

방글라데시의 교육제도는 역사적으로 19세기초 영국의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한 영어사용의 자유로운 학교교육제도가 이 지역에 도입됨으로써 그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영국교육의 역할은 식민지 통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엘리트 집단의 성장을 가져왔을 뿐, 실용적인 기술지식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영국교육을 받은 이 새로운 엘리트 집단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접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과 격리되어 갔다.

東파키스탄으로 있는 동안 새로운 국가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었다. 파키스탄 國家教育委員會가 마련한 1959년 보고서는 교육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기술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해 방글라데시로 독립한 이후에도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자유로운 엘리트양성 중심의 교육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1981년 센서스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19.7%만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으며, 문자해독율의 지역격차와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촌지역의 문자해독율은 17%로 도시지역의 3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지난 1961~81년 동안 주로 농촌지역 방글라데시인의 도시지역 유입으로 인하여 약간 줄어들었다. 1988년 성인의 문자해독율(15세이상)은 198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식적으로는 29%였으나,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현재 방글라데시 성인의 문자해독율은 36%이며, 5세 이상의 전국평균 문자해독율은

24.8%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교육제도 또한 여성의 교육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쳤다. 1981년 여성의 문자해득율은 13.2%로서 남성의 26%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극심하여 23%의 남성 문자해득율에 비해 여성은 불과 11.2%에 머물렀다. 1988년 센서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문자해득율이 각각 39%, 18%로 나타났다.

나. 敎育課程

방글라데시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민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고등학교 2년으로 되어 있으며, 공학, 농학, 의학 등 전문분야의 대학교육은 4~5년의 학사과정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Ebtedayee, Dakhil, Alim, Fazil, Kamil 등 이슬람교의 聖院(mosque)에 부속된 종교교육기관인 Madrasah를 통해 이와 비슷한 단계의 종교교육과정이 있다.

(1) 一般敎育

방글라데시 교육성 통계에 따르면 국민학교(5~9세)취학율은 1970년대 이래 60% 내외에 머물고 있으나, 출석율은 20% 정도로 대단히 저조한 편이다. 입학생의 1/4은 2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탈락하며, UNICEF에 따르면 5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친 수는 전체 입학자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2차 5개년 개발계획 이후 'Universal Primary Education'(UPE)에 역점을 두어 취학율 향상을 위한 학교건설 등에 교육예산의 4할 이상을 배분하였으나, 연간 2%를 훨씬 넘는 인구증가율에 따라 홍수피해 복구 등 현상유지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학교(10~14세)는 숫적으로 국민학교 4.4개교에 1개교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직업훈련학교로는 교육성 산하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와 노동성 산하 Technical Training Center 등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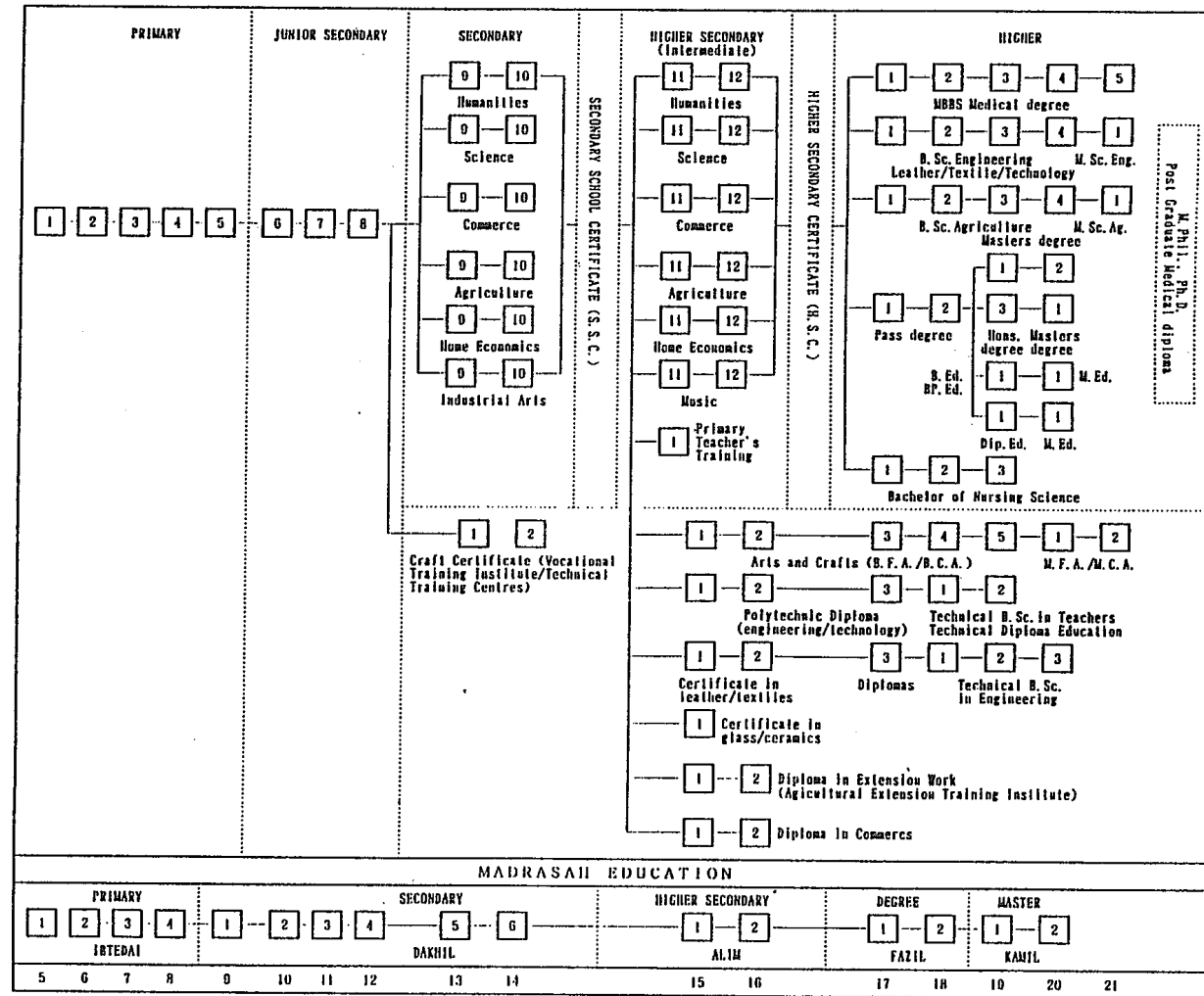
〈表 II-7〉 初等教育 脱落率

	1985년	1988년
학 교 수	44,383	45,080
취 학 수(천명)	7,722	11,252
탈 락 율(%)		
Class I	25.00	13.76
Class II	12.50	9.51
Class III	10.90	14.69
Class IV	10.30	13.68
Class V	9.20	15.05

방글라데시에는 6개의 정규 종합대학이 수도 Dhaka, Chittagong, Rajshahi, Sylhet, Khulna 및 Dhaka 부근의 Savar에 소재해 있으며, 총 등록학생수는 40,000명이 넘는다. 또한 일반과정을 이수하는 758개의 general college와 의학, 치과, 법률 등을 다루는 50개의 professional college가 있으며, 이중 25% 이상은 국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이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총등록학생수는 824,000명에 달한다. 현재 11개 국립 college에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Kushtia 소재 이슬람대학에는 600명의 정규 과정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1990년에 개교한 Shahjalal 과학기술대학에는 약 400명의 학생이 있다.

방글라데시 기술공학대학(BUET)과 4개의 기술학교(BIT)에는 총 6,0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10개의 의과대학, 6개의 의학연구대학원 및 1개 치과대학은 총 8,500여명의 학생에게 의학교육을 제공한다. Dhaka에는 1개 사립 의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Mymensingh에는 농업종합대학이 소재해 있고, Dhaka와 Patuakhali에는 각각 1개의 농과대학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3개 대학에는 총 4,500여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에는 미술, 음악, 섬유, 피혁기술, 유리 및 요업, 법률 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 기술교육을 위한 21개의 과학기술 전문학교와 많은 사범

[그림 II-2] 방글라데시의 教育制度



Source: Bangladesh Bureau of Educational Information & Statistics

학교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대학교육은 과학·기술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숫적으로 적게 배출되어 산업·기술개발을 담당할 인재가 충분히 육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宗教教育

종교교육으로는 총 19,672개에 달하는 Madrasah(Ebtedayee : 14,169, Dakhil : 3,954, Fazil : 707, Kamil : 90)가 이슬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Madrasah 교육위원회의 주관하에 비종교적인 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입시키는 등 Madrasah 교육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Madrasah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비슷한 초·중·고등 교육단계를 거치며 학교는 통상 이슬람 聖院에 부속되어 일반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낡은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Madrasah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3차 5개년 개발계획(1985~90)을 통해 중등교육 개발의 일환으로 320여개의 Madrasah에 과학 실험장비를 마련하는 등 과학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사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노력하였다. Madrasah 졸업생들은 보통 이슬람 사원의 導師(imam)가 되거나 명목상 비종교적인 학교의 선생으로 부임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들은 많은 국민학교가 마을의 사원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두 직책을 겸임하기도 한다.

다. 非定規 教育

성인의 문맹율이 높고, 기초교육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정규교육제도 이외의 비정규 교육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 방글라데시의 비정규 교육은 성인의 문맹퇴치 교육과 정부의 교육제도 및 교과과정에 의존하지 않는 기초교육으로 크게 구분된다. 정부의 성인문맹 퇴치교육으로는 'Mass Education Programme'으로서 10세 이상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당초 국내의 약 4,000만명의 문맹

자 교육을 목표로 하였으나, 1982년 약 70만명의 문맹퇴치 교육을 한 후 중단되고 말았다.

정부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소득향상 등의 개발 프로젝트나 NGO 활동 내에도 문맹퇴치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읽고 쓰기 그 자체보다는 소득과 연결되는 기술·기능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NGO가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정규 교육형태로는 정부산하의 학교교육제도를 따르지 않는 초등교육이 있다. 이는 주로 빈곤층 자녀나 정규학교제도를 따르지 않는 초등교육이 있다. 이는 주로 빈곤층 자녀나 정규학교에서 중도탈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내용, 수업기간, 修了年數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최대 NGO인 BRAC 등이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실험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확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규교육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라. 女性教育

교육부문의 남·녀 성별차이는 방글라데시의 기초교육 및 중등·직업교육 전반의 공통된 특징이다. 국민학교 취학율은 보통 남자 70%, 여자 40% 정도이며, 중학교 취학율은 각각 24%, 11%에 머무른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탈락율은 남자의 두배 이상인데, 이와 같은 교육기회의 차이는 빈곤층에서는 여자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 필요하며, 부모의 노후 부양자로서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교육투자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가치관이 여성교육이나 외부사회와의 접촉을 이단시하며, 여성의 조혼풍습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집과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여학생의 통학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과대학과 종합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1/3에서 1/2

수준으로 되고 있어 도시의 엘리트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기회가 농촌사회만큼 제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는 확대추세이며, 엘리트 여성의 고등교육 진출이 빈곤층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의 취학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을 위한 정규교육 시설의 확충과 함께 문맹퇴치, 소득향상, 기술, 가정, 보건 등 각 분야의 비정규 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

다. 敎育計劃 및 政策

방글라데시 국가계획위원회는 ‘中期敎育計劃’에서 방글라데시의 학교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①과도한 도시중심의 엘리트주의적 구조, ②높은 중도탈락율(특히, 국민학교), ③노동력 수요와 교육제도가 배출하는 기술·기능 인력과의 격차, ④부적절한 교원훈련, ⑤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경향 등이 열거되었다. 이러한 교육부문의 제반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國家敎育委員會(National Educ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어 현행제도의 재검토, 노동시장의 기술·기능수요에 따른 교과과정 분석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책조정을 위해서 國家技術開發訓練協議會(National Council for Skill Development and Training)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촌지역의 여성교육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학교 의무교육법의 추진과 더불어 오는 2000년까지 전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실현하려는 교육부문의 과제로는 ①초등교육의 의무교육 도입과 문맹율의 감소, ②과학교육의 향상, ③국내 고용시장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능적

성격 향상, ④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한 대학의 적정수준 유지, ⑤일반 및 기술대학, Bangladesh Institute of Technology 등 고등교육기관의 개발, ⑥교육행정, 관리, 시험제도 등 교육제도의 현대화, ⑦인구계획 등 광범위한 목표에 대하여 교육의 각 분야별 잠재력의 활용, ⑧교육시설확충의 관점에서 지역적 균형유지, ⑨가능한 모든 교육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계획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국민학교 의무교육도입과 비정규 교육부문으로서 분야별 예산배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역적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①주로 도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의 여학생들이 8학년까지 학비를 면제받는 프로그램, ②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의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③과학중심의 중등교육 확대, ④기술 및 직업 교육제도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의 1990~91년 개발프로그램(ADP)을 보면, 13개 TA 프로젝트를 포함. 총 53개 프로젝트에 31억 8,600만타카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초등교육분야는 4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포함, 6개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는데, 전술한 ①국민학교 의무교육제 도입을 비롯, ②Dhaka, Khulna, Rajshahi 지역의 초등교육개발, ③IDA 지원하의 국민학교에 대한 수해복구 프로젝트, ④IDA 지원하의 제3차 수해복구 프로젝트, ⑤EEC 지원하의 수해복구 프로젝트, ⑥Chittagong 지역의 초등교육개발 등이 있다.

〈表 II-8〉 教育部門 豫算

(단위 : 천만타카)

	ADP 예산 (1989/90)	ADP 예산 (1990/91)
초 등 교 육	196.2	190.9
중 등 · 고 등 교 육	53.9	41.7
기 술 교 육	30.4	33.1
대 학 교 육	11.0	27.2
교 육 성 자 체 프 로 젝 트	6.8	6.8
TA 프 로 젝 트	19.9	9.2
기 타	0.4	2.9
합 계	318.6	312.0

4. 保 健

가. 概 要

방글라데시는 독립이후 특히 1980년대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에 상당한 향상을 보였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보건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촌지역은 여전히 낙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염병이 만연하고, 영양실조, 불충분한 하수처리, 안전한 식수공급 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인구의 약 1/3 만이 1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보건의료시행 실태는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보건지표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특히 유아사망율은 출생수 1,000명당 90.6명(1991년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의 캄보디아, 네팔 등과 함께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50%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5세 미만의 사망비율이 매년 총사망자수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어 50세 이상의 사망비율이 총사망자수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동태 측면에서는 출생율이 인구 1,000명당 31.6명으로서 감소추세가 완만한 반면, 사망율은 11명으로 감소함으로써 고출생율과 저사망율에 따른 인구증가율은 여전히 2%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의 평균수명은 56.1세(남자 : 56.5세, 여자 : 55.6세)로 기타 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무계획적인 높은 출산율에 따른 임신부 사망율과 방글라데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열악한 보건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 1인당 평균출산회수는 4.2로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多産社會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 疾病 및 保健問題

질병에 관한 통계는 방글라데시 보건성의 공공 보건서비스 체계하에 전국의 현지 보건의료 종사자들로부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保健情報機關(MIU)에 정기적으로 보고, 정리된다. 그러나 공적인 보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보건의료 통계치는 국민의 질병현황에 대해 일부분만을 나타내며,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질병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등에 의한 정보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보건성에 보고되는 자료의 질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어, 한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뢰성이 높은 질병·사망통계의 입수가 불가능하다.

1980년대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보건통계를 보면, 콜레라, 이질,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등 각종 전염병과 말라리아, 필라리아病, 기생충病 등 기생충 감염질환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양결핍과 불량한 위생시설에 기인한다. 이질은 위생이 불량한 식수 등에 의해 감염되는 소화기 질환으로서 유아기이후의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으로는 안전한 식수

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전체인구의 40% 만이 안전한 식수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다. 유아의 경우 이질에 의한 탈수증이 사망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가정내에서 經口補水鹽(Oral Rehydration Salt : ORS)을 사용하는 치료법에 의해 낮은 비용으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ORS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건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홍수에 의해 이질이 만연하는 경우 중요한 구호물자가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유아사망중 50~60%를 차지하는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사망은 그 대부분이 신생아 과상풍에 의한 것이며, 이는 위생이 불량한 출산에 따른 감염이 주요 원인이다. 신생아 과상풍은 임산부에 대한 과상풍 항독소 예방접종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WHO, UNICEF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豫防接種擴大計劃(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 : EPI) 실시율은 대상인구의 10% 이하로서 접종율은 세계에서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양결핍은 각종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키며, 일단 질병에 감염된 경우 발병을 및 치사율을 상승시킨다. 방글라데시 농촌가정의 45% 및 도시가정의 75%는 영양섭취에 있어서 칼로리 부족상태에 있으며, 5세 이하 어린이중 40%는 영양결핍상태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고, 10%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다. 이질의 발병에 의한 급성영양불량, 저칼로리에 의한 저항력 저하와 감염은 이질과 영양결핍의 악순환을 초래, 만성영양 불량 및 발육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출생아의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아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임산부의 만성영양불량에 기인할 때가 많다. 비타민A의 결핍에 의한 失明, 요오드의 부족에 의한 갑상선장애 등도 영양결핍과 관련된 방글라데시의 보건문제로서 후자는 주로 북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1985년에 약 30,000건의 사례가 혈액검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실제로는 연간 15만명 정도가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라리아의 유행지역은 Rangpur, Tangail, Faridpur 지방 등으로 동부 및 동남부 국경지대에서 가장 극심하다. Chittagong 구릉지대, Cox's Bazar 등에서는 Falciparum 原蟲에 의한 뇌성말라리아의 유행이 보고되고 있다. 1970년대 최초로 클로로킨 耐性의 原蟲이 Mymensingh 지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동남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86년 4월에 AIDS 國家委員會가 설치되었다. 同委員會는 AIDS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단기계획을 입안하고, 필요한 실험시설 확충 및 관련요원 교육, AIDS 예방지침서 발간, 보건·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을 담당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疾病管理 프로그램(Disease Control Program)이 주로 서구방식의 치료목적의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이후에는 질병의 예방차원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표적인 豫防健康 프로그램인 'Universal Immunization Program'은 WHO와 UNICEF의 지원하에 8개의 郡(Upazila)에서 착수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세 이하 어린이들은 위해 6가지의 주요 질병에 대한 면역접종과 임신가능 연령의 여성들에게 파상풍에 대한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로 1세 이하 어린이들의 면역율은 3% 미만에서 36.5%로 증가되었으며, 12~24개월 어린이들의 면역율은 55.8%까지 증가되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8년 'National Nutrition Council'을 창설함으로써 전국적인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능력을 향상시켰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불충분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현대식 의료체제와 관계없이 주로 類以療法(homeopathy)과 自然療法(naturopathy)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힌두식 ayurvedic 의료체제와 이슬람식 unani 本草治療療法, 서구식 對症療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表Ⅱ-9〉 主要 死亡原因

사 망 원 인				全體死因에서의 비율(%)
이		질		16.3
영	양	부	죽	13.1
폐		렴		10.8
미	숙아 · 출생시의	손상		8.6
파	상	풍		4.4
폐	결	핵		3.3
홍		역		2.7
심	질	환		4.5

자료 : 제3차 5개년 개발계획

다. 保健施設 現況

방글라데시 보건성은 보건서비스 시설의 대부분을 직접 운영하며, 국민보건 및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조정, 실시한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보건서비스 정책의 주요 목표는 주로 농촌지역에 보건시설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요원을 교육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000년까지 전국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이 채택되어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병원, 약국, 진료소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시설의 설립과 같은 보건부문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심각한 재원의 부족, 불충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원 및 장비부족 등으로 계획의 집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농촌 보건시설로는 郡(Upazila)단위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Upazila Health Complex(UHC)'가 있는데, 이는 전국의 郡 중에서 약 3/4 가량에 설치되어 인구규모로 볼 때 평균 약 20만명당 1개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보건시설은 평균 31개의 병상을 갖추고 郡 보건·가족계획관인 소장을 중심으로 9명의 의료요원이 배치되고 있다. 또한 行政村(Union)단위인 'Union Health and Family Welfare Center(UHFWC)'는 각 村마다 1개소씩을 설치, 인구비율로 볼 때 15,000~25,000명당 1개소를 목표로 한다. Union 保健·家族福祉센터에는 소장으로서 의료부문을 담당하는 醫療助

手(Medical Assistant) 1명과 가족계획·모자보건을 담당하는 家族計劃福祉訪問員(Family Welfare Visitor)이 배치되어 있다.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둔 병원시설은 50~150개의 병상을 갖춘 지방병원과 500~1,000개의 병상을 갖춘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다. 그 밖에 의과대학원에서 부속 전문병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610개의 공공병원과 280개의 개인병원이 있고, 1,330개의 농촌진료소 및 2,400개의 보건·가족복지센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21,000명이 넘는 등록의사수와 더불어 34,400여개의 병상이 갖추어져 있다.

〈表 II-10〉 醫療施設 및 病床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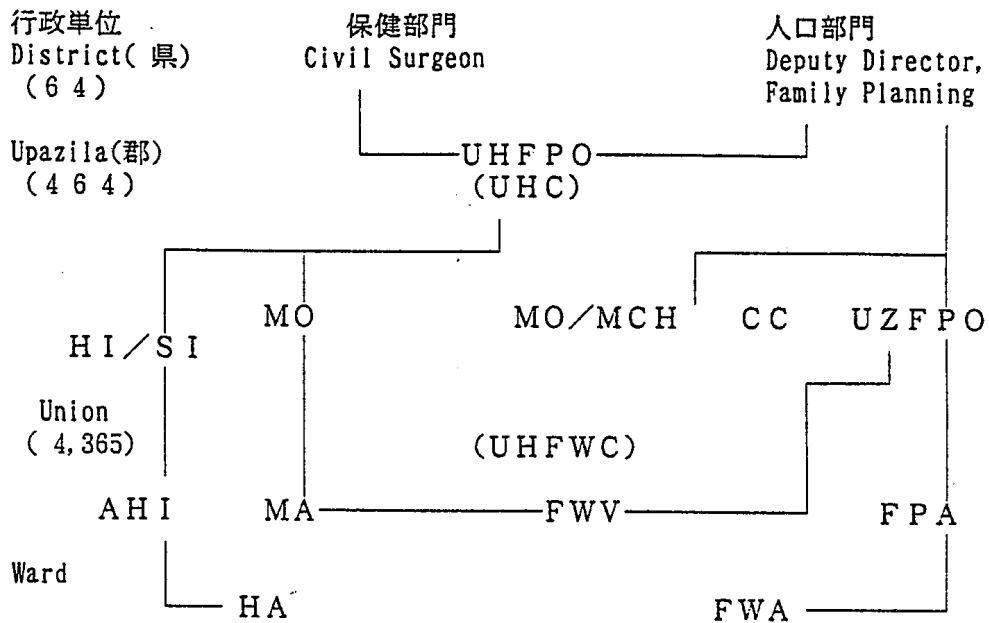
시 설 명	시설수	병상수
보건성		
District Hospital	60	3,850
Teaching Hospital	13	7,232
Other General	1	75
TB & Chest Hospital	4	406
TB Segregation Hospital	8	160
Leprosy Hospital	3	130
Infectious Diseases Hospital	5	180
Mental Hospital	1	400
(농촌보건시설)		
Upazila Health Complex(UHC)	400	—
Union Health and Family Welfare Center(UHFWC)	2,329	—
Maternal and Child Welfare Center(MCWC)	96	612
기타 공공기관		
Railway Hospital	9	476
Jail Hospital	19	1,003
Police Hospital	20	768
민간공익단체	280	7,242

방글라데시의 보건서비스 조직은 보건성의 보건부문과 인구·가족계획부문의 2개 부문체제하에 각 지방(District) 단위까지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Upazila 단계에서는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의 지휘·감독이 양부문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계통이 될 수밖에 없어 통합적으로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어렵다.

제3차 개발계획(1985~90)을 통해 농촌지역의 보건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는 잘 진전되지 못했다. UNICEF 및 보건성의 조사에 의하면 전기나 우물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Union 保健·家族福祉센터나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Upazila 保健컴플렉스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의료 요원의 배치상황도 반드시 정원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운영예산 부족과 자재부족까지 겹쳐 보건시설에 대한 농촌주민의 이용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확충된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발휘, 지역주민의 이용을 촉진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보건성 산하의 시설중 District 병원 이상의 시설유지 및 수리는 공공사업국(PWD)이 관할하며, Upazila 保健컴플렉스의 유지 및 수리는 Upazila의 관할하에 자체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Upazila 保健컴플렉스에는 기계기사의 직책이 있으나, 그 책임과 훈련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시설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는 운영경비의 부족, 제도의 미비 등으로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그림 II-3] 農村保健施設 및 組織



UHC:Upazila Health Complex
 UHFPO:Upazila Health and Family Planning Officer
 MO:Medical Officer
 MO/MCH CC:Medical Family Planning Officer
 UZFPO:Upazila Family Planning Officer
 HI/SI:Health Inspector/Sanitary Inspector (one for 3 AHI's)
 AHI:Assistant Health Inspector (one per 4,000 population)
 MA:Medical Assistant
 FPA:Family Planning Assistant (male)
 FWV:Family Welfare Visitor (female)
 FWA:Family Welfare Assistant (female)
 HA:Health Assistant (one per 4,000 population)

자료 : UNICEF,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Bangladesh
 M. R. Khaned., Evaluation of Primary Health Care and Family Planning
Facilities and Their Limitations Specially in the Rural Areas of
Bangladesh, 1988, BIDS

라. 保健教育 및 訓練

방글라데시의 등록된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20명 정도로 이는 의사 1인당 5,300명의 비율이다. 그러나 의사 이외의 업종 종사자는 더욱 적어 간호원의 수는 의사의 1/4에 불과, 매우 불균형적인 보건의료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와 간호원의 부족현상은 이들이 중동의 산유국이나 서방 선진제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더욱 심각해 졌다.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직후에는 의과대학 졸업생의 약 절반 가량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적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의 교육시설이나 연간 의료요원 양성수의 측면에 있어서도 의사 이외의 同部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내용도 도시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치료기술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보건문제나 현재 확충되고 있는 농촌 보건시설의 실정에 일치하지 않아 예방접종, 모자보건, 이질치료 등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엘리트 계층 출신의 의사와 농촌주민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커 공공 보건시설이 아닌 Kobiraj(촌락내의 전통적 치료자)나 Dhai(전통적 産婆), 바잘의 의사 등이 보건서비스의 주된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부문의 인재육성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원조기관의 협력하에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할 각 직종의 인원양성 및 훈련시설이 설립되고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는 안전한 出産 介助法이나 이질치료법을 지도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의료요원에 대한 훈련의 정비, 확충 등이 신속히 실시된 결과, 현재 공적 보건서비스 기관에서는 취업기회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정부의 고용능력을 초과, 의과대학 및 훈련기관 졸업생의 실업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의사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실업문제가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규 교육시설의 설립에 의한 정원의 확대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

육기관의 교육·훈련기능을 강화,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表Ⅱ-11〉 主要 保健醫療教育 現況

직 종	학 교 수	총 인 원
전 문 의 사	6	1,450
대졸의사(M.B.B.S)	8	19,340
치 과 의 사	1	685
의 료 조 수	8	8,200
간 호 원	38	4,348
검 사 기 사	—	1,642
방 사 선 기 사	—	472
약 제 사	—	6,163
가족계획복지방문원	12	—
Dhai	—	24,000

자료 : 제3차 5개년 개발계획

마. 醫藥政策 .

방글라데시는 1982년 이래 국가의약정책(National Drug Policy)을 실시,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종류, 가격 등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의약품의 유통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의약품을 평가, 등록하기 위해 16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제약회사는 제산제 및 비타민제를 생산할 수 없게 하였다. 공적 보건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은 시설수준에 따라 정해진 필수 의약품 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어, Union 단계에서 12種, Upazila 단계에서 33種,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05

種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150種의 필수약품이 지정되었다. 방글라데시 국내에는 國營製藥公社(EDCL)가 필수약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 국자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기업이 의약품 제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Bogra에 소재한 국영제약공사의 제조공장은 일본의 무상자금협력에 의해 건설된 것이다.

UN·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제약공업은 수입된 벌크(原末)의 제품형태로의 가공뿐 아니라, 中間誘導體에서 벌크제조를 개시한 단계에 접어들은 수준이다. 이질치료를 위한 經口補水鹽(ORS)도 국내의 국영 및 민간공장에서 제조되어 이질억제계획을 위해 배포되고 있다.ワクチン 제조로는 국립공중위생원(IPH)이 파상풍 항독소를 제조하고 있으며, 디프테리아 백신의 국산화에도 착수하고 있다. IPH는 의약품의 품질관리검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국산 및 수입약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차 개발계획을 통해 보건부문 예산의 20% 가량이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에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량의 25% 밖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계획에 필요한 약품 및 기구 등은 모두 수입품이며, 그 조달은 주로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바. 家族計劃 및 組織上 問題點

방글라데시의 인구증가율은 가족계획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연평균 2%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증가는 실업과 빈곤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가족계획은 제1차 개발계획 동안에는 각 부처간 협력·조정에 의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제2차 개발계획에서는 'Information·Education·Communication(IEC)' 활동과 가족계획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1990년까지 紙再生産率(Net Reproduction Rate : NRR)을 1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1.8%로 목표로 세웠으나, 이 목표는 달

성되지 못하였다. 제3차 개발계획은 금세기 말까지 紙再生産率(NRR)을 1로 할 것을 목표로 하여 1985년의 25%의 가족계획실시율을 1990년까지 40%로 끌어 올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추진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여성의 불임시술에 의한 영구적 방법이 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구피임약 등에 의한 일시적 방법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구적 불임시술의 경우, 실시대상자는 이미 희망하는 자녀를 다 낳은 30대 이후의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가족계획은 東과키스탄 시대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평균 3%였던 인구증가율을 1970년까지 2.7%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여 가족계획 Clinic Network가 기존의 보건체계에서 독립, 설립되었다. 따라서 인구·가족계획 활동은 일반 보건체계에서 분리되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인구·가족계획 부문의 분리가 현행 보건의료 조직·활동의 문제점의 원인이 되었다.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1973년 이래 보건부문과 인구·가족계획부문의 조정과 통합이 여러차례 이루어진 후, 1983년부터 보건·인구계획성은 주로 보건 및 의료를 담당하는 保健部門(Health Wing)과 인구·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人口部門(Population Control Wing)을 두게 되었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의 실시해 관해서는 보건국과 인구계획국이 각각 담당하였다. 양부문은 郡(Upazila) 단위 이하에서는 기능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으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Upazila 保健کمپلك스나 Union 保健·家族福祉센터내에서는 보건부문과 인구·가족계획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각각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지도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부문의 통합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가족계획과 의료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할 모자보건이나 예방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제반 문제점이 현저히 나타난다. 산전·산후보호는 가족계획 담당

자의 역할로 되어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보건서비스 부문에 소속되어 있어 감염이나 위험도가 높은 임신·출산준비를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유아사망을 및 임산부 사망을 저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의 가족계획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부문의 효율적 통합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5. 工 業

가. 概 要

방글라데시의 공업(제조업)부문은 1971년 독립 당시 黃麻, 피혁, 식품 등 가공산업으로 경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후 同部門은 민간투자제한 철폐(1978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1980년),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1982년) 등 일련의 경제자유화와 개방화 조치에 힘입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공업부문은 그 규모면에서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구조 및 기술수준이 매우 낮고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황마와 관련된 섬유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업부문이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 10% 내외에 불과하다. 제조업내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수입원면을 이용한 방직 및 섬유산업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담배, 식품가공, 기타 화학제품 등이 각각 1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4개 부문의 부가가치 합계가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마산업은 생산, 고용, 수출 등에서 방글라데시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대의 황마수출국으로서 同産業은 세계수요의 동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폴리프로필렌 등 대체품의 개발에 따라 시장을 잠식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국가에 의해 운영되던 황마산업은 1982년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많은 공장이 민영

화되었으나, 아직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면방직산업은 1982년 황마산업과 함께 민영화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의류제조업이 증가하여 의류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특히 의류산업은 수출증대에 따라 성장하였는데,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의 성공으로 현재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원재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 비중은 극히 낮아 제조업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식품가공산업은 대부분 국내수요에 의해 성장하여 섬유·의류와 함께 제조업내 최대의 고용부문으로 부가가치의 비중도 14.2%에 이른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설탕, 제분, 식용유 등이며, 새우, 식용 개구리 등 어류가공제품 생산도 크게 증가하여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주요 수출품의 하나인 茶는 악천후 등 기상변화와 관리부실, 그리고 시장의 협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학산업은 1980년대초 가스의 탐사·채굴이 시작되면서 성장기반이 구축된 이후 화학제품과 비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비료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서 1970년대에는 거의 소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생산이 크게 증가, 요소비료의 경우 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밖에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T.V, 라디오 등 전자제품의 단순조립생산도 비록 외국인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공업부문은 낮은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생산부문이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조립생산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본축적 부족으로 투자와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기술개발 및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 工業化의 歷史

(1) 第1次 工業成長期

방글라데시의 공업은 독립이전의 1960년대를 통해 黃麻産業과 原綿을 이용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제1차 성장기를 경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업 부문의 성장율은 연평균 6.5%에 달했다. 그러나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시점에는 東파키스탄 시대부터 성장해 온 섬유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50%, 제조업 종사자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섬유부문에 중점을 둔 성장구조를 이루었다.

(2) 第2次 工業成長期

독립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농업부문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국원조 도입에 의한 식량부문의 해소를 도모하면서 산업국유화에 따른 수입대체적 공업화를 중심으로 정부주도형의 공업발전이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독립 직후 西파키스탄인들의 공업관련 자산을 접수하여 黃麻産業, 綿工業, 사탕산업 등을 모두 국유화시킨 후 정부의 각 부문별 公社산하에 두었다. 이에 따라 公社산하의 기업수는 250개에 이르게 되었고, 국유화 자산은 공업부문의 전체 고정자본중 89%에 달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미처 정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업의 경영지식도 풍부하지 못해 정부중심의 통제경제는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방글라데시의 공업생산은 기계설비 보충의 지연, 원료조달난, 국영화된 기업의 경영능력 결여 등의 문제가 겹쳐 1975~76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의 지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형의 공업화는 모든 방면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의 메카니즘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의 전환도 도모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공업화 노력은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공업기초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제2차 공업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요소를 중심으로 한 화학비료와 시멘트 등의 국산원료 가공형인 수입대체 공업이 발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업부문의 연평균 성장율은 5.8%에

머물렀으나, 요소비료 생산의 성장율은 10.5%, 시멘트 생산은 25.5%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추세에 따라 종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의 비중은 독립이전의 약 50%에서 1980년에는 39.8%, 1984년에는 31.6%로 떨어진 반면, 비료, 의약품 등 화학제품의 비중은 8.9%에서 14.1%, 19.6%로 각각 증가하였다.

(3) 1980年代의 工業成長

공업부문은 197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침체현상이 지속되어 제2차 개발계획중 연평균 성장율은 2.5%에 불과, 목표치 8.4%에 훨씬 못미치고 말았다.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공업화의 특징은 농업생산의 변동, 국제상품시장의 추세, 국내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 따라 생산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에 있다.

1980~81년에는 성장율이 8.8%로 고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농업부문이 호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접어들면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농업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공업부문의 성장율은 마이너스 1.6%로 떨어지고 말았다. 1983~84년에는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확대에 따라 연평균 성장율이 3.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5~86년에는 다시 1.8%라는 낮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黃麻産業 및 綿紡績業의 부진, 황마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구매력 저하, 홍수 등의 기상이상에 따른 농업생산의 저하, 政情不安에 따른 도시주변의 공업생산 저하와 이에 따른 민간투자의 감소 및 정부개발 투자의 삭감 등이 1980년대 후반의 공업성장을 저해하였다.

다. 交易面에서의 工業部門의 發展

방글라데시의 무역의존도는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어 뚜렷한 추세를 찾아볼 수 없다. GNP대비 수출입의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 주력 수출품이었던 황마 및 황마제품의 국제적인 수급변동이 심하였고 수출의 불안정성과 국제경제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독립이전에는 이와 같은 황마 및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신장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출성장율을 실현, 1960년대에는 연평균 6.5%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독립이후에는 사회·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1973~84년의 10년 동안 연평균 2.9%를 기록, 저소득국의 평균적인 수출성장율인 5.4%를 크게 밑도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에는 5%의 성장대를 유지함으로써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측면을 보면, 1980~86년의 저소득국 전체의 수입성장율이 7.2%인 것에 비해 방글라데시는 3.3%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수입액의 규모가 수출액의 3배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개발에 따라 자본재 중간투입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일방적인 수입억제만을 할 수 없었으며,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억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투입재의 수입에 중점을 두는 것과 함께 비전통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의 수입구조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식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료의 비중도 높았으나 천연가스의 생산확대와 석유생산의 시작에 따라 점차 감소, 저소득국의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밖의 1차 산품에 대해서는 저·중소득국의 평균에 비해 다소 높지만 해마다 변동이 큰 추세이다. 기계 및 수송기기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중소득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주로 제조업부문에서 투입재로 사용되어 국내의 공업화 진전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중간자본재의 일부는 국내에서의 수입대체 생산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수입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이 부분의 수입비중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공업원료 및 비료, 화학·의약품 등의 수입확대 경향이 있으나 공업화의 진전에 늦어짐에 따라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상품별 수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품은 종래 황마와 차 등의 1차 상품과 관련 가공품이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를 통해 이러한 상품분야의 구성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 봉제품의 비중이 차츰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고용확대, 외화획득 등 공업화의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봉제품 생산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연관을 통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유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품수출의 확대는 봉제품 이외에도 냉동제품(냉동새우), 피혁제품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경우에도 산업연관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되며, 다만 비전통적 상품분야의 수출이 착실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업생산과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피혁, 냉동식품, 봉제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이미 황마 및 황마제품의 비율을 상회하였다.

〈表 II-12〉 主要 輸出商品 構成

(단위 : 백만달러)

	1981	1988	1989	1990	1991	1992
〈1차 상품〉						
천연황마	118.6	80.5	97.3	124.6	104.2	35.5
냉 동 새 우 · 어 류	40.0	139.7	141.4	137.8	141.8	130.5
및 식용개구리						
차	40.7	39.0	39.8	39.5	43.2	32.4
〈공업제품〉						
황마제품	366.4	301.3	279.8	331.3	357.8	301.7
붕제품	3.2	433.9	471.1	609.3	735.6	1064.0
공예품	3.5	3.8	3.9	5.2	5.2	8.7
피혁 · 피혁제품	56.7	147.2	137.0	178.9	137.3	148.8
요소	9.6	24.9	53.4	17.0	38.3	21.4
나프타	29.9	8.1	11.9	7.9	13.7	3.0
용광로용 오일	19.3	3.7	4.1	8.9	18.8	5.3
총수출액	710.4	1232.2	1286.0	1523.7	1717.6	1993.1

자료 : Export Promotion Bureau

〈表 II-13〉 主要 輸入商品 構成

(단위 : 백만달러)

	1981	1988	1989	1990	1991	1992
〈1차 상품〉						
쌀	40.4	150.0	17.0	102.0	3.9	5.0
밀	210.0	339.0	357.0	241.0	327.3	250.0
원 유	343.6	136.0	131.8	123.0	211.6	152.0
면 화	108.0	88.0	93.0	105.0	92.5	71.0
〈중 간 재〉						
식 용 유	92.0	176.0	170.0	200.0	207.5	141.0
석유제품	159.8	136.0	153.0	174.0	206.7	168.0
비 료	104.0	46.0	108.0	46.0	90.5	117.0
시 멘 트	32.8	67.0	83.0	83.0	106.2	106.0
紡 絲	20.1	44.0	40.0	54.0	72.0	50.0
〈자 본 재〉	689.0	1090.0	1070.0	1296.0	1231.0	1284.0
총수입액	2533.0	2986.0	3375.0	3759.0	3470.0	3463.0

자료 : Planning Commission

라. 工業部門의 課題

(1) 輸出産業

방글라데시의 수출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수입은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수입과 자본재 도입 등에 따라 수출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그 동안 황마 및 황마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의해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및 원재료, 기계 등의 투입재를 수입하여 왔다. 최근에는 봉제품, 새우 등 냉동제품, 피혁제품 등의 수출확대로 전통적 수출품의 점유율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력 수출상품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도 필요한 수입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새로운 수출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방글라데시는 수출산업이거나 수입산업이거나 한 밭, 홍수, 태풍, 병충해 등에 의해 농업부문의 생산수준 저하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기 쉽고, 국내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우기 국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수출확대 저해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황마산업의 경우 황마원료는 생산목표량에 충분히 확보되었지만 선박 수송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출량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전력공급 부족, 철도, 도로 등의 수송난으로 인해 수출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냉동새우의 경우 수출은 약간 신장되었지만 항만 능력부족의 문제 외에 태풍에 의해 새우양식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저하되는 일이 있다. 봉제품에서도 제품의 다양화가 서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운송면에서는, 특히 항만에서의 원료의 하역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을 위한 공업제품의 생산은 산업연관을 통해 국내의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시키는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고용확대 효과 등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국내수요를 높이고 그 생산을 확대시키는 가능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고 국내 경제의 활성화

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2) 國營企業과 民間投資

방글라데시의 공업생산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음료, 종이, 고무, 기초금속, 수송기기 등을 중심으로 변동의 폭이 별로 없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석유제품과 비철금속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화학제품, 일반기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은 종래 국영자업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1980년대초 공업부문의 총부가가치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르렀으며 고정자본 총액의 70%를 차지, 황마제품, 철강, 화학, 석유, 가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공업부문의 생산부진도 주로 국영기업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방글라데시 특유의 자연조건 외에 관료적 지배체제,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의 부족, 경영의 질적저하, 낮은 노동의욕, 부정부패 등도 국영기업의 부진을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①국영기업에 의한 투자범위의 축소, ②국영기업의 민영화, 혹은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③민간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공업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민간자본 주도형의 경제개발 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아직도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이 많이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상당기간 경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이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투자촉진 인센티브가 약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관료적 지배에 의한 폐해도 여전

히 남아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공업부문은 국영이나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홍수, 정치적 혼란 등 경제외적 요인과 경영관리상 제반문제로 인한 생산 과잉 및 생산부족의 반복,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의 불안정한 공급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전반적으로 큰 변동을 수반하여 성장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민간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즉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자본조달의 어려움, 정부개발은행의 자금부족 및 국영상업은행의 對민간제조업체 대출의 회피 경향, 전력, 수송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미정비 등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3) 小企業 및 國內工業¹⁾의 發展

1970년대 후반 들어 방글라데시에는 가내공업 및 관련 산업의 개발 필요성이 표면화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의 목표는 공업생산의 단순한 양적 증대에 그치지 않고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적 고용기회의 확대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즉 공업부문의 고용흡수력은 도시지역에서의 공업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에서의 비농업활동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노동인구에 대해 고용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부문의 개발을 목표로 BSCIC(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를 설립, 소기업 및 가내공업의 발전을 경제개발의 우

1) BSCIC에서는 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 활동의 어느 것에 속해 있고 조세, 관세 등을 제하고 총투자액이 1,500만다카 이하로서 기계 및 기기 등에서의 투자가 1,000만타카를 넘지 않는 사업소라야 한다. 또한 가내공업에 대해서는 動力源의 이용 여부에 불문하고 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專業 또는 비전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소이고 동력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자 수는 20명 이내이며, 동력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한다. 그 밖에 기타 사업으로서 이상의 사업소에 부품, 중간재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와 총생산이나 총서비스의 절반 가량을 이러한 사업소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방정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가내공업 규모의 사업소를 농촌공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 순위에 두고, 이것이 전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원래 BSCIC는 東파키스탄 小企業公社(East Pakistan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 EPSIC)의 활동을 이어 받은 기관으로서 현재의 조직은 1975년에 설립되었다. 활동의 주요 목표로는 소기업 및 가내공업의 성장 촉진, 금융자원 이용의 최적화,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기술혁신의 촉진 및 경제·사회개발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자금의 대출 및 알선, 기술이 전파 및 개발, 경영 노우하우의 지도, 시장조사 등의 활동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BSCIC의 조사에 의하면 소기업 및 가내공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확대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소기업 및 가내공업은 전체 공업부문의 부가가치의 40%, 고용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소기업 및 가내공업 부문은 ①노동자 1인당 평균투자액이 경제 전체평균의 1/4 이하이며, ②1인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이 소기업의 경우 경제 전체평균의 1/3, 가내공업의 경우 1/16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실업, 불완전 고용 등과 도시 고용부문의 고용흡수력 약화 및 노동력 공급의 급속한 증대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 부문의 개발이 한층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資源·에너지

가. 概 要

방글라데시의 에너지부문의 특징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총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전통적 에너지 및 저수준 상업에너지의 기여도가 크며, 둘째, 수입에너지에의 의존과 석유부담이 크며, 셋째, 에너지 자원의 지리적 편재와 이를 반영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들 수 있으며, 넷째,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1인당 상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환산으로 47kg(중저 소

특국 평균은 380kg), 전력 소비량은 33kwh로서 최저권의 상업에너지 소비국에 속해 있다. 한편 에너지 수급량에서 차지하는 전통적 에너지의 비중은 1980년대 전반에는 80%, 후반에는 60%로서 총에너지 수급구조에서 전통적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업용 에너지수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석유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35%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총액에 대한 석유수입액의 비중은 40%를 상회하였다.

방글라데시는 Brahmaputra江을 중심으로 국토가 두갈래로 나누어 지는데, 방글라데시의 유망한 국내 에너지 자원의 하나인 천연가스는 그 확인 매장량의 전부가 이 강의 동부에 편재되어 있는 반면, 江의 서부에는 석탄, 갈탄 등이 매장되어 있다.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파이프라인 지대는 동부에만 있고, 따라서 가스의 사용은 지역적으로 북동부에만 한정되어 있다. 전력 설비를 보면, 총발전설비력의 85%가 Brahmaputra江의 동부지역에 있고, 나머지 15%가 서부에 산재해 있다. 발전용 에너지를 석유에만 의존하는 서부지역에서는 전력발전에 드는 비용이 동부지역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낮은 상업에너지 소비수준과 함께 방글라데시는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효율도 매우 낮은 상태인 바, 전략의 경우 送配電 減少는 약 38%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기술적 송배전 감소는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부관계기관에서의 요금 미징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글라데시 에너지鑛物資源省(MOEM) 산하의 에너지 감독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공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15% 가량의 상승이 가능하며, 민간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전통적 에너지의 연소효율은 겨우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表 II-14〉 分野別 商業에너지¹⁾ 消費量

(단위 : 천톤)

	1987	1988	1989	1990
주 거 용	973	913	789	831
공 업	1,535	1,327	908	1,275
상 업 서 비 스	243	237	175	151
수 송	828	744	601	637
농 업 · 기 타	200	263	376	306
非에너지이용 ²⁾	1,517	1,432	1,394	1,472
합 계	5,296	4,916	4,243	4,672

주 : 1)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전력포함.

2) 비료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이용을 뜻함.

나. 分野別 生産動向

(1) 天然가스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는 빈약한 석유 및 석탄자원 등에 비해 매우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상업용 1차 에너지수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에너지의 하나이다. 현재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최소 6,230억m³에서 최대 8,500억m³로 추전되고 있으며, 확인된 매장량은 3,700억 m³이다. 천연가스田은 1990년에 발견된 Marichakandi 가스田을 비롯, 총 15곳에 산재에 있으나, 주로 Brahmaputra江의 동부에 편재되어 있고, 해안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지만 가스 채굴에 채산성이 없는 상태이다.

〈表 II-15〉 天然가스 埋藏量

(단위 : 조 ft³)

지 역	발 견 연 도	총 예 상 량
Sylhet	1955	0.12
Chhatak	1959	5.38
Roshidpur	1960	2.98
Titas	1962	1.37
Kailastila	1962	2.48
Habiganj	1963	1.58
Bakhrabad	1969	3.60
Semutang	1969	0.10
Kutubdia	1977	0.47
Begumganj	1977	0.05
Feni	1981	0.08
Beanibazar	1981	1.43
Kamta	1982	0.17

천연가스의 개발은 석유수입의 대체를 위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5개년 개발계획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총에너지 수급량 신장율의 약 2배의 속도로 성장해 왔다. 개발된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 발전과 비료생산 등 국내에서 소비된다. 약 절반 가량이 전력부문에 사용되고, 그 밖에 비료생산(32.3%), 공업용(8.2%), 민간용(6.4%), 상업용(1.6%) 순으로 소비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소비패턴으로 볼 때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 공급은 약 2030년까지 국내 소요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 보면 우선 동부의 送配網은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천연가스 송배시스템의 확장을 위해 주로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지선배관망에, 세계은행이 기간배관망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Ashuganji를 기점으로 하여 Kishorganj, Net-

rakona, Serpur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Ashuganji와 Jalalabad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ADB, 세계은행 등의 원조하에 진행되고 있다.

〈表 II-16〉 天然가스 生産動向

(단위 : 백만 ft³)

	1988	1989	1990	1991	1992
Sylhet	4,384	3,513	2,389	2,016	1,896
Titas	60,126	70,248	78,235	82,158	91,967
Kailastila	6,089	7,037	7,785	8,261	7,335
Habiganj	34,111	32,380	29,763	27,660	28,195
Bakhrabad	38,799	41,127	48,423	51,540	52,961
Feni	0	0	0	0	5,940
Kamta	3,934	1,619	1,236	1,200	180
합 계	147,443	155,924	167,831	172,835	188,474

(2) 石 油

방글라데시는 내륙 및 해안지역에 상업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석유매장지를 갖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매장량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석유자원은 이제까지 유망시되어 오지 않았으나 1986년말 방글라데시 북동부에 위치한 Sylhet市 남부의 Haripur 가스田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된 이래 국내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매장량은 4,000만배럴로 추정되며 1990년도 생산량은 39만 4,000배럴에 불과, 석유자립도는 1~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석유자본과 생산분배 방식에 의한 광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자본만으로는 자원개발에 한계가 있고, 방글라데시의 독자적인 비효율적 자원탐사와 생산을 경험하였으므로 합작기업의 설립 등 국제석유자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는 철도를 통해 선적되어 Chittagong의 동부정유소

로 옮겨져 기타 수입된 석유와 함께 정제된다. 동부정유소는 하루에 약 34,000배럴의 석유를 정제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분은 연간 석유수입량의 0.8%에 불과, 방글라데시의 에너지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석유·가스·광물공사를 통해 Haripur 유전 주변 및 서부 방글라데시 일대에 대한 시추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석유탐사와 채취를 촉진시키기 위해 에너지 광물자원 장관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石 炭

석탄자원은 천연가스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부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석탄은 북서부에, 갈탄은 남서부에 주로 산재해 있다. 그러나 1차 에너지수급에 있어서 수입석탄의 비중이 2%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천연가스, 석유 등과 비교해 볼 때 경제성을 유지할 정도의 매장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지역에서 실질적인 상당한 매장량이 확인되었지만 개발 및 이용전망이 불투명하여 그 동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명확히 추정되는 석탄매장지로는 Jamalganj로서 약 1,000m의 깊이에 약 10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DB의 지원하에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인 석탄자원탐사를 통해 Dinajpur 지방의 Barapukuria에서 120~350m 지하의 역청탄전이 발견되었는데, 매장량은 3억톤으로 예상된다. 이 매장지는 영국의 원조에 의해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갈탄에 대해서는 서남부의 파리도만 및 Khulna에 1억 3,30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6억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수출액의 60%에 달하는 수입석유 상업용석유를 국산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산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상업용 에너지수급의 70% 가량을 차지함으로써 천연가스개발에 따라 석탄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부진한 상태이다. 천연가스개발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석탄자원의 이용증대를 위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나 인도로의 석탄수출 등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석탄광산은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동안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서부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電 力

방글라데시의 전력생산은 Chittagong 구릉지대의 수력발전설비 및 Chittagong과 방글라데시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몇몇 화력발전시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제기준으로 보아 가장 낮은 수준에 있지만, 설비출력은 1980년대를 통해 연평균 15%로 증가함으로써 그 성장속도는 경제성장율의 4배에 이르렀다. 1992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는 민간부문이 17.8%, 공업부문이 24.4%를 차지한 반면, 상업부문과 농업부문은 각각 7%, 1.4%에 불과하다.

〈表 II-17〉 電力生産과 消費

	(단위 : 백만 Kwh)				
	1988	1989	1990	1991	1992
발전설비출력(MW)	2,146	2,365	2,352	2,350	2,398
총생산량	6,541	7,115	7,732	8,270	8,890
〈부문별 소비〉					
민간용	885	1,044	1,165	1,384	1,070
상업용	391	531	380	425	421
공업용	1,843	2,331	2,504	2,256	1,471
농업용	63	95	74	91	85
기타 ¹⁾	590	694	582	714	2,974
손실량 ²⁾	2,769	2,420	3,027	3,400	2,869
총생산량대비(%)	42.3	34.0	39.1	41.1	32.3

주 : 1) DESA(Dhaka Electric Supply Authority) 및 REB(Rural Electrification Board)에의 판매 포함.

2) 발전소 보조사용 포함.

자료 :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賣電量의 증가율은 1980년대를 통해 연평균 9.3%의 신장세를 보여 수요 가구 1건당 연평균 매전전력량 증가율은 3.0%를 기록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못미쳐 방글라데시 경제는 전력설비 증강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송배전 손실의 문제인 바, 손실율이 거의 38%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송배전 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나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盜電 및 요금징수시 계측착오, 국영기업등의 요금 납부태만 등 기본적인 재무개념의 결여를 들 수 있다. 12% 전후를 기술적인 송배전 손실이라고 한다면 방글라데시 발전량의 25% 정도가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소비되는 셈이다. 이 송배전 손실을 방글라데시 電力公社(BPDB)의 재정곤란, 전략생산 투자를 위한 자원감소, 신규설비를 위한 내자부족,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 공급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력부문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력보급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세대수 기준으로 電化率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1대의 전력미터기로 2~3세대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전화율은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위생, 인구억제 등의 관점에서도 시급히 그 수준을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1) 農村電化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農村電化(Rural Electrification)는 美 AID의 원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농촌전화 이사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1977년 농촌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세계은행, ADB, 핀란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자금협력을 얻어 시행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1992년까지 전국의 40%에 해당되는 지역을 전화하고, 부락단위로는 전국의 50%에 해당되는 32,000개촌을 망라하고 있다.

농촌전화 실시체제는 1977년 설립된 農村電化理事會(REB)와 農村電化組合(PBS)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REB는 전력청에서 사온 전기를 PBS에 파는 일종의 전력도매 사업체이며, 이에 반해 PBS는 실질적인 전화설시기관 및 전력배전 사업체라 할 수 있다. REB는 PBS의 전화계획 실시에 있어서도 전화표준 설계를 철저히 하고, 조합경영의 감독 및 종합적 운영에 협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REB는 PBS시스템에 자금대여도 하며, 상임이사 외에 전력청, 농업개발공사, 가내공업공사, 농촌개발청 등의 이사에 의해 구성되어 농촌개발 노력과 전화계획이 상호 연관을 맺게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한편 PBS는 4개에서 6개의 Upazila로 구성되어 운영은 조합에 맡기고 있다. PBS의 경영목표는 무이익, 무결손으로서 경영실적은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REB는 전화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국토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배려도 고려하여 지역간 평등하게 전력화가 진전되고 있다. 농촌의 전력화는 경제생활 패턴을 급속히 바꿔놓고 있는데, 야간시장이 개장된다거나, 전기동력 펌프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表 II-18〉 農村電化 實績

	1987	1988	1989	1990	1991
농촌전화(촌락수)	892	1,468	1,443	1,385	1,382
전송선로(km)	103	48	98	—	46
배전선로(km)	3,941	7,476	5,634	6,660	6,247

2) 水力發電

방글라데시의 평탄한 지형조건으로 볼 때 극히 한정된 양의 발전용 매장수력이 국토의 남동부 일대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수력자원도 개발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발전설비가 공급가능한 수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9% 남짓에 불과하며, 환경보존 및 주민이전 문제 등 사회적 제약요건으로 개발의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傳統的 에너지

총에너지 수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 에너지는 주로 농업부문에서 나오는 농업 쓰레기 및 가축의 분뇨 등으로서 가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들 에너지는 석탄환산으로 약 1,00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그 구성은 먼저 곡식껍질이 석탄환산으로 260만톤, 벼짚 150만톤, 황마깍대개 44만톤 등이고, 그 밖에 소의 분뇨 190만톤, 건초 130만톤, 땔감 48만톤, 기타 사탕수수 껍질, 농업 쓰레기 등이다. 농업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용 쓰레기가 전통적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축의 분뇨는 20% 가량되나 땔감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향후 쌀의 증산에 따른 농업 쓰레기의 증가는 연간 60만톤, 땔감의 공급량은 4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의 수급에는 점차적으로 공급부족이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상업에너지에 의한 대체와 전통적 에너지의 연소효율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에너지의 80% 이상이 민간부문에 소비되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원조국들은 방글라데시의 장기적인 경제개발 전략에 맞춰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의 조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II-19〉 傳統的 에너지의 供給量¹⁾

(단위 : 천톤)

	1987	1988	1989	1990
소 의 분 뇨	1,807	1,927	1,866	1,898
황 마 깍 대 기	526	570	396	439
벼 짚	1,448	1,539	1,535	1,492
곡 식 껍 질	1,975	2,022	2,591	2,592
Bagasse	628	602	653	679
땔 감	475	475	425	475
건 초	1,270	1,270	1,325	1,325
기 타	1,056	1,056	1,096	1,096
합 계	9,185	9,461	9,887	9,996

주 : 1) 추정치임.

(6) 非에너지 鑛物資源

非에너지 광물자원으로는 석회암, 고령토, 암염, 유리사, 그리고 일부 중금속 광물 등이 있으나, 석회암과 고령토 외에는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석회암은 약 1억 4,50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도 생산량은 38,000여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석회암 광산으로는 Takerghat 광산을 들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시멘트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 Jaipurhat 석회암광산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령토는 Bijoypur 광산에서 유일하게 채굴되고 있는데, 1990년도 생산량은 7,200여톤을 기록하였다.

〈表 II-20〉 非에너지 鑛物資源 生産

(단위 : M톤)

	석 회 암	고 령 토
1986	22,082	2,695
1987	45,667	12,272
1988	32,933	10,097
1989	29,457	7,092
1990	38,008	7,223

다. 開發制約要因과 課題

(1) 開發制約 要因

에너지부문은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다음가는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되면서도 그 개발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부문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에너지정책과 그 실시수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 投資計劃의 不適合性

부문별 투자계획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과 소비에 관한 프로젝

트 상호간의 부적합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스생산 프로젝트, 송전 프로젝트, 전원개발 프로젝트, 送配 프로젝트 등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제까지의 투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생산시설만 있으면 소비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고, 또한 원조공여국 및 방글라데시 국내의 자금 제약 등으로 생산시설에만 집중하고 송배부문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능력은 증가하였지만 효과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각 생산 프로젝트의 수요예측의 안이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각 프로젝트 간 상호관계가 불명확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국간 원조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에 원조가 집중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政策實施手段의 不備

에너지 정책실시수단의 하나인 가격정책은 소비효율 향상, 에너지부문의 인적자원 축적, 자금의 유입촉진 등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체계하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개발정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실시해야 할 긴급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석유대체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천연가스 가격을 경제가격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政策優先順位の 問題

인구의 약 80%가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전통적 에너지 및 민생에너지의 수급문제에 관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5개년 개발계획에도 에너지 개발투자에 있어서 전통적 에너지 부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4) 에너지 關聯機關의 行政能力

에너지부문의 정책목표 및 수단간의 연계문제와 더불어 계획실시 주체, 즉 에너지관련 정부기관의 운영능력 및 체계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빈번한

인사이동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 투입재의 입수과정에서의 복잡한 수속 등은 에너지 관련기관의 프로젝트 운영능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국영기업체의 재정관념 결여도 운영능력을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地下資源의 탐사, 개발, 생산 및 공급을 방글라데시 石油·가스鑛物公社(BOGMC)가 관장하고 있는데, BOGMC는 부실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관련 제기관은 에너지 광물자원성의 감독하에 어느 정도의 독립 운영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정부의 세부적인 감독체계에 따라 오히려 그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체계에 더하여 에너지 관련 투자안전에 대한 결정과정의 복잡성도 한층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課 題

방글라데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목표로는 크게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과 농촌 에너지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천연가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수입석유의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에너지 가격체제를 정비하고, 에너지 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배전손실의 개선, 에너지 공급조직의 재정 건전화,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활용 등이 5개년 개발계획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의 민간기업의 활용은 외국 석유자본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국내 민간기업의 활용은 전통적 에너지의 대체, 석유대체로서의 LPG 및 LNG 보급문제 등에 대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합병촉진을 의도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체제의 개선은 소비효율의 향상 및 국내의 에너지관련 민간기업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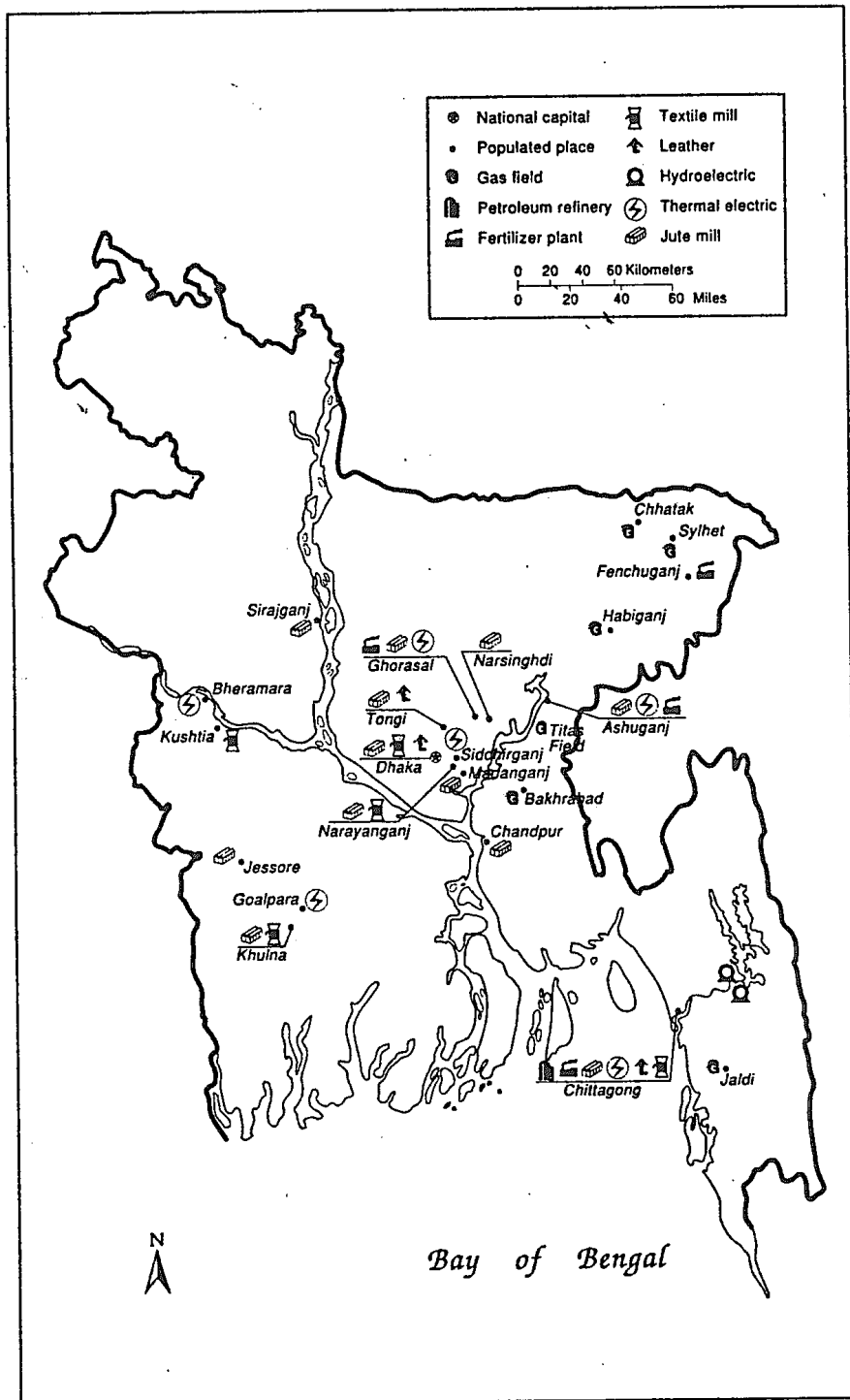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에너지에 의존해 왔던 에너지 수급구조에서 앞으로의 경제구조가 필요로 하는 양, 질, 에너지 효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상

업에너지 수급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 어떻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입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상업에너지의 부존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경제효율을 달성시키는가가 동부문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들고 있지만,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제발전략 및 정책실시 계획, 수단 등에 합리성이 보이지 않으며, 어떤 부문은 실시계획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정책실시수단, 투자계획의 합리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의 문제와 함께 계획실시의 주체, 즉 정부의 여러 에너지 관련기관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에너지 관련기관의 프로젝트 실시 및 운영능력, 재정적 개념의 결여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에너지부문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특이한 지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어 Brahmaputra江의 동부는 자연에너지의 근원인 천연가스에 의한 에너지 수급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서부는 수입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수급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는 천연가스의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개발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제로서는 천연가스가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투자 코스트가 높은 에너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집중 및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가스의 집중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II-4] 主要 에너지産業 分布



7. 輸 送

가. 概 要

방글라데시의 수송망은 Dhaka, Chittagong, Khulna의 세 도시를 축으로 하여 발달되어 왔다. 首都인 Dhaka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國內交通의 요충지이며, Chittagong은 연간 800만톤 가량의 貿易貨物을 취급하는 제1 국제항으로서, 그리고 Khulna는 제2국제항인 Mongla의 배후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세 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수송량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輸送網의 특징은 일반적인 수송수단인 도로, 철도 외에도 Padma, Jamuna, Teesta, Brahmaputra, Surma, Meghna, Karnaphuli 등 많은 江과 河川을 바탕으로 內陸水路가 중요한 수송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는 Jamuna江으로 인해 東西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직 이를 연결하는 水路나 鐵道가 건설되지 않아 양지역간의 수송은 수운에만 의존하고 있다. 輸送手段別 輸送量을 보면 貨物輸送에서 도로가 63.7%를 차지하고 있고 수로가 34.3%, 철도가 2.0%를 점유하고 있다. 鐵道輸送의 경우 그동안 수송량이 계속 감소되어 온 데 비해 水路의 수송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여 그 비중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表 II-21〉 輸送手段別 貨物輸送

(단위 : 천톤)

	1988	1989	1990	1991
철도	2,518	2,493	2,410	2,517
도로	75,259	79,359	81,045	81,102
조직부문	29,844	33,497	34,464	35,551
비조직부문	45,415	45,862	46,581	45,551
수로	36,958	39,442	41,441	43,562
조직부문	6,223	7,394	8,531	8,665
비조직부문	30,735	32,048	32,910	34,897
항공	2	2	2	2
합계	114,737	121,296	124,898	127,183

나. 分野別 現況

(1) 道 路

방글라데시 道路의 특징은 많은 江으로 분할된 지역에 교량이 건설되지 않아 선편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송시간은 교통상황이나 날씨에 크게 좌우되며, 船舶의 낙후 및 용량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수송은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데 약 14만대에 이르는 각종 수송수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國營 방글라데시 도로수송공사도 버스 등 승객수송용 452대, 화물수송트럭 250대를 보유하여 도로수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의 총연장은 지방행정단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까지 포함할 경우 14만 2,000km이나, 중앙정부의 道路局에 의해 국도, 지방도로, 지역도로, Upazila 연결도로의 4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로는 11,902km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국도와 지방도로가 간선도로망을 형성하여 Dhaka를 중심으로 국제항, 지방행정중심지, 주요 내륙항 등을 연결하고 있다.

〈表 II-22〉 道路鋪裝 現況

(단위 : km)

	포 장	부분포장	비포장	합 계
국 도	2,779	63	58	2,900
지 방 도	1,185	128	37	1,350
지 역 도	1,432	559	917	2,908
Upazila 연 결 도	1,472	1,258	2,014	4,744
합 계	6,868	2,008	3,026	11,902

(2) 鐵 道

철도의 총길이는 2,791km로서 대부분의 주요도시 및 지방행정 중심지를 연결하고 있다. 철도는 Jamuna江으로 인해 동부철도와 서부철도로 분리되

어 있는데 동부철도는 총연장 1,822km이며 Dhaka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Comilla, Noakhali, Chittagong, 북으로는 Jamalpur, Mymensingh, Sylhet 등과 연결된다. 서부철도는 총연장 969km로서 Pabna를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는 Kushtia, Jessore, Khulna, 북으로는 Rajshahi, Saidpur, Dinajpur, Rangpur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동서간 분리와 함께 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미터軌(궤간 1,000mm)와 橫軌(궤간 1,676mm)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부철도는 모두 미터궤로 부설되어 있으나, 서부철도는 횡궤 중심에 부분적으로 미터궤가 연결되어 있다.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역시 밀, 비료, 쌀, 황마 등의 수송을 철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1991년도의 경우 수송 중량비중이 밀 22.7%, 비료 9.9%, 쌀 13.7%로서 세 품목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表 II-23〉 主要 品目別 鐵道輸送量

(단위 : 천톤)

	1988	1989	1990	1991
쌀	185	192	186	345
밀	643	628	471	571
황 마	143	133	113	79
석 탄	72	69	99	74
시 멘 트	83	91	132	114
비 료	362	457	408	248
총 계	2,518	2,493	2,410	2,517

(3) 內陸水路

방글라데시 국토는 10% 가량이 강으로 되어 있어 내륙수로는 과거부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간주되어 있다. 내륙수로의 총연장은 전기에 약

3,800km, 몬순기에 4,200km 가량이며 홍수 등으로 수량이 많아질 경우 8,400km까지 증가한다. 수로망은 북서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전역에 걸쳐 연결되어 장거리 대량수송에 매우 유리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송비가 가장 저렴하여 도로교통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로수송은 방글라데시 內陸水運公社(BIWTC)가 운영하는 공식부문과 중소민간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총선박은 약 25만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IWTC의 주요 항로로는 Aricha航路(Aricha-Nagarbari, Aricha-Dualatdia), Serajganj航路(Serajganj-Bhuapur), Feringeebazar航路(Feringeebazar-Charpatharghata)가 있으며, 주요 內陸港口는 Dhaka, Narayanganj, Chandpur, Barisal, Khulna, Aricha, Goalano, Nagarbari, Serajganjghat, Jagannathganjghat, Bhairab Bazar, Bahadurabad, Fulcharighat 등이다. 그 중 Dhaka · Narayanganj, Chittagong, Khulna · Mongla의 3대 도시권을 연결하는 수로운송이 전체의 48%를 점하고 있다.

〈表 II-24〉 BIWTC의 輸送現況

	여 객 선		페 리		화 물 선
	여객(천명)	화물(천톤)	여객(천명)	화물(톤)	화물(천톤)
1988	736	24	4,322	578	759
1989	714	26	5,109	575	612
1990	714	23	5,689	367	508
1991	680	20	5,814	1,000	310

(4) 航空 · 港灣

국제항공은 국영 Bangladesh Biman을 비롯한 14개 국내외 항공사에 의해 런던, 방콕, 싱가포르 등 28개 해외도시와 연결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은 Bangladesh Biman이 수도 Dhaka를 비롯한 4개 공항(Zia국제공항, Chittagong, Usmani, Jessore)과 3개 비행장(Rajshahi, Saidpur, Cox's Bazar)을

취향하고 있다.

항만부문을 보면 Chittagong港과 Mongla港의 두 국제항이 외국의 주요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Chittagong港은 市중심지로부터 약 8.5km, 벵갈만으로부터 13km 상에 인접해 있는 방글라데시 제1의 국제항으로서 456~600ft 길이의 부두가 17개 있으며, 이 중 13개 부두는 기중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철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각 부두에는 약 610ft(LOA)용량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총창고용량은 97,000MT 정도이다. 제2의 국제항인 Mongla港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3의 수출가공지대를 조성하려는 Khulna로부터 46km 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21만 1,000ft²의 창고시설과 28만 6,000ft²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다. 현재 5개의 부두를 갖고 있으며 수출가공지대 건설에 대비해 시설을 더욱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다. 輸送體系의 問題點

(1) 道 路

1) 管理體系

MOC는 도로 및 도로수송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MOC 밑에 RRT가 있고, 그 밑에 RHD가 있어 국도, 지역간 간선도로, 교량건설 및 관리, 페리운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제2급 국도와 지선도로에 관해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행정의 조직과 권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계획입안 및 실시 측면에서 능력부족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2) 整備動向

방글라데시의 자연지리조건은 도로망 정비에 있어서 극도로 불리하며, 거대한 하천이 도로망을 절단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량건설이 불가피하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도로체계는 역사적으로 캘커타를 중

심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방글라데시 중심의 완결된 도로체계 정비는 이 부분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는 교량건설의 추진, Upazila간 연결도로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Upazila의 주축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체계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한편 Dhaka-Chittagong 순환도로의 완성은 이 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서 찬디나 및 코밀라의 우회도로의 완성(24km)은 순환도로의 혼잡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크로나-몽그라브간 도로의 완성(36km)은 Mongla港이 방글라데시의 2번째 큰 항만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도로건설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기술의 낙후, 교량건설기술의 부족, 도로보수용 기계류와 그 정기적인 보수계획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갈이나 돌 등 건축자재가 풍부하지 않은 관계로 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보수유지를 위한 자재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도로건설 비용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道路交通

도로교통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적인 교통기관인 버스나 트럭에 의한 수송과 인력거나 우마차에 의한 전통적인 교통기관이 혼재하여 도시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근대적인 교통기관인 passenger-km의 60%, ton-km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교통체계에서 근대적인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전환 정책, 기술재훈련 정책 및 자동차기기 조립생산에 관한 공업정책 등 상호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트럭의 경우에는 98%를, 버스의 경우에는 94%를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바, 차체의 노후, 유지보수 기술의 부족, 과적, 차량검사제도의 불비 등 도로교통에 관한 기술 및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운임이나 요

금에 대한 규제가 강해서 버스나 트럭의 과적이 자주 발생하며 민간부분의 육성을 위해서는 운용비용을 반영한 운임정책의 도입이 불가결하며 부품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나 신용공여 등 세제면에서의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공공부문은 방글라데시 道路輸送公社(BRTC)만이 있으며 Dhaka 및 Chittagong 시내의 버스교통이나 트럭수송, 소수의 도시간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역시 경영관리가 원활치 않으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품이나 기술자 부족으로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적어 가동율은 버스가 68%, 트럭이 54%에 머무르고 있다. 차량보수를 위한 개선조치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haka의 도로수송은 버스의 수송능력이 부족하여 인력거가 주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인력거, 우차 등 전통적 교통수단을 도시에서 배제하려는 의견도 있으나, 이들의 수송부문에서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18만대나 되는 인력거에 의한 수송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것으로서 중요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도시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고용전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통규칙, 신호, 운전면허제도 등 내용면에서의 교통관리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鐵 道

철도행정은 국영 방글라데시 鐵道(BR)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철로망은 원래 캘커타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된 것이며, 하천의 度船問題도 있어 도로와 같이 일원화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바다에 면한 항만은 Chittagong港뿐으로 Dhaka와 Chittagong을 연결하는 노선에 수입화물의 수송수요가 집중하고 있으나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송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BR은 동부노선이 총연장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부노선은 모두 횡계 중심인데 비해 동부노선은 미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터계는 총연장으로 볼 때 횡계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화물수송의 중심지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Chittagong港으로부터의 수입량에 의해 좌우된다. 화물수송의 지역적 분포로 보면 수송 톤수로는 동부와 서부가 그다지 격차가 없으나 평균적 수송거리로 보면 동부가 장거리 ton-km로 서부의 1.6배 정도이다. 이는 동부 Chittagong-Dhaka간 수송이 화물수송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BR은 국유철도로서 식량, 비료, 황마, 시멘트, 석회, 철강, 돌, 석유, 소금, 설탕 등 필수품을 매우 낮은 운임으로 우선적으로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저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수송과의 경쟁 결과, BR의 수송 톤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화물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여객수송의 감소도 또한 총수입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BR은 대폭적인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BR의 경영효율을 높여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운행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거리 화물수송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물수송은 그 수익율로 볼 때 도로수송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장거리 화물수송시장 개척이 요망된다. 여객수송의 경우에는 이미 총여객수송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간 수송이 여객수입의 34%를 차지하고 있듯이 향후 도시간 수송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송비를 반영한 요금체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BR의 대규모 프로젝트중 하나는 Jamuna橋의 철도공용화 사업이다. 그러나 Jamuna橋 철도공용화 사업효과의 대부분은 북서부의 농업개발 및 에너지·자원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 가능성과 BR의 운영관리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BR의 또 하나의 큰 개발프로젝트는 Dhaka-Chittagong간 컨테이너수송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의 경제성은 철도화물수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Chittagong港의 하역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內陸水運廳도 컨테이너수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Narayanganj港의 컨테이너 터미널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양자간 경합관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내륙수운의 경우 준설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BR이 적극적으로 컨테이너수송에 돌입하면 Dhaka-Chittagong 간 순환교통지역이 발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3) 水運 및 海運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2개의 外洋港과 내륙부의 많은 하천항을 연결하는 수운은 지금까지 가장 값싼 교통수송수단으로서 발전해 왔다. 특히 여객수송의 경우 타 교통수단을 압도하고 있으나, 주요 강·하천에서의 토사의 누적과 관개로 인해 운항가능한 水路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내륙수운은 특히 지방의 경제개발에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항만의 건설 및 관리, 수로의 확보, 운행상 안정성의 확보,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內陸水運廳(IWT)을 설립, 내륙수운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하천항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여전히 교통부문중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IWT의 화물수송의 85%는 Chittagong-Narayanganj-Dhaka, Mongla-Narayanganj-Dhaka간 수송이 차지하고 있다. 수송되는 화물은 주로 수출입품이며 식량, 시멘트, POL, 비료, 황마 및 황마제품, 철강, 기타 일반화물 등이다. 나머지 15%는 모래, 돌, 쌀, 비료, 황마, 소금 등 국내용화물이며, 이는 Dhaka-Narayanganj 및 몇몇 지방도시를 잇는 항로에 집중되어 있다.

내륙수운을 위한 과제로는 상류지역의 수심얕은 곳을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의 확보와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특히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IWT는 현저히 노후된 하천조사선, 준설선의 교체, 선박수리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컨테이너수송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하천항에는 컨테이너시설이 전혀 없는데 하천수송을 통해 어떤

지점까지 컨테이너를 수송할 것인가가 내륙수운개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종래 내륙수운청에서는 가능한 한 민간부문을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방글라데시 內陸水運公社(IWTC)의 확대를 억제해 왔다. 지금까지 IWTC는 600척의 선박으로 화물수송의 50%를 수송하였으며 지역간 여객수송의 10%를 담당해 왔다. 여객수는 값싼 운임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나 화물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다. IWTC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매우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유지보수 기술을 포함,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기술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수송화물량 자체의 감소 및 민간과의 경쟁에 의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海運部門에서는 공사와 민간기업의 공존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수출입화물의 약 40%를 방글라데시 국적선박이 취급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海運公社(BSC) 보유선박은 감소경향에 있으나 민간기업의 보유선박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BSC 선박은 취급화물량에서 해상화물수송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4) 航 空

제2차 5개년 계획기에 건설된 이후 Zia國際空港은 연간 350만명과 6만3,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Chittagong, Sylhet는 Zia공항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8년 홍수시 이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침수하여 사용불능이 된 적이 있었다. Chittagong공항은 재해시 해외로부터 공수되는 식량이나 의약품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공항인데 활주로 뿐만 아니라 국제노선 발착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 격납고, 훈련시설 등의 건설이 시급하다.

(5) 港 灣

방글라데시에서는 Chittagong港과 Mongla港이 가장 중요한 항구이다. 특

히 Chittagong港은 흉작이나 수해시 원조식량을 수입하는 항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Mongla港은 방글라데시 제2의 항만이며 수출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수입항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hittagong港의 하역능력 부족과 북부·서부지역 개발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Mongla港이 중요한 남부지역의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마 및 황마제품의 대부분은 Mongla港에서 수출되는데 비해 Chittagong港은 일반화물과 황마제품, 차, 피혁 등이 수출품목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Mongla港에서는 새우가 수출되고 있는게 특징이다. Chittagong港은 수입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항만능력의 부족으로 해외로부터의 원조물자조차 장기보관이 힘든 형편이다. 이 문제는 내륙의 수송능력 및 보관창고 부족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입식량의 하역이 우선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출관련 하역이 연기되어 수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Chittagong 港灣廳(CPA)이 관리하고 있는 Chittagong港과 관련된 가장 큰 프로젝트는 준설 및 컨테이너 하역설비의 확충·정비계획이다. Chittagong 丘陵地帶 개발에 따라 Chittagong港의 침수현상이 현저해 지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수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hittagong의 컨테이너 하역시설 부족이 심각해 지고 있다.

〈表 II-25〉 Chittagong港과 Mongla港의 現況

	1987/88	1988/89	1989/90	1990/91
수입(천톤)				
Chittagong	7,109	7,122	6,800	6,283
Mongla	2,228	1,882	1,891	1,905
수출(천톤)				
Chittagong	635	835	671	926
Mongla	626	637	695	556
주요수출품(톤)				
Chittagong				
황 마	80	—	1,806	—
황마제품	118,942	90,270	77,839	—
차	22,661	5,330	16,932	—
Mongla				
황 마	246,844	270,991	318,933	—
황마새우	353,022	342,151	362,970	—
새 우	8,037	—	10,204	—

III. 開發援助 現況分析

1. 概 要

방글라데시에 대한 대외원조는 거의 전부가 政府開發援助(ODA)형태로서 支出純額(ODA Net)기준으로 볼때 총 21억 310만달러(1990년 기준)에 달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公共資金(OOF)은 1,970만달러에 불과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ODA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요인은 방글라데시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UN 등 국제기관에 의해 세계최대의 最貧國(LLDC, MSAC)¹⁾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주요 ODA공여대상국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의 주요 공여국으로는 DAC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있다. 1990년도 기준으로 DAC회원국들은 총 11억 300만달러를 제공하여 전체 ODA규모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開發銀行(ADB), 國際開發協會(IDA), 世界食糧計劃(WFP)등 국제기구들에 의한 다자간 협력은 총 10억 460만달러에 달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DAC회원국들에게 GNP대비 0.15%규모의 ODA를 최빈국에 공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DAC 회원국 대다수 및 ADB, IDA 등 국제기구는 방글라데시를 가장 중요한 원조공여대상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 밖에 200여개에 달하는 국제 및 국내 NGO가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에 의해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DAC회원국중 對방글라데시 최대 ODA공여국(1991년 기준)은 미국으로

1) LLDC(Least among Less Developed Countries): 개도국중 특히 개발이 늦은 국가들로서 제46차 UN총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LLDC 인정기준에 따라 93. 9. 현재 47개국에 이르고 있다.

MSAC(Most Seriously Affected Countries): 오일쇼크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나라들.

서 대방글라데시 ODA공여액은 1억 2,900만달러에 달해 DAC회원국의 총 원조규모 8억 1,090만달러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까지 총 원조규모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대 ODA공여국을 유지하던 일본은 1991년부터 원조규모가 급감, 1억 1,500만달러를 제공하여 전체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은 9,800만달러를 제공하여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독일, 캐나다 순으로 대방글라데시 원조가 공여되고 있다.

2. ODA 構成

ODA의 공여형태는 증여와 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0년 방글라데시가 받은 총 ODA중 증여와 차관은 각각 10억 5,710만달러, 10억 4,290만달러로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DAC회원국의 ODA중 74%인 8억 1,850만달러는 증여형태로 공여된 것이고, 나머지 26%인 2억 8,460만달러는 차관형태로 공여된 것으로서 대부분의 DAC회원국이 증여형태로 공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기구에 의한 ODA 경우는 차관이 7억 6,290만달러로 76%에 달해 차관형태의 공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방글라데시 ODA중 기술협력은 총 2억 3,900만달러로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공여그룹별로 구분하면 DAC회원국이 공여하는 ODA에서 차지하는 기술협력은 15%에 이르는데 반해,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ODA에서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에 공여되는 ODA는 증여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고, 차관의 경우에도 상품차관이 매우 양허적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받은 전체 ODA의 증여율은 1989년의 경우 89.1%에 달한다. 이를 공여그룹별로 보면, DAC회원국 ODA의 평균증여율은 94.3%, 국제기구 ODA의 평균 증여율은 83.5%에 이르고 있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대외원조는 1980-87년간 연평균 국내투자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같은 기간 중 평균적으로 GDP의 9.1%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제4차 5개년 개발계획 예산의 52%를 대외원조에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어 방글라데시 경제의 원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公共開發基金(ODF)의 공여공약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여대상부문별 현황을 보면 경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여가 전체의 44%(1989년 기준)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에너지부문의 비중이 30%에 달한다. 이와 같이 경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여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재정기구 등의 프로그램원조가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원조공여 방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과거에는 재정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탈피하여 성장애로 부문에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타 중요한 공여 대상부문으로는 생산부문과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으로서 공여비중은 각각 19%와 10%에 달한다.

〈表 III-1〉 對방글라데시 援助現況

(단위 : 백만달러)

	DAC회원국		국제기구		아랍국		총 계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ODA	972.3	1103.0	843.7	1004.6	-15.2	-4.6	1800.8	2103.1
차 관	227.7	284.6	603.1	762.9	-16.1	-4.6	814.8	1042.9
증 여	744.6	818.5	240.5	238.6	0.9	—	986.1	1057.1
(증여율,%)	(94.3)	(—)	(83.5)	(—)	(55.6)	(—)	(89.1)	(—)
(기술협력)	(140.6)	(165.2)	(73.0)	(73.8)	(—)	(—)	(213.6)	(239.0)
OOF	17.1	21.9	-4.2	-2.2	3.0	—	15.9	19.7
총 계	989.4	1124.9	839.5	1002.4	-12.2	-4.6	1816.7	2122.8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1992)

〈表 III-2〉 DAC 會員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7	1988	1989	1990
호 주	8.4	11.2	29.0	11.6
오스트리아	0.2	0.7	0.8	1.4
벨기에	5.2	3.5	0.1	9.9
캐나다	102.0	117.0	73.2	102.3
덴마크	27.5	33.8	38.7	54.1
핀란드	2.7	18.1	14.6	12.4
프랑스	30.2	21.5	24.2	41.5
독일	66.1	57.4	62.3	77.3
아일랜드	0.2	0.4	0.2	0.1
이탈리아	4.1	0.2	2.0	1.4
일본	334.2	342.0	370.6	373.6
네덜란드	67.0	71.8	65.9	71.5
뉴질랜드	0.1	0.1	0.1	0.0
노르웨이	33.2	36.2	33.6	43.9
스웨덴	41.8	17.3	23.3	26.2
스위스	2.3	6.6	10.4	9.5
영국	55.7	73.2	85.2	97.3
미국	146.0	120.0	138.0	169.0
합계	926.7	930.9	972.3	1103.0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표 III-1〉과 동일

3. 兩國間 援助

가. 日 本

(1) 援助額 推移

일본의 對방글라데시 원조는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1971년에 증여에 의한 식량원조가 개시된 이래 円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등 각 형태별로 순조롭게 증가되어 왔다.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누계액(1971~92년)은 지출순액 기준으로 총 34억 1,000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일본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이 주관하는 차관은 총 19억 9,940만달러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여는 총 14억 1,070만달러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에서 차지하는 기술협력의 비중은 1억 8,050만달러로 12.8%(ODA 총액대비 5%)에 불과한 반면, 무상자금협력의 비중은 12억 3,000만달러로 87.2%(ODA 총액대비 36%)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원조의 특징은 타 주요 원조공여국에 비해 ODA에서 차지하는 증여의 비율과 이에 따른 기술협력의 비중이 낮고, 증여율도 8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증여의 비율은 1970년대에 25%, 1980년대에 35%수준으로 점차 증가되어 왔으나, 1990년까지 円차관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1992년 현재 방글라데시는 일본이 공여하는 ODA 수혜국가중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자금협력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表 Ⅲ-3〉 日本の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누계(1971~92)
ODA 총 액	342.0	370.6	373.6	115.0	163.4	3,410.1
차 관	208.2	218.3	221.9	-29.5	-28.6	1,999.4
증 여	133.7	152.3	151.6	144.5	192.0	1,410.7
(증여율,%)	(81.0)	(85.0)	(-)	(-)	(-)	(-)
(기술협력)	(15.0)	(16.7)	(20.0)	(22.1)	(28.5)	(180.5)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日외무성, 아국의 정부개발원조(1993)

(2) 援助方針

일본은 방글라데시와의 전통적 우호관계속에 同國이 최빈국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대방글라데시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對방글라데시 원조방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점분야를 들고 있다.

첫째,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반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위한 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의 확충에 주력한다.

둘째, 농촌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는데, 농촌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기술보급, 조합강화, 유통센터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세째, 홍수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세계은행의 ‘洪水行動計劃’에 따른 협력을 실시한다.

네째, 인적자원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으로서 방글라데시의 中期教育計劃의 실시를 위해 기술협력을 통한 지원을 한다.

다섯째, 기초생활분야에 대한 협력으로서 소규모 무상원조나 NGO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조를 실시하며, 방글라데시의 정책에 기초한 인구억제에 관한 협력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방침은 지난 1989년 4월부터 日本 國際協力事業團(JICA)이 ‘방글라데시 국별원조연구회’를 설치하여 同國의 경제 및 同國에 대한 원조의 향후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온 성과를 참고로 하여 1990년 4월에 파견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종합조사단이 원조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제반 문제, 향후 원조의 중점분야 및 지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게 의견교환을 실시한 결과,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3) 無償資金協力

1971년 식량원조로 시작된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무상자금협력은 1992년 12월 현재 누계액으로 총 2,168억 1,900만엔(교환공문 기준, 긴급재해원조

제외)에 달하고 있다. 이중 일반무상협력은 760억 4,100만엔(35.1%), 채무구제 무상협력은 713억 6,700만엔(32.9%), 수산무상협력은 28억 800만엔(1.3%), 문화무상협력은 3억 3,500만엔(0.2%), 식량원조는 406억 1,400만엔(18.7%), 식량증산원조는 256억 1,000만엔(11.8%)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무상자금협력은 농업개발, 농업생산확대, 보건·의료수준 향상,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왔다. 방글라데시는 1984년 이래 규모면에서 일본의 무상자금협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보통 차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무상자금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량건설, 관개시설건설, 상하수도시설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보통 3~5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안전으로서 여러해에 걸쳐 원조자금이 공여되도록 하고 있다.

대방글라데시 무상자금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채무구제를 위한 무상자금협력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채무변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발도상국을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 원조공여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과거의 양국간 ODA조건의 조정 등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1978년의 UN貿易開發會議(UNCTAD)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해 1977년 이전의 차관에 따른 채무의 원금변제액을 무상으로 재공여하도록 결정하였다. 더우기 1988년의 토론토 정상회담에서는 1978~87년에 걸친 채무도 구제조치의 대상으로 하도록 합의됨으로써 대방글라데시 차관비중이 높은 일본의 ODA에서 차지하는 채무구제 원조금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식량원조, 관개시설정비(일반무상협력)등 방글라데시 국민의 식량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이외에 최근에는 홍수대책을 위한 협력으로서 '기상용 마이크로 웨이브網 정비계획'(1992), 'Meghna江 제방보호대책계획'

(1992), 'Dhaka市 배수시설정비계획'(1989~92) 등에 대한 원조가 실시되었다.

〈表 III-4〉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無償資金協力

(단위 : 백만円)

	1989	1990	1991	1992 ¹⁾	누 계 ²⁾
무 상 협 력 총 액	15,403	16,853	16,746	22,530	216,819
일 반 무 상 협 력	4,331	5,212	2,858	6,723	76,041
수 산 무 상 협 력	—	—	652	692	2,808
문 화 무 상 협 력	38	—	50	47	335
KR 식 량 원 조	1,300	1,300	1,500	1,400	40,614
식 량 증 산 원 조	400	—	—	—	25,610
채 무 구 제 무 상 협 력	9,319	10,330	11,673	13,663	71,367
소 규모 무 상 자 금 협 력	15	11	13	5	44

주 : 1) 1992. 4~12.

2) 긴급재해원조 제외

자료 : 日통산성, 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1993)

(4) 有償資金協力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유상자금협력은 방글라데시의 구조적인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회에 걸친 상품차관이 공여되었다. 1992년 12월 현재 대방글라데시 유상 자금협력의 누계총액은 5,000억 9,800만엔(교환공문 기준)이며, 이중 프로젝트 차관은 1,999억 1,300만엔(40%), 상품차관은 2,621억 1,000만엔(52.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프로젝트 차관의 경우 'Sylhet 화력발전소 건설계획'(1987, 81억 7,000만円) 'Sylhet 비료공장건설사업'(1988~89, 324억円)등 에너지, 광공업, 통신분야에 많이 공여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세계은행의 에너지부문 구조조정차관(ESAC)과 Co-financing을 통해 38억円을 공여하였으며, 1991년에는 사이클론 재해부흥 긴급상품차관을 공

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방글라데시 유상자금협력의 특징으로서는 상품차관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전력·에너지부문, 광공업부문 등에 많이 지원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업 플랜트의 경우는 기존시설의 개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表 Ⅲ-5〉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有償資金協力

(단위 : 백만円)

	1989	1990	1991	1992	누 계
유 상 협 력 총 액	27,500	31,241	12,200	—	500,098
프 로 젝 트 차 관	18,500	23,241	12,200	—	199,913
상 품 차 관	9,000	8,000	—	—	262,110
쌀 연 불 수 출	—	—	—	—	38,075

자료 : 〈표 Ⅲ-4〉와 동일

(5) 技術協力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기술협력은 주로 행정, 농업, 수송·통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연수생초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1992년까지의 누계로 연수생은 1,842명이 초청되었으며, 전문가 564명, 조사단 1,742명의 파견이 실시되었다. 한편 기자개 공여액은 36억 8,290만円에 달하며, 개발조사는 40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파견은 농업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절반이 넘게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이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을 위한 파견이었다. 단순한 전문가 파견수는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수에 비해 적으나 농촌개발연구, 토양비료연구, 차량정비, 벼식재배, 상수도 분야 등에 파견되어 방글라데시 정부기관내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表 Ⅲ-6〉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技術協力

(단위 : 명)

	사업기관	1989	1990	1991	누 계	주 요 분 야
연 수 생	JICA	132	111	129	1,768	공업, 행정, 농업
초 청	APO	12	22	29	146	경영관리, 기술, 행정, 환경보전
	UNIDO	—	—	2	10	공업
	AOTS	10	36	25	426	자동차, 산업기계, 화학
	OISCA	23	18	8	294	농업, 토목, 양계
	ILO	1	1	—	31	수출기계
	ACCU	1	1	1	22	출판
	OFCF	5	4	2	25	어업
전 문 가	JICA					
과 견	전문가	28	23	88	534	농업, 보건의료, 통신 · 방송
	조사단	149	160	166	1,565	농업, 사회기반, 운수교통
	협력대	42	24	53	467	농업, 공업, 과학 · 문화
	APO	1	3	—	6	공업 서비스
	JODC	3	2	—	15	섬유, 식료품, 요업 · 土石
	OISCA	12	10	10	125	농업, 교육

주 : 1992. 3 현재

자료 : 〈표 Ⅲ-4〉와 동일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은 1992년까지 농업분야 6건, 보건 · 의료분야 3건 등 총 9건의 협력을 실시하였다. 농업분야의 협력은 東파키스탄 시대의 1960년부터 시작된 농업훈련센터 프로젝트 이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인원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보건분야의 협력은 1979~86년까지 실시된 순환기질환 연구소의 임상기술 등 의학교육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 받아 그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예방활동과 연계된 의료보건 체계의 구축을 위해 1988~92년까지 류마치성 심질환억제 파이로트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表 Ⅲ-7〉 技術協力方式 프로젝트

사업구분	프로젝트명	기간
보건의료협력	류마치熱・류마치성 심질환억제 파이로트	1988~92
농림수산협력	농업대학원계획 II	1990~95
기자재공여	도작토양비료 연구기자재	1991
개발조사	모델 농촌개발계획 II	1989~91
	북서지역 홍수방어・폐수계획	1990~92
	Dhaka 수도권 홍수방어・우수폐수계획	1990~92
	크리그람 남부관개배수계획	1990~92
	국토축지기준점망 정비계획	1990~93
	사이클론 쉼터 건설계획	1991~93

자료: 〈표 Ⅲ-4〉와 동일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원조에서 차지하는 기술협력의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서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요청내용과 일본의 원조실시체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즉 방글라데시 정부가 요청하는 해당분야에 적합한 전문가의 선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다수의 전문가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의 학위, 학력 등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것도 전문가 파견수의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정부내의 예산처리가 당초의 계획 및 합의한 대로 실시되는 경우가 적고, 일본에서 송부한 기자재의 무관세 통관수속,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원고용 및 배치, 프로젝트 운영경비 지출 등이 약속한 대로 실행되지 않는 결과,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 青年海外協力隊(JOCV)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본 청년해외협력대의 파견은 1973년에 체결된 파견협정에 따라 동년 8월, 3명의 隊員이 농업개량 보급원 양성소에 파견된 이래 1992년까지 총 506명이 파견되었다. 최초로 협력대 파견이 실현된 것은

東파키스탄시대에 Comilla에 파견되었던 농업전문가의 활동이 높이 평가되었던 것으로서 공식적인 파견이 실현된 이후 농업관련 협력대원의 수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수리·토목건축 등의 공업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파견활동 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대대원이 동일지역에 파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규파견에 의해 파견활동지역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東파키스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침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봉사단원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였으나, 협력대의 경우는 기술을 지닌 실무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로서 소위 Junior Expert라는 형태로 파견하는 것으로 되었다. 현재 150여개에 달하는 봉사단체 가운데 협력대와 UNV만이 대장성 주관하에 두어 사회복지성 주관의 기타 봉사단체와 구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일본의 연 20~30명의 협력대원 파견실적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파견요청을 매년 해오고 있다. 농업·수산업부문, 특히 야채·양식 등의 지도부문에 대한 요청이 많으나, 일본 국내의 지원자가 적고 기술적 부적합성으로 인해 충분히 파견요청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문성이 크게 중시되지 않는 분야(야채, 수공예 등)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양식, 염색, 가정, 부인·아동의류 등)에 파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美 國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정치적 측면에서 서남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며, 경제의 시장·메카니즘 역할의 강화와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인구증가율 억제, ②농업생산성 향상, ③고용기회 확대 등에 원조의 중점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美國제개발청(USAID)은 매 5년마다 開發戰略計

劃(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을 작성하고 중점협력분야로서 인구·보건(가족 계획, 소아보건 대책), 농림업(품종개량, 조림사업, 비료공급 개선사업, 식량원조, 농촌전화), 인적자원개발(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진흥(민간기업 활성화 사업, 금융제도 개혁대책)등 여러 분야에 걸쳐 원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량원조에 따른 매각으로 되돌아온 자금을 활용하여 식량자급달성을 목표로 하는 농업개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80~90%는 차관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원조규모는 1985년 이래 하향추세의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여 1991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간 원조에 있어서 일본을 제치고 최대 ODA공여국이 되었다.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누계액(1971~90년)은 29억4,100만달러로서 대방글라데시 양국간 원조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이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2%(ODA 총액대비 22.2%)로서 타 주요 원조공여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表 III-8〉 美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누계(1971~90)
ODA 총 액	146.0	146.0	120.0	138.0	169.0	2,941.0
차 관	3.0	15.0	36.0	5.0	30.0	851.0
증 여	143.0	131.0	84.0	133.0	139.0	2,090.0
(증여율, %)	(94.8)	(97.6)	(92.7)	(98.6)	(—)	(—)
(기술협력)	(45.0)	(29.0)	(35.0)	(48.0)	(58.0)	(653.0)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각년판)

다. 카나다

캐나다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최빈국의 경제개발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지 향상이라는 두가지 기본정책을 두고, 방글라데시를 최대 원조대상국으로 간주, 주로 증여를 중심으로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의 대외원조 담당기관인 國際開發廳(CIDA)은 5년간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방글라데시 정부와 원조 프로그램 검토를 실시한다. 지원방법으로는 ~~식량~~원조에 따른 매각 반환자금을 활용한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 빈곤대책 사업 등의 농촌지원 활동과 직접원조에 따른 프로젝트에의 기차재 공여 등이 있다. 분야별 원조내역으로는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비료제조 등의 제조업, 천연가스·전력개발 등의 에너지부문, 인구억제·가족계획·빈곤대책 등의 사회복지부문 등이 중점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철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타 농업, 수리부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NGO 원조국회의 등을 통해 NGO에 의한 협력에 주력하고 있는데 자금원조는 주로 ①방글라데시 정부, ②BRAC 등 대규모 NGO, ③캐나다 기금, ④캐나다 NGO, ⑤제3국 NGO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BRAC 등의 대규모 NGO에는 500~1,000만 캐나다 달러의 원조액이 공여되며, 캐나다 기금은 중소규모 NGO에 매월 5만달러를 한도로 총액 50만달러를 공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누계액(1971~90년)은 13억 3,950만달러로서 대방글라데시 양국간 원조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여총액은 미국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기술협력의 비율은 1.8%에 불과해 매우 낮은 편이다.

〈表 III-9〉 캐나다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누계(1971~90)
ODA 총액	71.1	102.0	117.0	73.2	102.3	1,339.5
차관	—	—	—	—	—	-3.6
증여	71.1	102.0	117.0	73.2	102.3	1,342.9
(증여율, %)	(100.0)	(100.0)	(100.0)	(100.0)	(—)	(—)
(기술협력)	(—)	(—)	(5.3)	(3.8)	(7.3)	(24.1)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표 III-8〉과 동일

라. 獨 逸

독일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전력 등 에너지 개발과 인구억제에 중점을 두고,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자금 및 기자재 공여를 주로 하는 일반원조와 이와 같은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전력개발분야의 원조내용은 발전능력 증강을 위한 송전망 건설 및 관련 기자재 공여 등이다. 인구억제분야에서는 가족계획에의 기자재 공여와 가족계획요원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비료·종자개발등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협력하고 있다.

독일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1980년이전까지는 차관이 총원조누계의 60%를 상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증여의 비중이 낮았으나, 1980년에 과거의 차관의 상환을 증여로 일괄 대체하고, 그 이후로는 증여 중심의 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ODA의 증여율도 1983년 이래 100%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누계액(1971~90년)은 12억 1,150만달러로서 대방글라데시 양국간 원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이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9%를 나타내고 있다.

〈表 Ⅲ-10〉 獨逸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누계(1971~90)
ODA 총액	70.9	66.1	57.4	62.3	77.3	1,211.5
차관	—	—	—	—	—	-87.5
증여	70.9	66.1	57.4	62.3	77.3	1,299.1
(증여율, %)	(100.0)	(100.0)	(100.0)	(100.0)	(—)	(—)
(기술협력)	(12.3)	(16.2)	(12.9)	(12.9)	(14.3)	(207.1)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표 Ⅲ-8〉과 동일

4. 國際機構의 援助

가. 援助推移

국제기구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방글라데시가 최대 빈곤의 후발개발도상국이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원조규모의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면 1986~90년까지 5개년간 국제기구가 공여한 원조액 38억 1,890만달러는 1971~90년까지 20년간의 다자간 원조누계액 79억 9,790만달러의 약 48%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또한 1990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가 받은 ODA 총액중 국제기구에 의한 다자간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도 48%에 이르고 있다.

국제기구의 원조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세계은행그룹으로서 國際開發協會(IDA)가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IDA는 1971~90년까지 20년간 누계로 36억 6,230만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원조누계액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 1985년부터 원조액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開發銀行(ADB)은 같은 기간 동안 16억 7,370만달러(다자간 원조누계의 21%)를 제공하여 IDA와 함께 활발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국제기구의 대방글라데시 원조액 6억 8,480만달러중

ADB는 2억 6,800만달러(39.1%), IDA는 2억 3,900만달러(34.9%)를 각각 제공하였다. 그 밖에 國際開發計劃(UNDP), 世界食糧計劃(WFP), UN 兒童基金(UNICEF) 등도 꾸준한 원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 援助戰略

世界銀行의 대방글라데시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IDA자금에 의해 발전·송배전·농촌전화와 석유·천연가스개발 등 에너지분야, 관개 배수·새우양식 등 농촌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섬유산업 진흥, 도로·교통, 홍수대책, 인구억제, 교육, 농촌개발, 반곤완화 등이 주요 원조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위하여 에너지부문에의 원조배분이 두드러지고 있다.

ADB는 관개·비료제조 등 농업분야가 원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력 에너지 분야, 수송·통신분야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가 주된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ADB는 향후에도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방글라데시 경제의 생산기반을 강화·확대하는 것을 기본 원조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UNDP는 5개년 국별원조계획 가운데 ①관개·종자개발·홍수대책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 ②천연가스 개발 등 산업기반 자원의 효과적 활용, ③교육·보건위생 등 인적자원개발, ④교통·수송·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⑤행정관·행정시스템 강화 및 개선 등 5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대방글라데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 조직·제도강화 정책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실시자금 측면에서도 타원조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UNDP는 위의 5개 부문에 덧붙여서 수해복구, NGO와의 협력, 환경관련 제반문제, 민간부문 강화 및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등에 원조의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援助國會議(Bangladesh Consultative Group)는 방글라

데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1974년 10월 파리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 회의는 세계은행의 주관하에 방글라데시의 미시적인 경제추이와 이에 필요한 대외원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 안전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에너지분야(1980년), 인구문제(1984년), Jamuna橋 건설문제(1988년)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2년 4월 파리에서 열린 방글라데시 원조국회의에서는 홍수방지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1992/93 회계년도중 22억달러의 원조를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同원조국회의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공기업 적자축소성과가 미진한 점,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지향적인 면모를 갖춘 시장경제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 공공투자계획의 시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영하여 경상지출을 억제하고 자본지출을 보다 선별적으로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地域協議그룹(Local Consultation Group)은 세계은행을 의장으로 하여 방글라데시 원조국회의의 회원국이 참가하고, 현지와의 접촉을 위해 분야별(인구, 인프라스트럭처, 홍수피해복구, 수리종합계획 등)로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협의·조정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식량원조를 위해서는 WFP가 주요 식량원조국을 소집하여 매월 원조액, 원조일정 등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곡물예측 발표에 따라 식량정책과 식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과 UNDP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조국 회의 등을 통해 대방글라데시 원조의 조정자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UNDP는 대방글라데시 원조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원조, 상품원조, 기술원조 등에 관한 분석·평가연구 등을 주관하고 있다.

〈表 Ⅲ-11〉 國際機構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ODA 총액	613.4	682.7	674.5	843.7	1004.6
ADB	140.1	173.6	221.8	316.8	303.9
EEC	20.1	39.7	54.1	105.4	105.4
IDA	334.5	327.9	287.0	288.0	449.0
UNDP	33.6	35.2	29.7	33.9	29.4
UNICEF	14.6	20.3	23.2	23.8	33.8
WFP	40.0	59.4	53.1	58.4	51.2
기 타	30.5	26.6	5.6	17.4	31.9

주 : 지출순액 기준

자료 : 〈표 Ⅲ-8〉과 동일

IV. 對방글라데시 協力方向

1. 우리의 開發援助 實績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무상원조는 누계액(1977~92년) 기준으로 154만 2,000달러가 지원되어 아시아 지역에 공여된 총 2,415만 9,000달러에 비해 보면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술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으로 연수생 초청을 비롯하여 개발조사사업 등 비교적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외무부와 과기처의 대외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의 설립되어 이에 통합 시행되고 있는 연수생 초청의 경우 1963년부터 1992년까지 244명의 연수생 초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對開途國 實績 8,554명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타 부문에서의 실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생 초청을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부문이 총 98명으로서 40%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과학·교육·행정부문이 71명으로 전체의 29%, 보건·사회부문이 42명으로 17.2% 중공업부문이 25명으로 10.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전문가 파견은 잠업분야 등에 지난 1985년까지 3명이 파견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韓國開發院(KDI)이 실시하는 國際開發研鑽事業(IDEP)의 경우 1982-92년간 정책연찬회, 협동연수, 중간관리연수과정에 총 34명의 방글라데시인이 초청되었다.

〈表 IV-1〉 우리의 對방글라데시 ODA 供與

(단위 : 백만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누 계
연 수 생 초 청 (명)	8	9	5	1	2	8	244
전 문 가 파 견 (명)	—	—	—	—	—	—	3
I D E P (명)	3	9	5	4	5	1	34
기 자 재 공 여 (천불)	153	150	172	180	193	195	1,542
개 발 조 사 (백 만 원)	—	355	289	345	—	—	1,634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연보(1992) ; 경제기획원, 개도국 경제협력통계(1993)

開發調査事業의 경우 1985-92년간 개도국에 공여된 총 71건, 105억 3,580만원중에서 대방글라데시 공여실적은 8건, 16억 3,390만원으로서 약 1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설부가 홍수조절 및 배수개선 사업, 부리강가 교량등 교량건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체신부가 다카지역 통신망설계 등의 지원을 하였다.

〈表 IV-2〉 開發調査事業 內譯

(단위 : 백만원)

	프 로젝트 명	지원금액
1985	○ 제3홍수조절 및 배수사업	222.5
	○ 2개 교량건설 타당성 조사	222.5
1988	○ 홍수조절 및 배수개선 사업	200.1
	○ FCE III(2단계) 홍수조절 시설	224.1
	○ 부리강가 교량건설 詳細設計	131.0
1989	○ 부리강가 교량건설 詳細設計	104.8
	○ 다카지역 전화시설 장기망계획 수립	184.0
1990	○ 다카지역 통신설계망	345.0
합 계	8 건	1,633.9

자료 : 경제기획원, 개도국 경제협력통계(1992 ; 1993)

1991년 4월에 발족한 韓國國際協力團(KOICA)은 대방글라데시 협력과 관련하여 1991년 혈청검사, 건설기술자 훈련분야 등의 연수생 초청을 필두로 하여 1992년에는 농촌개발, 전자제품수리, 가족계획분야 등 7개 과정 8명, 1993년에는 미곡생산, 시장경제관리, 수출진흥육성, 기초직업훈련분야 등 10개 과정 10명이 각각 초청되어 국내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 파견 및 의료단 파견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재 공여사업으로는 승용차, 앰블런스와 의약품 등이 공여되었으며 1992년에는 난민구호금으로 5만달러가 특별히 제공되었다. 한편, 1993년부터 韓國青年海外奉仕團(KYV)에 대한 양국간 파견각서에 따라 작물재배, 식품가공, 축산, 수질검사, 봉제분야 등에 총 7명의 청년봉사단원의 파견이 이루어졌다.

ODA와 함께 공적인 경제협력의 한 형태인 OOF의 공여실적을 보면, 1992년까지 철도차량 3건(628만 1,000달러)과 플랜트 5건(1,135만 2,000달러)에 대한 延拂金融이 실시되었으며, 1992년말 잔액은 1건, 152만 5,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 금융지원의 경우, 1989년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었으나 1990-92년간 해외투자 금융지원이 8건, 437만 5,000달러가 이루어졌으며, 1992년말 잔액은 7건, 377만 4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협력형태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나, 그 실적은 절대적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 대상국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에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자체가 선진국들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인 대외협력이 그동안 외교 및 경제적 목적에 치중하여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국가가 아니며,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도모할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 공적 경제협력 부진의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表 IV-3〉 KOICA의 對방글라데시 協力現況

구 분	1991	1992	1993
연수생초청	혈청검사 1	농촌개발 1	미곡생산 1
	건설기술자훈련 1	전자제품수리 1	시장경제관리 1
		혈청검사 1	수출진흥육성 1
		건설기술자훈련 1	전자제품수리 1
		가족계획 1	가족계획 2
		식물보호 1	광물자원 및 탐사 1
		비파괴검사 1	자동차정비 1
			기초직업훈련 1
			산업재산권제도 1
			비파괴검사 1
	(2개과정 2명)	(7개과정 8명)	(10개과정 11명)
기자재공여	Jeep 14대 (192,800달러)	소나타승용차 13대 (195,300달러)	Ambulance 10대 (116,700달러)
		난민구호금 (50,000달러)	설사병치료의약품 (9,000달러)
			정파의 지원의약품 (10,200달러)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	—	작물재배 2
			식품가공 1
			축 산 1
			수질검사 1
			봉 제 1
			코디네이터 1
			(총 7명)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 對방글라데시 協力方向

최근의 급속한 경제력 확대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은 우리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세계 각국, 특히 후발개도국들의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아울러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경제가 담당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대개도국 협력과 관련하여 OECD 開發援助委員會(DAC)는 GNP의 0.15%이상의 ODA를 최빈국에 공여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환조건도 증여율이 90%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ECD加入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개도국 ODA規模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최빈국중에서도 전략적인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3년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방글라데시는 종족, 언어,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서남아 국가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뿌리깊은 종교분쟁이나 민족분쟁이 없으며, 우리나라와도 향후 경제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유망한 협력대상 국가로 평가된다.

가. 開發援助時 考慮事項

대방글라데시 협력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ODA의 공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글라데시는 지역별로 기후, 토양, 수리, 식물식생 등의 자연조건이 상이하고, 토지의 분배형태나 소득격차 등 사회제도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촌개발 등 지역개발의 방법에 있어서도 한가지의 단일 모델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특정지역에 적합한 개발원조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격차의 확대, 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소작농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Comilla와 같은 농촌에 알맞는 생산협동조합의 모델은 대토지 소유층과 토지를 소유치 못한 층간의 계층격차가 큰 서부지역의 농촌에

서는 지주층에서로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므로 빈곤대책으로는 부적당하다.

둘째, 개발원조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經濟的 生活領域과 行政區域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조대상 인구의 생활권, 경제권 및 교통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개발의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지역범위를 명확히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거주자의 농외소득 증대지역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거주지를 벗어나 지방도시나 수도권에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농촌단위에서 도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지역단위로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행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농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교육, 소득향상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원거리 이동을 전제로 한 시설의 설립만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가정방문이나 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권이나 생활권은 공적인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조사를 하여 開發對象人口(Target Population)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세째, 방글라데시 정부는 公共部門의 民營化 추진을 통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경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원조의 대상이 공공부문으로 한정될 경우에는 민간의 영세기업이나 가내공업의 발전과 고용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을 측면지원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네째, 방글라데시의 援助吸水能力과 行政能力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조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수원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수원체제의 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원조실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協力の 基本方向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원조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원조공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개발원조는 방글라데시가 최빈국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同國의 개발정책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人道的 要因과 經濟的 要因을 고려한 공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방글라데시 원조방향은 크게 人的資源 開發에 대한 협력과 經濟成長의 基盤構築을 위한 협력의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원조전략의 수립·집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부문별, 프로젝트 접근만이 아니라 서로 상이한 분야의 원조조건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프로젝트 상호간 원조효과를 높이고 개발대상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주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1) 人的資源의 開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은 방글라데시의 장기적인 경제·사회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개발시키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시키고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부문의 심한 재원구조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원조공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초등·기초교육과 기술교육부문에 중점을 두고, 이와 함께 교육관리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교육의 확충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經濟成長의 基盤構築

방글라데시 경제가 후진성을 극복하고 고용증대와 투자, 수출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조공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글라데시 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에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증대, 대외경쟁력 제고, 재정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構造調整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적인 노력이 소요되므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과의 Co-financing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글라데시는 국내재원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차관도입 능력도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경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과 이에 적절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원조가 필요하다.

그 밖에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농업기술의 발달 등 농업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開發圈域을 설정하여 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제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교육, 주택, 교통분야 등에 중점을 둔 地域開發政策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項目別 協力方案

(1) 農村開發의 綜合的 推進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은 농촌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농업기술 및 생활개선의 보급, 가축위생 서비스, 조합·제도금융의 강화, 가내공업의 진흥, 초등·중등교육의 개선, 보건위생 서비스 등 종합적인 농촌개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촌락단위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Upazila단위의 유통센터나 직업훈련 시설의 정비, 지역단위별 지방 핵심도시의 농업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據点開發을 시도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과제로서는 도로, 전기, 관개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와 BHN충족을 위한 음료수, 보건위생 시설의 정비, 각종 기술훈련 및 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야채재배, 養鷄·養魚지도 등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농촌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원조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중등교육의 개선, 농촌보건 서비스의 향상 등에 대한 원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농촌의 행정조직이 복잡하고 서로 상이한 부문간의 조정이 어려우며 원조실시까지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농촌금융에 대한 자금지원은 방글라데시의 금융제도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향후 추이를 검토하여 원조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의 단위로는 지역(District)단위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조의 대상지역은 Dhaka-Comilla-Chittagong을 연결하는 東南部 經濟圈開發의 각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농외고용 창출효과를 제고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保健·醫療의 擴充

국민보건은 생활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로서 보건·의료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방글라데시로서는 개발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해야 할 부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산과 향상에 중점을 둔 원조공여가 요구된다. 보건·의료부문의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1차 진료의 확산이다. 대다수 주민이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의 촌락까지 파급될 수 있는 1차 진료소 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

또한 가족건강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기초 의료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관련 NGO의 지원활동과 상호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의 의료기술 능력으로 볼 때 의약품 및 장비의

인도적인 공여와 함께 의사 및 의료요원의 파견 등을 고려한 기술협력이 요청된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과도한 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가족계획, 피임기구의 보급, 인구억제의 중요성과 관습의 개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에 원조공여가 요청되며, 家族計劃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축적된 경험을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3) 教育・訓練의 擴大

기초교육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①취학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학교설립 등 시설의 확충, ②교과과정,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내용의 개선 및 교재정비, ③학교급식, 보육소 병설 등 빈곤층의 취학을 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급 및 고급수준의 교육·훈련의 경우 순환기병 연구소 등 의학교육기관, 농업 대학원 등 고등농업교육기관의 시설확충 및 교육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진흥의 일환으로서 숙련노동자의 훈련이나,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서비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력 교육·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주민생활의 향상과 산업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과학분야의 고등교육 강화는 향후 방글라데시 정부를 담당할 관료층의 육성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발 프로젝트의 실시와 함께 이를 계속해서 운영·관리해 나갈 책임자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開發研究所(BIDS)나 Dhaka大學 등의 주요기관과 개발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지도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원조공여능력으로 볼때 방글라데시의 개발에 필요한 인재육성의 방법으로는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생 초청 등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4) 投資・輸出促進을 위한 基盤造成

방글라데시 경제의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인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공업원료로서의 자연자원이 부족한 방글라데시로서는 봉제품, 냉동제품 등의 가공제품이 황마제품이나 홍차 등 전통적인 수출품목을 대체하여 외화가득원으로서 수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출지향산업, 輸出加工地帶(EPZ)입주산업, 수입대체 및 수출을 유발하는 첨단산업, 방글라데시의 천연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 등에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수출가공지대의 시설 및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등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환경정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술협력, 수출가공지대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를 위한 지원, 수출 증대를 위한 새우양식기술이나 농산물 가공 등 기술향상을 목표로 한 지원방안이 요청된다.

(5) 地域開發의 強化

1) 東南部地域

Dhaka, Narayanganj, Comilla, Chittagong 등의 도시와 그 근교는 방글라데시 전역의 농촌이주자들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상호간을 연계시킴으로써 인근의 농촌을 포함하여 상공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 국영기업 등이 집중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투자에 의한 단기적인 경제효과가 쉽게 예상되며, 최근 중소도시로의 인구집중화 및 편재화의 경향을 볼때 농촌의 인구밀도의 완화와 대도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방지하려는 관점에서도 중소도시를 포함한 東南部地域의 經濟圈開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말라리아 억제대책을 포함한 지역보건, 가족계획 등 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지원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내의 정부기관 등에서 개발의 계획·실시를 담당할 관료 및 기술자층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인재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Dhaka大學 및 Chittagong大學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대상지역내의 기초적인 경제·사회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 및 改修, 대학의 교육시설 정비, 말라리아 억제 등 보건의료대책 등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업종의 선정, 금융, 경영 등에 관한 기초조사, 기술협력 등 장기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西部地域

방글라데시의 서부지역에는 工業都市인 Bogra, Khulna 등이 있으나 교통상으로 동부지역과 차단되어 있으며, 동부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개발의 제약요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남부 경제권과는 상이한 보다 장기적인 개발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西部地域의 開發戰略으로는 도시의 공업개발, 농촌공업의 개발, 생산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와 함께 교통·통신·에너지 수송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의해 동부와 서부의 兩經濟圈을 연결함으로써 양지역간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원조공여 방법으로는 개발지도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에 따라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점분야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의 실시 등이 요망된다.

附 錄

A. 主 要 統 計

表 目 次

I. 一般經濟部門

〈表 I-1〉 總人口 計劃	153
〈表 I-2〉 各種 人口統計	154
〈表 I-3〉 地域別 人口現況	155
〈表 I-4〉 經濟活動別 人口分布	156
〈表 I-5〉 各種 保健統計	157
〈表 I-6〉 幼兒營養狀態 比較	158
〈表 I-7〉 家族計劃 統計	159
〈表 I-8〉 所得分配 및 貧困指標	160
〈表 I-9〉 GDP 成長率	161
〈表 I-10〉 主要 作物 生產動向	162
〈表 I-11〉 地域別 黃麻 生產動向	163
〈表 I-12〉 各種 灌溉統計	164
〈表 I-13〉 公共部門 灌溉프로그램	165
〈表 I-14〉 農業部門 與信現況	166

II. 援助部門

〈表 II-1〉 AID PIPELINE	167
〈表 II-2〉 COMMITMENTS AND DISBURSEMENTS OF AID BY TYPE OF AID	168
〈表 II-3〉 日本의 對방글라데시 援助實績(1970~92)	169

〈表 I-1〉 總人口計劃

(단위 : 천명)

Standard* projection for 1993 WDR; NRR=1 by 2015										
Age Group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Total M+F	108275	110832	131141	142490	153322	162915	172097	181171	189897	197939
Male										
0-4	8287	8484	8489	8655	8557	8101	8088	8285	8358	8328
5-9	8148	7948	8153	8228	8439	8383	7936	7942	8134	8244
10-14	7378	8042	7853	8069	8153	8371	8301	7883	7896	8091
15-19	8283	7275	7936	7758	7981	8071	8294	8232	7823	7841
20-24	5242	8155	7134	7791	7828	7858	7955	8185	8134	7740
25-29	4331	5111	6008	6972	7827	7478	7718	7827	8067	8029
30-34	3865	4212	4978	5858	6811	7486	7333	7581	7705	7954
35-39	2628	3548	4083	4832	5700	6842	7298	7182	7440	7577
40-44	2181	2524	3418	3937	4689	5522	6451	7104	7010	7280
45-49	1827	2054	2403	3259	3784	4478	5312	6223	6872	6801
50-54	1541	1708	1923	2253	3083	3552	4240	5047	5833	6575
55-59	1304	1403	1557	1757	2084	2819	3282	3935	4704	5554
60-64	1037	1140	1228	1386	1548	1827	2509	2938	3542	4258
65-69	753	851	938	1013	1132	1290	1538	2128	2508	3046
70-74	513	582	637	705	785	863	994	1196	1670	1989
75+	580	587	598	659	734	817	931	1084	1307	1758
Total	55678	61561	67329	73111	78832	83515	88174	92749	97104	101081
Female										
0-4	8027	8216	8230	8382	8278	7823	7800	7959	8037	7998
5-9	7746	7712	7935	7998	8198	8109	7882	7875	7848	7940
10-14	6894	7837	7814	7848	7925	8128	8049	7831	7831	7808
15-19	6033	6768	7509	7499	7745	7831	8041	7973	7568	7578
20-24	4988	5888	6594	7331	7339	7586	7695	7917	7868	7480
25-29	4107	4798	5877	6396	7129	7155	7424	7541	7780	7748
30-34	3440	3947	4821	5484	6195	6927	6973	7258	7392	7648
35-39	2488	3292	3798	4445	5293	5998	5728	6793	7091	7245
40-44	2055	2388	3143	3828	4271	5102	5802	6529	6814	6923
45-49	1758	1945	2247	2992	3483	4093	4907	5698	6321	6425
50-54	1484	1841	1822	2112	2822	3279	3892	4684	5365	6081
55-59	1177	1337	1503	1878	1951	2821	3081	3860	4416	5082
60-64	910	1036	1181	1334	1498	1753	2371	2738	3347	4075
65-69	645	754	882	990	1127	1275	1509	2059	2443	2980
70-74	432	487	573	681	786	882	1011	1211	1673	2010
75+	458	489	514	598	697	828	979	1157	1404	1881
Total	52599	58271	63812	69389	74690	79400	83923	88422	92793	96878
Birth Rate	33.2	29.9	27.5	24.8	21.8	20.4	19.6	18.7	17.7	
Death Rate	12.7	11.7	10.8	10.0	9.6	9.4	9.3	9.3	9.4	
Rate of Nat.Inc.	2.05	1.82	1.67	1.48	1.22	1.10	1.03	.94	.83	
NET MIGRATION RATE	-.2	-.2	-.1	-.1	-.1	-.0	-.0	.0	.0	
Growth Rate	2.03	1.8	1.66	1.47	1.21	1.10	1.03	.94	.83	
Total Fertility	4.250	3.625	3.198	2.822	2.490	2.368	2.334	2.300	2.267	
NRR	1.008	1.402	1.273	1.157	1.036	1.000	1.000	1.000	1.000	
e(0) - Both Sexes	52.85	54.21	55.88	57.78	59.08	60.45	61.88	63.33	64.85	
e(15) - Both Sexes	48.18	48.85	49.20	49.89	50.74	51.63	52.54	53.5	54.48	
IMR - Both Sexes	101	92.4	81.8	70.2	64.8	59.3	53.9	48.5	43.0	
e(5) - Both Sexes	.1454	.1318	.1148	.0968	.0892	.0815	.0738	.0661	.0584	
Dep. Ratio	85.4	75.9	66.5	60.7	55.6	50.8	46.7	45.0	45.0	45.7

GRR= Gross Reproduction Rate

NRR= Net Reproduction Rate

Source : World Bank Staff estimates.

〈表 I-2〉 各種人口統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CRUDE DEATH RATE [per thousand]												
National	10.18	11.50	12.20	12.30	12.30	12.00	11.90	11.50	11.30	11.40	11.30	11.00
Rural	10.77	12.23	12.78	13.20	12.90	12.90	12.30	11.80	11.80	12.00	11.80	11.50
Urban	8.81	7.21	6.82	7.50	8.50	8.30	8.40	7.80	7.40	7.30	7.90	7.30
INFANT MORTALITY RATES [per thousand]												
National	101.40	111.50	121.90	117.50	121.80	112.00	116.00	113.00	110.00	98.00	94.00	90.60
Rural	103.50	112.50	123.20	120.80	122.00	113.00	118.00	115.00	112.00	105.00	97.00	94.40
Urban	80.70	69.40	103.00	98.80	119.50	99.00	101.00	95.00	91.00	84.00	71.00	69.30
Male	102.30	113.40	124.10	118.80	113.50	114.20	122.00	120.00	116.00	102.00	98.00	94.40
Female	97.40	109.40	119.40	116.00	109.30	109.00	111.00	105.00	105.00	95.00	91.60	86.80
LIFE EXPECTANCY AT BIRTH [years]												
National	58.90	54.80	54.50	53.90	54.80	55.10	55.20	56.40	58.00	58.00	58.00	58.10
Rural	58.00	54.30	53.90	53.10	54.40	54.70	54.84	56.10	55.40	55.00	55.40	55.80
Urban	61.90	60.10	60.60	60.30	58.70	60.10	58.81	60.00	60.90	61.00	60.50	60.00
Male	57.00	55.30	54.40	54.20	54.90	55.70	55.20	55.60	57.00	58.00	58.30	58.50
Female	57.10	54.40	54.80	53.60	54.70	54.80	55.90	54.90	58.00	55.60	55.60	55.60
CRUDE BIRTH RATE [per thousand]												
National	33.40	34.60	34.80	35.00	34.80	34.60	34.40	33.33	33.20	33.00	32.80	31.60
Rural	33.90	35.70	36.90	38.40	38.10	35.30	35.40	34.81	34.50	34.20	34.30	32.90
Urban	29.20	24.80	22.90	27.10	25.00	28.00	25.93	24.75	24.90	24.30	24.60	23.90
FERTILITY RATE [per woman]												
National	4.99	5.04	5.21	5.07	4.83	4.71	4.70	4.41	4.43	4.24	4.33	4.23
Rural	5.13	5.28	5.50	5.38	5.08	4.91	4.89	4.64	4.59	4.58	4.57	4.48
Urban	3.87	3.20	3.01	3.45	3.10	3.52	3.28	3.05	2.84	2.92	2.95	2.88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表 I-3) 地域別人口現況

(단위: 천명)

Division District	1981 Census	1974 Census	1981 Census				Average Size	1974-to-1981 Growth Rate	Extrapolation to 1985 /a		1991 Census /b				Average Size
			Total	Male	Female	Households			Total	Per ha	Total	Male	Female	Households	
Rajshahi	11850	17332	21087	10789	10298	3718	5.7	2.8	24339	625	26888	13842	13026	5053	5.3
Dinajpur	1710	2571	3198	1647	1551	580	5.5	3.2	3738	473	4044	2080	1964	777	5.2
Rangpur	3798	5447	8490	3325	3165	1108	5.4	2.5	7401	677	8155	4155	4000	1594	5.1
Bogra	1574	2231	2718	1384	1334	489	5.6	2.9	3139	699	3480	1776	1684	685	5.0
Rajshahi	2811	4268	5263	2677	2586	894	5.9	3.0	8121	558	8705	3417	3288	1241	5.4
Pabna	1959	2815	3418	1758	1662	557	6.1	2.8	3940	693	4305	2214	2091	758	5.7
Khulna	10087	14195	17150	8831	8319	2884	5.9	2.7	19715	508	20804	10845	10159	3807	5.5
Kushtia	1168	1884	2273	1167	1106	359	6.3	2.7	2811	654	2885	1475	1391	521	5.5
Jessore	2190	3327	4018	2089	1947	633	6.3	2.7	4614	600	5008	2588	2438	887	5.6
Khulna	2449	3557	4353	2284	2069	741	5.9	2.7	5041	381	5279	2711	2588	974	5.4
Barisal	3088	3928	4668	2398	2270	830	5.6	2.7	5315	646	4992	2077	2015	771	5.3
Patuakhali	1194	1499	1840	933	907	321	5.7	2.7	2134	424	3580	1814	1768	654	5.5
Dhaka	15294	21317	26248	13632	12616	4843	5.7	3	30542	850	33593	17480	16133	6377	5.3
Jamalpur	1440	2059	2445	1241	1204	452	5.4	2.5	2783	718	3085	1578	1507	643	4.8
Mymensingh	4083	5508	6543	3355	3188	1208	5.4	2.5	7449	674	8035	4000	3945	1585	5.1
Tangail	1487	2078	2444	1243	1200	420	5.8	2.3	2767	721	3044	1545	1500	586	5.2
Dhaka	5096	7612	10049	5376	4673	1705	5.9	4.0	12151	1347	13817	7397	6420	2544	5.4
Faridpur	3179	4080	4768	2417	2351	858	5.6	2.3	5393	690	5812	2850	2782	1039	5.4
Chittagong	13830	18635	22585	11597	10988	3892	5.8	2.8	25998	504	28811	14752	14059	4950	5.8
Sylhet	3490	4759	5650	2897	2753	988	5.8	2.5	6430	456	7052	3588	3464	1184	5.0
Comilla	4389	5819	6880	3481	3399	1203	5.7	2.4	7811	1025	8652	4361	4291	1485	5.8
Noakhali	2383	3234	3813	1899	1914	680	5.6	2.4	4322	570	4884	2435	2449	853	5.7
Chittagong	2883	4315	5476	2913	2563	906	6.0	3.5	6474	759	7195	3814	3381	1225	5.9
Chittagong H.T.	385	508	748	407	339	137	5.4	5.8	959	57	1028	554	473	202	5.1
TOTAL	50841	71479	87051	44849	42201	15135	5.8	2.9	100592	605	109877	56500	53377	20187	5.4

Note: Data shown represent actual census results, not adjusted for probable undercounting.

The adjusted 1981 Census estimate of total population is 89,940,000 for the Census date of March 8, 1981.

/a Extrapolated to 1985 at 1974-to-1981 growth rate and adjusted proportionately to estimated 1985 total.

/b District wise population of Bangladesh (adjusted), Supplement No.1 to the Preliminary Report on Population Census, June 1992.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and staff estimates.

〈表 I-4〉 經濟活動別 人口分布

(단위 : %)

	1983/84			1984/85			1985/86			1989			1990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1. National															
Population aged 10 years and above	68.31	68.02	68.17	68.88	68.89	68.90	69.77	68.40	69.29	65.65	65.33	65.49	66.79	65.67	66.26
Economic participation:															
Civilian labor force a/	78.31	7.89	43.91	53.82	5.85	30.30	53.49	6.40	30.31	53.49	40.04	46.99	55.37	41.30	48.60
- Employed	77.11	7.67	43.14	53.01	5.43	29.88	53.10	6.20	30.02	52.77	39.68	46.44	54.60	40.67	47.93
- Unemployed	1.20	0.31	0.77	0.80	0.21	0.51	0.39	0.20	0.29	0.72	0.38	0.68	1.40	1.52	1.45
Other	21.69	92.11	56.08	15.06	63.04	38.59	16.05	62.00	38.64	11.99	25.48	18.50	..	..	51.40
- Household work	0.30	74.78	38.67	0.20	51.56	25.28	-	49.80	24.48	..	..	..	..	..	18.60
- Inactive	21.39	17.35	19.41	14.86	11.48	13.31	16.05	12.20	14.16	..	..	..	..	..	32.80
2. Rural													67.69	65.98	66.87
Population aged 10 years and above	67.78	68.12	67.94	68.37	68.72	68.54	69.48	68.81	69.13	65.05	64.65	64.86			
Economic participation:															
Civilian labor force a/	78.67	7.45	43.31	53.95	5.21	29.81	53.39	5.96	29.84	53.89	43.40	48.81	55.74	43.65	49.94
- Employed	77.62	7.09	42.81	53.28	4.88	29.34	52.94	5.93	29.50	53.28	43.18	48.37	54.91	43.04	49.22
- Unemployed	1.05	0.35	0.70	0.70	0.24	0.47	0.45	0.23	0.34	0.63	0.22	0.43	1.51	1.38	1.46
Other	21.33	92.55	56.69	14.65	63.27	38.73	15.84	62.84	39.18	10.74	20.81	15.62	..	..	..
- Household work	0.35	76.24	38.03	0.23	52.37	26.06	0.00	51.38	25.51	..	..	..	..	..	..
- Inactive	20.98	16.31	18.66	14.42	10.00	12.68	15.84	11.47	13.67	..	..	..	..	..	..
3. Urban															
Population aged 10 years and above	73.43	67.92	70.69	72.08	68.42	70.40	72.97	65.63	69.57	69.51	68.42	68.99	67.83	70.87	69.29
Economic participation:															
Civilian labor force a/	72.34	13.89	47.58	54.41	7.02	32.80	53.41	9.38	34.08	52.44	19.74	38.71	52.70	24.32	39.38
- Employed	70.21	13.89	46.34	52.94	7.02	32.00	54.05	9.38	33.33	51.22	18.42	35.44	52.40	23.51	38.83
- Unemployed	2.13	..	1.22	1.47	0.00	0.80	1.35	..	0.72	1.22	1.32	1.27	0.65	3.34	1.36
Other	27.66	86.11	52.44	17.65	59.65	37.60	17.57	56.25	35.51	19.51	53.83	35.44	..	..	..
- Household work	..	83.89	28.05	..	43.88	20.00	0.00	39.08	18.12	..	..	..	..	..	..
- Inactive	27.66	22.22	24.39	17.65	15.79	17.60	17.57	17.19	17.39	..	..	..	..	..	..

a/ The refined rate of civilian labor force is the percentage of persons 10 years old and above found engaged in productive activity during the survey period.

.. Not available.

Source: Population Census 1981, LF8 1983/84, and LF8 1984/85 and 1985/86; BBS.

〈表 I-5〉 各種保健統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Hospitals (number)												
Government	510	512	544	560	568	598	600	608	608	608	608	610
Private	39	184	184	184	184	184	184	287	287	287	287	280
Hospital Beds (number)	21987	23792	23907	25057	26841	27845	28077	33138	33334	33378	33378	34353
Government Dispensaries & Hospitals	18457	19021	19136	20286	21870	22874	23308	28576	28871	28913	28913	27111
Private	3530	4771	4771	4771	4771	4771	4771	6563	6463	6463	6463	7242
Registered Doctors (number)	9188	10065	10333	11498	13500	14591	16090	16929	17475	18323	19387	21004
Registered Nurses & Midwives (number)	4372	5975	7434	8588	9850	10817	12111	12837	13944	15091	15038	17388
Public Expenditure (Tk million) a/												
Revenue	856	932	1052	1382	1820	1920	2483	2985	3211	3800	3950	4308
ADP	658	742	808	1134	1293	908	1058	1102	3144	2310	3028	5267
Total Expenditures as % of GDP a/	0.65	0.63	0.64	0.72	0.75	0.81	0.67	0.69	0.98	0.90	0.95	1.30
Per Capita Expenditure (Tk) a/	16.84	18.28	20.31	26.29	31.38	27.81	34.02	38.34	59.62	54.17	62.47	65.71

* = Revised estimate

a/ Fiscal year data.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表 I-6〉 乳兒營養狀態比較

Indicator	INFS, 1975-76	INFS, 1981-82	BBS, 1985-88	HKI, 1982-83	HKI, AUGUST 1990	BBS 1989-90
Chronic malnutrition /a	73.7%	57.3%	(Weighted) 56.1% (National) 57.6% (Rural) 44.2% (Urban)	- 42.00% (Rural) -	49.5% (National) 48.8% (Rural) 51.2% (Urban)	(Weighted) 51.1% (National) 52.2% (Rural) 44.3% (Urban)
Acute malnutrition /a	21.6%	20.0%	(Weighted) 8.1% (National) 8.2% (Rural) 6.0% (Urban)	- 6.0% (Rural) -	11.3% (National) 10.0% (Rural) 12.1% (Urban)	(Weighted) 8.8% (National) 8.8% (Rural) 7.3% (Urban)
Definitions of:						
Chronic malnutrition	< 90% median height for age	< 90% median height for age	< 90% median height for age	< 90% median height for age	< 90% median height for age	< 90% median height for age
Acute malnutrition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also 2sd from median height for age & weight for height.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 80% median weight for height
Actual sample size	430 cross-sectional	510 cross-sectional	3283 urban and rural cross-sectional; four data collection periods	Rural sub-set 2800 cross sectional.	1800 urban and 4500 rural children/b	2358 urban and rural cross-sectional; four data collection periods
Age range	0-59 months	0-59 months	6-71 months	3-71 months.	6-59 months	6-71 months
Reference standard used	Harvard	Harvard	NCHS	NCHS	NCHS	NCHS
Population covered	Rural	Rural	Urban and rural	Urban and rural	Urban slum and rural	Urban and rural

INFS = Institute of Nutrition and Food Sciences, Dhaka University.

BBS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National Nutrition Survey and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HKI = Helen Keller International

/a Shows percent rate among total population.

/b Urban areas include urban slums only and rural areas include disaster prone areas only.

Note: The INFS surveys used the Harvard Standard as the international reference standard for comparison of child growth data while BBS used NCHS reference.

Some variation in nutritional status would be accounted for by the different standards used. Random variation due to small sample sizes used by INFS are more likely to account for the differences in nutritional status found by the three surveys. The BBS survey sample was divided into four data collection periods over a year's time while INFS surveys collected data once during the year.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表 I-7) 家族計劃統計

(단위: 천명)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Voluntary Sterilizations												
Tubectomies	232.50	235.08	274.84	338.50	232.39	116.42	140.83	97.17	130.94	141.95	97.404	92.133
Vasectomies	26.30	87.82	88.32	215.87	259.21	151.13	209.93	99.89	100.03	83.11	87.90	69.15
Total	258.79	302.91	363.16	552.17	491.60	267.55	350.56	197.08	230.97	225.06	165.30	161.28
Delivery of Contraceptive Devices												
IUDs	41.80	83.67	117.74	303.34	432.45	387.67	420.34	379.13	381.70	385.82	274.23	280.57
Pills (cycles)	8238	7751	8258	9726	11553	12137	15023	19100	24820	34346	42704	46829
Condoms (doz.)	87112	93230	116821	131096	151940	135907	149236	166438	181978	198023	133798	159514
EMKO	60.79	63.55	68.83	84.25	71.98	48.42	39.31	14.78	10.12	4.03	4.67	2.17
Injectables	112.01	81.07	72.70	122.46	165.93	216.49	314.75	392.00	604.70	1257.58	1689.11	2254.78
Foam tablets	5011	4126	5404	4385	3222	3125	3463	3890	4100	1547	25174	9258
COUPLE-YEARS OF PROTECTION [thousands]												
By Sterilization /a												
Tubectomies	522	705	909	1155	1272	1261	1276	1245	1252	1269	1240	1208
Vasectomies	319	355	408	583	784	857	981	983	984	869	940	915
Total	841	1060	1317	1738	2055	2118	2257	2228	2236	2238	2179	2123
With Contraceptive Devices /b												
IUDs /c	122	169	238	489	760	900	1050	1114	1142	1165	1090	1032
Pills	543	517	551	648	770	809	1002	1273	1841	2290	2847	3109
Condoms	581	622	779	874	1013	906	905	1108	1213	1320	892	1083
EMKO	15	18	17	16	18	12	10	4	3	1	1	1
Injectables	28	20	18	31	41	54	79	97	150	314	422	584
Foam tablets	33	28	38	29	21	21	23	26	27	10	168	62
Total	1322	1371	1637	2087	2625	2702	3159	3822	4175	5099	6420	6830
Total	2130	2404	2918	3775	4680	4820	5418	5850	6411	7337	7599	7953
Married Females Aged 15-49 /d	18097	18629	17179	17746	18332	18937	19582	20208	20875	21585	19946	20590
Apparent Contraceptive Rate /e	13.2	14.5	17.0	21.3	25.5	25.5	27.7	28.9	30.7	34.0	38.1	38.8

/a Cumulative, assuming year-to-year carry-over of 90%.

/b Assuming one couple-year of protection per 15 cycles of pills, 150 condoms or foam tablets, or 4 doses of injectables or vials of EMKO.

/c Cumulative, assuming year-to-year carry-over of 70%.

/d Staff estimates based on age-specific marriage rates from 1981 census.

/e Couple-years of protection per married female aged 15-49.

Sources: MIS, Directorate of Family Planning,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and staff estimates.

〈表 I-8〉 所得分配 및 貧困指標

		1973/74	1981/82	1983/84	1985/86	1988/89
I. Income Distribution:						
Percent of income accruing to:						
Bottom 40%	- Rural	19.10	18.82	19.24	19.95	18.02
	Urban	17.80	18.07	17.84	19.20	17.52
	National	18.30	17.38	18.95	19.35	17.53
Lower middle 40%	- Rural	38.40	38.77	38.08	38.21	-
	Urban	38.00	38.02	37.91	37.87	-
	National	-	37.32	37.67	35.80	-
Upper middle 15%	- Rural	26.50	25.84	24.56	23.71	-
	Urban	26.80	27.01	27.79	26.10	-
	National	-	26.37	25.09	24.67	-
Top 5%	- Rural	16.00	16.78	18.14	21.38	19.81
	Urban	18.80	20.89	18.93	18.04	20.02
	National	16.40	18.95	18.30	21.35	20.51
Gini Coefficient	- Rural	0.35	0.38	0.35	0.38	0.368
	Urban	0.38	0.41	0.37	0.37	0.381
	National	0.38	0.39	0.36	0.37	0.379
II. Poverty Incidence:						
Percent of population with daily calorie intake per person below:						
2122 calories	- Rural	83	74	57	51	48
	Urban	81	68	66	56	44
	National	92	73	58	52	47
1805 calories	- Rural	44	52	38	22	30
	Urban	29	31	35	19	21
	National	48	50	38	22	27
Numbers of people with daily calorie intake per person below (millions):						
2122 calories	- Rural	57.4	60.9	47.0	44.2	40.5
	Urban	5.8	8.4	7.1	7.0	10.8
	National	63.0	67.3	54.1	51.2	51.3
1805 calories	- Rural	30.7	43.1	31.3	19.1	24.9
	Urban	2.0	3.0	3.8	2.4	5.0
	National	32.7	48.1	35.1	21.5	29.9
Total population	- Rural	61.7	82.3	82.5	86.6	84.4 a/
	Urban	8.9	9.7	10.7	12.5	24.5 a/
	National	68.6	92.0	93.2	99.1	108.9 a/

a/ The derived total population is inconsistent with those in the HES (FY89, p.47) which indicate a total population of 104 million of which 90.8 million in rural and 13.2 in urban. The latter will, however, result in poverty incidence indicator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HES estimates.

Source: BB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s.

〈表 I -9〉 GDP 成長率 (1984/85 不變價格 기준)

(단위 : %)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Agriculture	6.67	4.42	4.98	1.01	3.28	0.40	-0.77	-1.07	7.70	1.61	1.95
Crops	7.31	4.17	4.80	0.83	3.38	0.00	-1.77	-1.90	9.16	1.16	1.35
Forestry	6.25	6.11	9.36	-7.23	4.25	-2.15	7.79	2.25	2.25	2.06	2.35
Livestock	-1.46	2.73	5.01	12.16	2.94	5.52	0.95	3.30	3.42	2.15	3.58
Fisheries	3.78	7.19	2.89	1.42	1.64	2.25	1.08	0.38	2.05	5.82	6.48
Industry	1.67	1.47	11.21	3.07	2.66	8.07	5.28	4.83	6.36	4.33	7.00
Mining and Quarrying	100.00	-62.50	33.33	0.00	-25.00	33.33	-50.00	50.00	2100.00	21.21	5.00
Manufacturing	0.26	1.89	7.50	-1.60	2.60	7.89	0.63	2.79	7.25	2.37	7.33
Large Scale	-0.47	2.60	13.29	-3.85	3.79	13.58	0.70	2.70	8.29	4.18	10.50
Small Scale	1.04	1.15	1.34	1.07	1.26	1.30	0.53	2.90	2.90	2.88	2.94
Construction	3.59	-3.43	20.11	12.19	1.73	6.81	12.28	4.88	3.24	4.50	4.21
Power, Gas Water and Sanitary Services	19.01	53.01	7.13	6.34	12.52	21.76	16.35	28.83	15.33	20.55	17.48
Services	1.02	6.17	2.42	7.34	6.02	6.40	5.32	4.73	3.99	4.58	4.48
Transport, Storage and Trade Services	3.77	7.21	4.23	4.93	3.20	11.09	3.73	4.27	4.26	3.08	3.47
Housing Services	-5.76	5.24	-1.63	7.54	1.48	2.55	3.17	4.77	2.98	3.87	4.30
Public Adm. & Defense	3.17	3.08	3.03	3.28	3.05	3.29	3.22	3.27	3.31	3.38	3.41
Banking and Insurance	-10.67	22.47	-6.92	32.56	20.47	7.82	7.92	6.93	2.64	9.68	5.71
Professional and Misc. Services	10.81	-5.68	5.69	17.42	26.29	5.52	1.44	1.13	1.13	2.44	2.53
	6.39	6.53	6.78	4.74	8.04	6.92	11.12	6.25	6.25	6.20	6.40
GDP at Constant Market Prices	3.18	4.68	4.85	3.93	4.34	4.18	2.89	2.52	6.63	3.40	3.96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表 I-10〉 主要 作物 生産動向

Table 7.5
PRODUCTION OF MAIN CROPS, 1950/51-1991/92
(thousand metric tons except as noted)

(단위 : 천톤)

	FIVE YEAR AVERAGES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70/75	75/80	80/85	85/90												
Foodgrains	11056	13101	15302	19981	14975	14598	15311	15565	16210	16188	16590	16547	16650	16427	16030	15985
- Rice	10472	12615	14172	15552	13882	13830	14216	14508	14823	15039	15406	15413	15544	15557	15552	15251
(Aus)	2870	3138	3128	2859	3289	3270	3096	3222	2783	2928	3130	2993	2958	2488	2328	2178
(Aman)	6075	7337	7728	8111	7993	7209	7903	7936	7931	8542	8287	7890	6857	9202	9167	8289
(Boro)	2128	2140	3317	4882	2630	3152	3548	3550	3908	3671	4010	4731	5331	6167	6357	6904
- Wheat	109	429	1168	1019	1092	987	1005	1211	1463	1043	1091	1048	1022	880	1004	1065
- Other cereals /b			54	90	..	..	..	148	124	107	93	86	84	80	80	79
Pulses /b			531	477	..	..	..	527	534	498	487	515	385	480	603	489
- Gram			84	75	..	..	..	86	81	77	82	75	64	70	71	65
- Khesari			177	160	..	..	..	170	183	167	164	182	118	170	177	155
- Mashtulal			58	48	..	..	..	60	55	45	43	52	47	52	52	50
- Masur			184	150	..	..	..	182	185	180	149	169	125	155	187	153
- Meteor			15	13	..	..	..	14	15	14	14	14	13	12	14	14
- Mung			19	32	7	8	9	35	35	33	35	33	28	31	32	32
Oil seeds /b			478	442	..	..	..	488	484	489	438	445	420	437	449	404
- Rape and mustard			270	227	..	..	..	254	286	281	229	222	207	217	228	243
- Til			52	48	..	..	..	57	47	54	49	48	43	49	49	46
- Groundnut			32	40	..	..	..	33	31	34	34	48	45	41	41	47
- Linseed			39	42	..	..	..	41	37	37	43	43	41	48	55	48
- Coconut			53	84	..	..	..	53	53	53	53	56	54	52	79	10
Fibres																
- Jute ('000 bales)	5371	5302	4859	6757	4843	4646	4881	5218	5111	5090	6753	4701	4439	4639	5302	5273
- Cotton ('000 bales)	7	5	39	43	10	54	58	48	29	28	22	39	39	55	148	77
Drugs & narcotics																
- Tea	25	35	40	41	40	39	41	43	38	44	38	41	44	39	46	45
- Tobacco	39	48	49	41	44	51	51	48	50	47	40	42	39	38	34	34
- Betelnuts	22	25	24	22	25	24	24	24	22	23	22	22	22	23	24	24
- Betel leaves	54	55	63	63	60	61	72	61	62	61	62	65	63	65	67	69
Spices	338	303	237	254	185	242	251	245	251	245	240	256	256	272	287	272
- Red chillies	50	46	41	42	37	43	43	42	42	41	39	41	43	47	47	47
- Onion	154	142	129	139	98	132	140	138	140	138	130	141	139	148	143	144
- Garlic	46	40	41	38	38	42	43	43	40	38	38	39	38	39	38	49
- Turmeric	22	23	28	35	25	25	25	25	29	31	35	35	38	35	39	41
Tubers	1522	1644	1819	1875	1703	1775	1893	1879	1642	1715	1817	1834	1833	1579	1720	1849
- Potato	797	868	1115	1121	989	1084	1167	1169	1159	1103	1059	1278	1059	1098	1237	1379
- Sweet Potato	725	782	704	555	704	692	725	713	683	612	548	558	544	512	483	470
Sugar plants																
- Sugarcane /a	6417	6575	7052	6975	6589	7138	7477	7169	6878	6640	6898	7207	6707	7423	7632	7446
- Date palm (juice)	472	378	351	235	378	379	343	343	312	279	268	221	201	209	209	209
Fruits	1428	1576	1222	1211	1213	1230	1250	1181	1207	1207	1228	1243	1158	1223	1210	1213
- Banana	588	594	682	685	652	684	719	675	690	691	703	694	609	637	624	628
- Mango	343	243	182	182	203	184	199	159	193	189	155	160	159	175	179	183
- Pineapple	104	141	147	140	183	185	169	138	132	129	133	145	137	157	162	148
- Jackfruit	188	200	211	245	204	207	212	211	222	229	235	254	251	254	253	255
Vegetables																
- Brinjal	205	179	181	158	178	185	187	182	171	167	162	164	118	182	184	185

/a Based on total area and mill turn yield estimates; probably substantially overestimated.

/b Revised data for 1994-95 period. Comparable figures for earlier years not available.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表 I-11〉 地域別 黄麻 生産動向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000 bales of 400 lb.)											
Rajshahi	1784.0	1501.5	1614.5	1625.8	1773.4	3067.2	2384.8	1616.7	1687.0	1578.7	1874.4	1839.9
Dinaipur	182.4	166.8	150.8	142.2	177.0	215.8	242.9	250.5	179.0	128.6	169.7	169.5
Rangpur	1012.3	937.0	975.4	1014.7	1097.7	1634.3	1447.5	917.6	897.0	877.9	1168.3	1128.4
Bogra	168.3	177.1	168.8	121.1	119.6	358.3	178.8	98.3	165.0	171.9	142.4	131.2
Rajshahi	166.1	99.5	142.0	161.4	188.7	481.4	343.2	182.6	190.0	168.7	180.3	168.7
Pabna	255.9	122.2	179.4	168.4	190.5	379.8	174.4	169.7	258.0	235.6	195.7	248.1
Khuina	854.8	783.0	927.5	992.5	1081.7	1571.9	1052.5	933.4	895.0	957.3	1101.1	1184.3
Kushtia	202.8	191.8	253.5	288.4	378.8	474.9	299.9	237.9	299.0	347.5	394.8	420.7
Jessore	511.1	504.3	500.8	587.0	501.4	888.1	584.3	605.4	459.0	487.4	570.7	623.3
Khuina	102.8	70.8	100.1	121.8	169.8	198.1	150.9	74.6	111.0	107.5	120.5	120.0
Barisal	38.7	14.5	11.8	12.5	10.4	8.2	18.3	13.4	25.0	13.5	13.8	12.1
Patuakhali	1.2	1.8	1.7	1.8	1.5	1.7	2.0	2.1	1.0	1.4	1.7	2.2
Dhaka	1929.2	2025.9	2033.8	2281.5	1998.7	3427.4	2674.0	1911.2	1688.0	1850.3	2064.0	2017.2
Jamalpur	228.2	258.9	253.3	283.7	211.5	292.6	222.4	209.7	258.0	294.9	322.8	294.1
Mymensingh	568.6	708.0	672.9	738.1	614.9	1207.0	893.1	535.3	377.0	377.3	448.7	388.4
Tangail	272.9	188.5	206.8	277.7	194.7	340.5	289.7	259.8	237.9	313.2	334.8	359.3
Dhaka	438.1	447.1	419.4	419.7	431.3	811.2	583.5	379.6	346.0	323.2	385.0	336.9
Faridpur	425.4	425.4	481.4	582.4	518.3	778.1	685.3	527.0	450.0	541.7	575.1	693.8
Chittagong	374.7	335.2	306.8	315.8	307.1	594.4	842.2	239.7	184.0	252.9	282.3	228.6
Sylhet	18.8	28.9	16.7	11.5	10.1	44.7	23.8	8.7	3.0	8.1	7.7	3.6
Cornilla	289.5	285.4	278.4	292.7	286.3	530.5	610.7	223.9	175.0	227.1	244.8	220.7
Naokhal	66.1	19.4	12.7	10.7	10.0	16.1	7.4	6.8	8.0	11.1	3.4	5.3
Chittagong	0.6	0.6	0.4	0.3	0.2	0.0	0.0	-	-	-	-	-
Chittagong H. Tracts	0.7	0.9	0.5	0.5	0.5	1.1	0.3	0.3	-	6.6	6.6	0.2
Total	4942.5	4946.7	4881.4	5215.7	5110.9	8680.0	6753.5	4701.0	4438.0	4639.2	5301.8	5273.2

〈表 I-12〉 各種灌溉統計

(단위: 천ha)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BY METHOD											
Modern methods	1033	1130	1340	1506	1705	1721	1841	2380	2577	2758	2885
Tubewells	227	277	421	667	879	983	982	1467	1512	1678	1732
Low-lift pumps	681	720	763	667	681	609	680	527	658	667	674
BWDB gravity schem	125	133	156	172	145	149	199	386	407	423	239
Traditional methods	843	634	549	586	513	526	557	353	569	603	570
Swing-baskets	85	88	87	84	79	84	94	238	a/		
Doons	377	364	300	238	184	170	179	n.a.	a/		
Canals	28	34	8	134	147	163	155	115	170	178	173
Other	153	148	154	130	103	109	129	n.a.	399	427	397
Total, net	1676	1764	1889	2092	2218	2247	2398	2743	3146	3369	3265
of which:											
modern (%)	61.6	64.1	71.0	72.0	76.9	76.6	76.8	87.1	81.9	82.0	82.5
traditional (%)	38.4	35.9	29.0	28.0	23.1	23.4	23.2	12.9	18.1	18.0	17.5
BY CROP											
Aus	122	116	128	145	141	165	184	119	145	142	138
Aman	144	188	199	159	158	190	190	160	211	214	213
Boro	1021	1065	1168	1168	1285	1259	1363	1678	1867	2050	2128
Wheat	189	194	198	214	283	267	264	196	261	277	282
Other cereals	4	5	4	6	3	3	3	a/	a/	4	4
Pulses	5	3	2	2	3	4	3	a/	a/	3	2
Oilseeds	5	4	5	7	11	12	11	18	12	12	12
Potato	73	79	75	74	70	68	68	57	77	79	82
Vegetables	44	48	51	44	49	53	57	34	63	70	77
Sugarcane	10	16	7	8	8	11	11	7	12	13	10
Cotton	2	2	3	7	4	3	4	-	4	5	5
Others	47	50	53	56	60	63	61	79	88	67	73
Total, gross	1876	1784	1889	1920	2073	2098	2199	2348	2740	2938	3026
Errors and omissions	0	0	0	-39	1	0	0	-	-		
IRRIGATED AREA AS PERCENT OF TOTAL AREA UNDER PARTICULAR CROP											
Aus	3.8	3.6	4.0	4.6	4.5	5.8	5.6	4.3	3.4	6.3	6.5
Aman	2.3	3.1	3.2	2.8	2.7	3.2	3.1	2.9	4.1	3.7	3.7
Boro	86.1	80.0	79.5	85.5	81.8	82.1	82.5	86.4	78.5	81.6	83.5
Wheat	32.9	35.5	37.3	40.7	41.9	49.4	45.1	32.8	46.6	46.8	47.1
Other cereals	5.9	7.2	27.3	3.9	1.8	1.9	2.3	n.a.	n.a.	5.7	5.6
Pulses	1.4	0.8	0.6	0.2	0.4	0.5	0.4	n.a.	0.8	0.4	0.9
Oilseeds	1.5	1.4	1.8	1.1	1.8	2.0	1.9	3.3	2.2	2.3	2.2
Potato	70.0	72.5	66.4	67.3	63.1	62.4	64.2	46.3	69.4	67.5	68.1
Vegetables	38.8	38.1	52.0	32.4	35.5	37.8	39.9	n.a.	n.a.	31.7	34.7
Sugarcane	6.3	6.1	3.9	4.8	4.9	6.9	6.7	4.0	7.0	7	5.2
Cotton	22.7	14.0	16.8	41.2	38.4	17.6	30.8	-	23.5	28.3	26.3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a/ Included under "others"

Note: Irrigated area and percentage of total area under a particular crop has been changed due to the Agriculture census, 1983-84.

〈表 I-13〉 公共部門 灌溉프로그램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P)
AREA IRRIGATED UNDER BWDB SCHEMES ['000 HECTARES]												
Gravity Schemes	122.7	130.2	152.8	172.5	149.7	172.4	198.6	395.9 /a	394.5	423.2	239.3	245.9
Deep Tube Wells [DTWs]	4.7	3.4	10.7	10.4	6.3	4.5	3.3	3.4	3.8	3	3.7	3.25
Low Lift Pumps [LLPs]	3.9	4.8	6.7	8.2	5.0	2.3	1.9	2.1	2.7	0.8	0.7	1.04
Total	131.3	138.4	170.2	191.1	161.0	179.2	203.8	401.4	401.0	427	243.7	250.2
BADC IRRIGATION PROGRAMS												
LOW LIFT PUMPS [LLPs]												
Number fielded	35951	37826	42181	43615	50661	51034	55397	65623	72663	79395	84739	89075
Avg. Cusecs per pump	1.80	1.71	1.82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5
Avg. area irrigated per cusec [ha]	9.3	8.7	8.9	5.9	5.9	6.02	5.89	5.13	4.6	3.84	3.11	3.28
Total area irrigated ['000 ha]	553.5	564.5	551.6	417.5	459.7	439.1	538.2	555.6	551.1	503.1	434.3	487.7
SHALLOW TUBE WELLS [STWs]												
Wells sunk	10900	20568	18687	6929	7738	785	1930	6244	12482	9243	3813	6225
Wells commissioned	10691	20517	18726	6919	7675	860	1985	6244	12482	9243	3813	6225
Wells in operation	20831	42843	62253	67803	73068	73058	80729	87203	99668	111718	115524	123045
Total area irrigated ['000 ha]	99.3	206.2	298.8	303.6	300.4	318.2	333.8	423.7	388.7	444.6	370.8	371.6
Avg. area irrigated per well [ha]	4.9	4.8	4.8	4.5	4.1	4.3	4.1	4.9	3.9	3.98	3.21	3.02
DEEP TUBE WELLS [DTWs]												
Wells sunk	1239	2088	2595	2408	1527	1295	1467	1253	3896	2348	2148	1520
Wells commissioned	688	1314	2522	2168	1987	1410	1471	1105	2171	2688	2516	2739
Wells in operation	10131	11491	13794	15519	16901	17883	18744	21698	23840	22402	22510	23660
Total area irrigated ['000 ha]	259.6	323.2	404.8	415.5	441.2	468.7	388.0	421.4	472.8	447	450	463.98
Avg. area irrigated per well [ha]	25.6	28.1	29.3	28.8	28.1	28.1	20.7	18.4	20.0	20	20	19.6
BANGLADESH KRISHI BANK												
STWs fielded	5714	4510	6116	11762	8833	4062	825	1677	2282	744	228	253
BRDB												
HAND TUBE WELL [MOSTI]												
Cooperatives [TCCA] involved	30	21	131	281	78	159	23698	n.a./b	-	-	-	-
MOSTI distributed	4187	2145	50000	69550	43480	30315	}					

(P)= Provisional

/a Including a total of 225,000 hectare irrigation of F.C.D.I. small scheme and water control structures.

/b BRDB HTW scheme discontinued from 1988.

Note: (i) Comparison with BBS data suggest that data for tube well and LLP acreage irrigated may be overreported by implementing agencies.

(ii) See attached sheet.

Sourc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Bangladesh Water Development Board, Bangladesh Agricultural Development Corporation, Bangladesh Krishi Bank, and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表 I-14〉 農業部門與信現況

(단위: 천만Taka)

	1979/80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p)
Commercial Banks /a													
Short-term agricultural loans	67.4	103.8	95.0	148.0	208.1	348.0	184.2	156.3	227.20	199.85	204.78	187.01	270.22
Other agricultural financing /b	1.0	8.7	11.4	45.0	77.1	103.8	80.8	20.0	13.34	10.13	28.04	47.08	21.41
Fisheries financing	2.7	1.1	1.1	1.2	3.4	4.4	18.2	5.2	3.78	8.30	4.82	2.37	2.14
Tea production and development financing	8.7	2.8	3.6	2.4	2.7	6.7	6.3	6.0	5.23	5.48	6.35	4.98	2.10
Cold storage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3.8	3.8	6.2	4.4	10.3	25.0	13.2	20.8	13.67	17.68	17.88	10.68	16.35
Total	101.3	117.03	117.26	200.04	381.54	488.87	262.7	208.3	283.12	230.73 /d	281.87	232.1	311.31
Bangladesh Krishi Bank & RAKUB													
Short-term agricultural loans	25.5	73.0	110.0	216.1	329.8	192.8	101.8	143.3	144.43	126.50	153.36	133.04	365.29
Other agricultural financing /b	68.0	68.7	62.7	120.3	196.3	312.2	137.8	105.8	114.48	172.47	129.50	91.87	84.68
Fisheries financing	4.8	7.4	7.0	12.1	24.2	15.3	10.4	5.2	5.23	4.79	3.2	2.46	2.89
Tea production and development financing	41.2	58.0	58.3	46.9	33.3	81.4	100.8	62.7	50.38	110.81	117.23	123.88	145.91
Cold storage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1.7	4.7	5.1	6.6	8.9	13.0	14.5	18.1	14.72	25.80	20.65	9.07	8.43
Total	142.0	209.7	271.0	400.8	592.4	614.7	365.1	384.9 /e	379.2	440.35	423.02	361.23 /g	607.57
Bangladesh Samabaya Bank													
Short-term agricultural loans	22.5	20.7	13.7	19.0	18.0	23.8	8.6	12.9	11.48	13.82	1.88	1.51	2.13
Other agricultural financing /b	3.1	8.8	3.7	3.5	3.8	6.3	4.4	4.2	2.51	4.13	0.22	0.78	3.08
Total	25.6	29.5	17.4	22.5	21.8	30.1	13.0	17.1	14.0	17.95	2.10	2.29	5.21
Totals by loan type													
Short-term agricultural loans	135.4	197.5	218.7	343.1	635.9	544.8	275.6	312.5	363.1	340.0	359.8	302.5	837.84
Other agricultural financing /b	72.9	77.4	107.7	168.7	278.7	421.1	192.8	129.8	130.31	188.73	158.85	130.71	108.82
Fisheries financing	7.5	8.5	8.0	13.4	27.6	19.8	28.6	10.4	10.61	11.18	8.02	4.82	5.03
Tea production and development financing	47.6	60.7	59.9	48.3	36.0	88.1	107.1	96.7	104.81	118.00	123.58	126.82	148.1
Cold storage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5.2	9.3	11.4	10.8	17.2	38.0	27.7	36.9	28.29	43.77	38.53	19.75	24.78
Total	268.9	352.5	405.7	624.2	965.3	1131.7	631.8	560.3 /e	658.31	697.73 /d	686.78	605.8	924.07
Of which: Channelled through Cooperatives Under Bangladesh Rural Development Board													
Paddy	19.1	23.8	24.8	303.2	289.5	120.2	67.1	48.6	64.71	41.19	25.12	17.81	*
Y. Aman	5.1	7.1	7.3	55.4	94.5	120.2	18.5	10.0	20.60	5.53	4.69	4.23	1.27
Boro	8.5	11.5	13.2	168.0	96.5	0.0	33.1	31.2	38.31	32.26	17.99	13.94	*
Aus/B. Aman	5.5	5.1	4.0	168.0	96.5	0.0	5.5	5.4	5.60	3.38	2.54	0.64	*
Wheat	0.8	1.1	0.9	9.8	33.2	0.0	0.7	0.4	0.27	0.20	-	-	*
Potato	0.8	0.8	0.4	3.7	8.0	0.0	1.8	1.1	0.83	1.20	1.1	1.83	*
Total	20.5	25.8	25.8	406.5	322.8	120.2	86.8	48.1	65.81	42.69	28.22	19.34	18

(p) = Provisional.

/a Includes refinancing provided by Sonali Bank to TCCA/KSBe through th

/b Includes agricultural term credit as well as financing for marketing, transport and agro-industries.

/c Includes Tk 54.28 crore under BKB and Tk 22.67 crore under Rajshahi Krishi Unnayan Bank for which breakdown by type of loan is not available.

/d Including Tk 62.26 crore disbursed by BRDB, for which breakdown is not available.

/e Including Tk. 48.50 crore disbursed by RAKUB for which breakdown is not available.

/f Including loans of Pubali Bank Ltd.

/g Includes Tk. 324.17 crore under BKB Tk. 37.08 under RAKUB

* Not available at present

Sources: Bangladesh Bank, Agricultural Credit Department; Bangladesh Krishi Bank; Bangladesh Samabaya Bank, Ltd.; and commercial banks.

〈表 II-1〉 AID PIPELINE

(단위 : 백만달러)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FOOD AID												
Opening pipeline	50.00	58.80	48.86	41.78	80.41	194.40	323.83	207.4	299.3	231.70	230.00	119.20
Commitments	202.87	220.58	248.35	285.18	380.18	329.57	108.96	364.0	157.0	159.70	183.80	228.02
Disbursements	194.07	230.50	255.45	276.38	244.50	202.75	225.41	300.5	226.9	187.50	268.55	241.21
Closing pipeline	58.80	48.86	41.78	50.54	198.07	323.83	207.38	299.3	231.7	203.90	119.20	104.01
Pledges	335.00	189.00	198.00	219.00	246.00	235.00	222.00	226.00	214.00	183.00	158.00	188.07
COMMODITY AID												
Opening pipeline	398.77	381.18	454.32	478.70	591.69	374.73	480.44	609.1	451.5	499.60	478.51	408.17
Commitments	354.87	513.00	474.38	528.17	251.77	408.93	582.06	251.2	601.3	430.70	295.93	575.67
Disbursements	392.48	419.88	452.01	439.19	431.57	393.39	402.52	509.4	537.7	458.70	408.10	386.03
Closing pipeline	381.18	454.32	478.70	585.87	382.81	480.44	619.98	451.5	499.6	487.30	408.17	615.78
Pledges	405.00	386.00	379.00	488.00	523.00	437.00	559.00	564.00	585.00	590.00	553.00	482.74
PROJECT AID												
Opening pipeline	2002.65	2444.23	3044.25	3374.13	3844.48	4061.80	4633.19	4390.1	4899.0	4801.22	5238.70	4848.68
Commitments	1001.49	1189.29	799.80	881.68	1336.58	922.94	932.23	914.5	1115.1	1553.30	890.00	972.44
Disbursements	559.91	589.27	469.93	652.82	590.91	709.79	987.23	830.5	903.9	1185.40	1055.00	984.23
Closing pipeline	2444.23	3044.25	3374.13	3702.96	4093.12	4633.19	4598.19	4699.0	4910.2	4943.00	4847.00	5118.79
Pledges	802.00	1068.00	1003.00	913.00	832.00	999.00	1128.00	1233.00	1257.00	1423.00	1087.00	1462.96
TOTAL												
Opening pipeline	2451.43	2864.22	3547.44	3892.58	4296.58	4830.93	5417.46	5208.6	5449.80	5332.52	5948.11	5374.05
Commitments	1559.24	1922.85	1522.53	1694.99	1971.48	1661.44	1803.25	1529.7	1873.40	2143.70	1370.33	1774.13
Disbursements	1148.45	1239.63	1177.38	1268.40	1268.98	1305.93	1595.16	1640.4	1668.50	1809.60	1732.55	1611.47
Closing pipeline	2864.22	3547.44	3892.58	4319.17	4622.00	5417.46	5425.59	5449.8	5641.50	5614.20	5374.37	5838.58
Pledges	1542.00	1623.00	1580.00	1620.00	1701.00	1671.00	1907.00	2023.00	2058.00	2196.00	1796.00	2113.77
DISBURSEMENTS RELATIVE TO RULES OF THUMB [PERCENT]												
Food aid [100% OPL + 75% NC]	98.0	102.8	108.6	108.1	70.8	45.9	55.6	82.6	54.4	53.3	72.8	83.5
Commodity [75% OPL + 25% NC]	101.2	105.2	98.4	89.7	85.2	102.6	82.8	98.0	110.9	94.7	94.3	85.8
Project aid [20% OPL]	139.8	120.5	77.2	81.9	81.1	87.4	104.4	94.6	98.2	128.6	100.8	101.5
Total	116.7	111.5	90.3	89.3	80.1	79.8	87.7	87.3	90.4	103.2	93.7	94.2
Ratio of Actual Commitments to Pledges (%)												
	101.1	118.5	98.4	104.6	115.9	99.4	84.1	75.6	91.1	97.6	78.3	83.9

Note: OPL=Opening pipeline, NC=New commitments.

Commodity aid includes cash aid, and project aid includes technical assistance.
Discrepancies between closing pipeline in one year and opening pipeline in the next
year result from adjustments for currency revaluations, aid cancellations, and
reclassifications.

Source: Economic Relations Division.

〈表 II-2〉 COMMITMENTS AND DISBURSEMENTS OF AID BY TYPE OF AID

(단위 : 백 만 달러)

	1976/77	1977/78	1978/79	1979/80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9/90	1990/91	1991/92
COMMITMENTS																
Food Aid	143.1	138.8	300.7	270.0	262.8	220.6	248.4	285.2	380.2	329.8	109.0	384.1	157.0	159.7	183.8	228.0
Grants	90.5	108.9	259.8	255.0	171.4	183.7	248.4	271.8	380.2	329.8	109.0	384.1	157.0	159.7	183.8	228.0
Loans	52.6	31.9	40.9	15.0	31.4	36.9	-	13.4	-	-	-	-	-	-	-	-
Commodity Aid	304.1	428.1	604.4	285.3	354.9	513.0	474.4	528.2	253.1	408.9	562.1	251.2	601.3	430.7	295.9	675.7
Grants	157.5	148.2	355.8	108.3	185.7	263.9	288.1	240.4	152.8	225.9	208.1	138.5	188.1	178.8	104.5	184.8
Loans	146.6	279.9	248.6	177.0	169.2	249.1	286.3	287.8	100.3	183.0	354.0	112.7	413.2	252.1	191.4	390.9
Project Aid	279.7	582.9	855.1	697.9	1001.5	1189.2	799.8	881.7	1344.6	922.9	932.2	914.5	1115.1	1584.6	890.6	972.4
Grants	152.5	180.1	320.6	121.6	192.9	357.9	320.2	346.3	347.5	609.9	578.6	378.3	318.0	548.4	198.7	888.0
Loans	127.2	402.8	534.5	476.3	808.6	831.3	479.6	535.4	997.1	313.0	353.6	536.2	796.1	1036.2	691.9	284.4
TOTAL	728.9	1147.8	1760.2	1153.2	1559.2	1922.8	1522.6	1695.1	1977.9	1681.4	1803.3	1529.8	1873.4	2175.0	1370.3	1774.1
DISBURSEMENTS																
Food Aid	121.6	177.9	179.0	374.7	194.1	230.5	255.4	276.4	244.5	202.8	225.4	300.5	228.9	187.5	269.6	241.2
Grants	77.1	116.9	162.1	318.8	162.6	230.5	221.0	283.0	242.0	202.8	225.4	300.5	228.9	187.5	269.6	241.2
Loans	44.5	81.0	16.9	55.9	31.5	-	34.4	13.4	2.5	-	-	-	-	-	-	-
Commodity Aid	254.2	380.4	482.8	378.5	392.5	410.9	452.0	439.2	431.8	393.0	402.5	509.4	537.7	458.7	408.1	388.0
Grants	125.1	154.5	204.5	181.8	170.8	213.0	244.5	244.4	243.9	258.0	178.0	170.7	164.0	135.7	248.2	192.0
Loans	129.1	225.9	278.1	216.9	212.9	208.9	207.5	194.8	187.7	137.0	228.5	338.7	373.7	321.0	161.9	194.0
Project Aid	158.8	275.6	388.4	489.9	559.9	589.2	489.9	552.8	590.9	709.8	987.2	830.5	903.9	1185.4	1055.9	984.0
Grants	52.9	121.5	135.3	170.2	251.5	210.3	121.9	228.4	214.9	503.8	255.5	352.8	282.0	442.7	316.7	384.0
Loans	105.7	154.1	233.1	299.7	308.4	378.9	368.0	324.4	376.0	206.0	711.7	477.9	621.9	722.7	739.2	600.0
TOTAL	534.4	833.9	1030.0	1223.1	1146.5	1239.6	1177.3	1268.4	1267.0	1305.6	1595.1	1640.4	1669.5	1809.6	1732.8	1811.2
Memo Item:																
Grants																
Commitments	400.5	433.2	938.0	484.9	550.0	805.5	938.7	858.5	980.3	1185.4	893.7	980.9	661.1	884.7	485.0	1098.8
Disbursements	255.1	392.9	601.9	650.6	593.7	653.8	587.4	733.8	700.8	962.8	658.9	923.8	672.9	765.9	631.5	817.2
Loans																
Commitments	328.4	714.6	924.2	688.3	1009.2	1117.3	685.0	838.6	1097.6	496.0	709.6	648.9	1212.3	1290.3	885.3	675.3
Disbursements	279.3	441.0	828.1	672.8	552.8	595.8	589.9	534.6	668.2	343.0	839.2	816.6	985.6	1043.7	601.1	794.0

Source: Economic Relations Division.

〈表 II-3〉 日本の 對방글라데시 援助實績(1970~92)

(単位: 億円)

年 度	有 償 資 金 協 力	無 償 資 金 協 力
70	なし	1.80億円 食糧援助: 国連経由 (東パキスタン) (1.80)
71	なし	4.62億円 食糧援助: 国連経由 (東ベンガル住民) (1.54) 食糧援助: 国連経由 (3.08)
72	なし	43.09億円 繊維製品 河川用船舶等 (36.93) 食糧援助 (6.16)
73	商品借款 90.00億円 (90.00)	8.92億円 深井戸掘削機材 (3.90) 食糧援助 (5.02)
74	債務繰延べ 商品借款 360.13億円 (245.13) (115.00)	48.02億円 災害緊急援助 (洪水被害) (日赤経由) (2.00) 食糧援助 (26.55) 繊維製品 (15.00) 食糧援助 (4.47)
75	なし	39.80億円 中央農業普及技術開発研究所設立計画 (第1期) ㉔㉕ (7.00) 食糧援助 (22.33) 食糧援助 (10.47)
76	送電線等 商品借款 175.00億円 (45.00) (130.00)	12.300億円 浅井戸掘削計画 (9.20) 中央農業普及技術開発研究所拡充並びに柑橘及 び野菜種子研究センター設立計画㉔㉕ (3.10)
77	グッカホテル建設㉔ 商品借款 商品借款 354.00億円 (64.00) (140.00) (150.00)	39.08億円 食糧倉庫建設計画㉔㉕㉖㉗ (11.50) 食糧援助 (13.68) 航空機贈与 (13.90)
78	商品借款 海運増強 発電バージ㉖ 280.40億円 (155.00) (90.00) (35.40)	68.38億円 漁業研究計画 (漁業研究機材) ㉘ (5.00) 農業専門学校拡充計画 (実験及び実習のため必 要な機材) ㉙ (3.00) 学校教育放送施設整備計画㉚ (7.00) 公共施設計画 (5.50) 食糧増産援助㉛ (7.00) 食糧援助 (12.87) 食糧増産援助 (10.00) 罹災者救援計画 (4.50) グッカ博物館拡充計画のための視聴覚及び研究 機材 (0.45) 災害緊急援助 (ビルマ難民救済) (UNHCR 経由) (2.80) 債務救済 (10.26)

(계속)

(単位：億円)

年 度	有 債 資 金 協 力	無 債 資 金 協 力
79	商品借款 165.00億円 (165.00)	食糧貯蔵能力拡充計画（食糧用倉庫の建設）㉔ ㉔㉔㉔ (20.00) 循環器病研究所機能強化計画㉔㉔ (7.00) 食糧援助 (16.66) 輸送用車両維持修繕中央作業場施設建設計画㉔ ㉔ (10.00) 小中学校増改築計画 (5.00) 食糧増産援助㉔ (23.00) 沿岸漁船動力化計画 (6.00) 芸術院視聴覚照明音響機材 (0.38) 債務救済 (13.93)
80	レーヨン工場修復 135.00億円 送電線建設㉔ (38.00) バグラバード・ガス開発 (31.00) (66.00)	食糧増産援助㉔ (29.00) 食糧援助 (19.30) 農業開発機材整備計画㉔ (15.00) 食糧貯蔵能力拡充㉔㉔㉔㉔ (10.00) 輸送用車両修繕維持中央作業場施設建設計画㉔ ㉔ (7.50) 送配電線網整備計画 (5.00) 債務救済 (15.92)
81	商品借款 445.00億円 カプタイ水力発電（E/S）㉔ (170.00) 商品借款 (2.50) チッタゴン尿素肥料工場計画㉔ (175.00) (97.50)	食糧増産援助㉔ (29.00) 食糧援助 (20.80) バングラデシュ農業大学施設建設計画㉔㉔㉔ (20.00) ラジオ放送会館施設建設計画㉔㉔㉔ (14.40) 末端灌漑施設建設計画㉔ (8.40) 送配電線網整備計画 (4.00) 債務救済 (8.47) 救急患者輸送サービス拡張計画㉔ (2.50) 中央農業普及技術開発研究所寄宿舍建設計画 (1.20)
82	商品借款 275.00億円 カプタイ水力発電所（I）㉔ (180.00) チッタゴン尿素肥料工場計画㉔㉔ (40.00) バグラバード・ガス開発計画 (35.00) (20.00)	食糧増産援助 (32.00) 食糧援助 (29.90) 食糧貯蔵能力拡充計画㉔㉔ (18.00) ラジオ放送会館建設計画㉔㉔㉔ (7.40) 罹災地復興計画 (5.00) 配電網整備計画 (3.00) ダッカ医科大学研究所病院整備計画㉔ (2.90) 債務救済 (17.48)
83	商品借款 275.00億円 カプタイ水力発電所（II）㉔ (168.20) (106.80)	食糧増産援助 (33.00) 食糧援助 (30.21) 消防施設強化計画 (2.00) 必須医薬品製剤センター建設㉔ (11.50) ナラヤンガンジ総合病院建設㉔ (5.90) 稲研究所稲遺伝資源研究施設建設㉔ (5.50) 魚網機材供給計画 (2.10) 罹災地復興計画 (5.50) ダッカ医科大学機材整備計画 (0.98) 債務救済 (17.58)

(계속)

(単位：億円)

年 度	有 債 資 金 協 力	無 債 資 金 協 力
84	発電バージ建設計画 60.65億円 (60.65)	137.93億円 食糧増産援助 (33.50) 食糧援助 (34.71) ナラヤンガンジ総合病院建設⑧⑨ (16.80) 医療機材整備計画 (8.32) 飲料水給水施設建設計画 87.63) 罹災地復興計画 (6.00) メグナ川橋梁建設計画 (D/D) (1.90) 債務救済 (23.72) 道路整備計画⑧ (3.34) 公共施設建設計画 (2.00)
85	545.00億円 商品借款 (160.70) ガス・タービン発電プラント建設⑧ (75.10) 電気通信網拡充計画 (34.20) 商品借款 (163.90) 大ダッカ圏電話網整備計画⑨ (63.20) チッタゴン製鉄所修復計画 (47.90)	147.88億円 食糧増産援助⑧ (38.00) 食糧援助 (31.05) ナラヤンガンジ総合病院建設⑨ (6.10) 飲料水給水施設建設計画 (14.53) 村落連絡橋整備計画 (11.00) 食糧倉庫建設計画⑨ (5.36) 災害援助 (2.84) 農村婦人研修所設立計画 (2.60) 罹災地復旧計画 (8.00) 債務救済 (28.10) ダッカ大学体育機材 (0.30)
86	35.51億円 チッタゴン尿素肥料工場⑨ (追加借款) (35.51)	130.65億円 飲料水給水施設建設計画 (15.80) 食糧倉庫建設計画 (11.04) 循環器病センター医療機材整備計画⑨ (3.03) メグナ橋建設計画(1/5期) ⑨ (11.95) 気象観測用レーダー更新計画 (6.36) 債務救済 (33.85) 食糧援助 (20.00) ラジオ放送局送信機整備計画 (3.73) 罹災地復興計画 (7.00) 食糧増産援助 (12.00) 配電網整備計画 (3.00) 消防及び援助用機材整備計画 (2.50) 遠隔地教育研究所 (0.39)
87	240.00億円 86年度円借款 (240.00) シレット火力発電所建設計画 (81.70) 商品借款 (158.30)	128.86億円 メグナ橋建設計画(2/5期) ⑨ (19.86) 飲料水給水施設建設計画 (12.42) 食糧援助 (25.00) 下水道網整備計画(詳細設計) (1.82) 安全運航用機材整備計画 (3.95) 罹災地復興計画 (8.50)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地区末端灌漑施設 復旧計画 (1.05) テレビ中継機材 (0.48) 債務救済 (42.18) 食糧増産援助 (5.60) 郵便用車輛整備計画 (1.19) 医療機材整備計画 (6.81)

(계속)

(単位: 億円)

年 度	有 償 資 金 協 力	無 償 資 金 協 力	技 術 協 力
88年度	475.13億円 87年度円借款 (275.94) 商品借款 (133.00) マダバラ採石事業 (E/S) (4.41) ジャムナ肥料工場建設事業 (138.53) 既往プロジェクト活性化協力 (124.19) チッタゴン苛性ソーダプラント修復事業 (20.76) ゴラサール肥料工場改修事業 (103.43) 洪水災害復興緊急商品借款 (75.00)	136.42億円 メグナ橋建設計画(3/5期) ㊦ (19.99) 飲料水給水施設建設計画(9.62)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地区末端灌漑施設全体復旧計画(1/3期) (5.36) 下水道網整備計画(1/3期) (16.30) 食糧援助 (19.00) 災害緊急援助(洪水被害) (11.16) バングラデシュ漁業開発公社魚加工冷凍施設等整備計画㊦ (1.54)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灌漑施設建設計画(詳細設計) (0.76) 債務救済 (52.32) 遺跡保存用機材 (0.38)	12.37億円 研修員受入 98人 専門家派遣 39人 調査団派遣 117人 協力隊派遣 33人 機材供与 116.1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2件 開発調査 5件
89年度	275.00億円 88年度円借款 (275.00) ジャムナ肥料工場建設事業計画(Ⅱ) (185.00) 商品借款 (90.00)	158.59億円 メグナ橋建設計画(4/5期) ㊦ (19.36) 下水道網整備計画(2/3期) (18.21) 大学教育機材整備計画 (4.32)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灌漑施設復旧計画(1/3期) (5.70) 食糧援助 (13.00) 債務救済 (93.19) 食糧増産援助 (4.00) ダッカ市雨水排水施設整備計画(詳細設計) (0.66) 小規模無償(3件) (0.15)	17.45億円 研修員受入 127人 専門家派遣 28人 調査団派遣 149人 協力隊派遣 42人 機材供与 187.2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2件 開発調査 7件
90年度	312.41億円 89年度円借款 (274.41) ジャムナ肥料工場建設事業(Ⅲ) (84.80) 大ダッカ圏電話網整備事業計画(Ⅱ) (147.61) 商品借款 (42.00) エネルギー部門調整借款 (38.00)	175.29億円 メグナ橋建設計画(5/5期) ㊦ (8.41) 下水道網整備計画(3/3期) (15.71)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灌漑施設建設計画(2/3期) (17.96) ラジオ放送局送信機整備計画 (4.61) ダッカ市雨水排水施設整備計画(1/3期) (6.26) バングラデシュ農業大学院施設拡充計画 (4.03) メグナグムティ橋建設計画(詳細設計) (1.40) 債務救済 (103.30) 食糧援助 (13.00) 青年・スポーツ省に対するスポーツ機材 (0.50) 小規模無償(2件) (0.11)	18.79億円 研修員受入 108人 専門家派遣 23人 調査団派遣 160人 協力隊派遣 24人 機材供与 239.3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2件 開発調査 5件

(계속)

(単位：億円)

年 度	有 債 資 金 協 力	無 債 資 金 協 力	技 術 協 力
91年度	122.00億円 サイクロン災害復興緊急商品借款 (122.00)	199.20億円 ナラヤンガンジ・ナルシンジ灌 漑施設建設計画(3/3期) (9.77) グッカ市雨水排水施設整備計画 (2/3期) (11.58) モデル農村整備計画 (7.23) メグナグムティ橋建設計画 (1/5期) (11.68) サイクロン被災道路復興計画 (2.99) サイクロン被災農地復興計画 (2.81) サイクロン被災施設復興計画 (2.04) モノハカリ水揚・貯蔵施設建設 計画 (6.52) 債務救済 (116.73) 災害緊急援助(台風被害) (950万ドル=12.26) バングラデシュ国営放送に対す る教育・文化テレビ機材(0.47) 食糧援助 (15.00) 小規模無償(3件) (0.13)	20.93億円 研修員受入 129人 専門家派遣 88人 調査団派遣 166人 協力隊派遣 53人 機材供与 194.1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2件 開発調査 6件
92年度	なし	217.05億円 グッカ市雨水排水施設整備計画 (3.97) 気象用マイクロウェーブ網整備 計画 (8.35) メグナグムティ橋建設計画 (20.93) 船員訓練養成学校整備計画 (6.43) モデル農村整備計画 (8.49) メグナ河護岸対策計画 (11.22) モノハカリ水揚・貯蔵施設建設 計画 (6.92) 債務救済 (136.63) 食糧援助 (14.00) 小規模無償(3件) (0.12)	22.86億円 研修員受入 145人 専門家派遣 29人 調査団派遣 177人 協力隊派遣 39人 機材供与 168.30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2件 開発調査 6件
92年度 までの 累 計	4,620.23億円	2,240.29億円	227.06億円 研修員受入 1,842人 専門家派遣 564人 調査団派遣 1,742人 協力隊派遣 506人 機材供与 3,682.87百万円 プロジェクト技協 9件 開発調査 39件

- (注) 1. 「年度」の区分は、有債資金協力は交換公文締結日、無債資金協力及び技術協力は予算年度による。
 2. 「金額」は、有債資金協力及び無債資金協力は交換公文ベース、技術協力はJICA経費実績ベースによる。

B. 방글라데시 全圖

